금주의 법구-〈법구경〉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으면 행복이 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1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4호 2017년 7월 5일 수요일

공공사업 증가, 불교 사회참여 新모델

공공사업 선정 증대, 불교계 현황은?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참여형 공모사업에 불교계 기관 · 단체들이 예년보다 다수 선정돼 활약을 펼치면서 범불교적인 공공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와 함께 이웃종교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사회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불자들의 인식 개선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뒤따른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최근 서울시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일환인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교육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달 실시한 제1차 기초과정에는 70여 명이 몰려 정원인 40명을 훨씬 웃돌았다. 이에 상담개발원은 2차 교육과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정원을 60명으로 늘렸지만 이번에도 정원 초과 인원이 수강신청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준전문가로서의 활동영역을 제공하면서 불자들의 공적 사회참여 욕구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상담개발원은 2015년부터 서울시 사업을 통해 '종교상담서비스'와 '자살위험군 템플스테이' '종교예식' '자살예방 세미나' 등을 실시해왔지만 일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올해가 처음이다.

황선미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은 "각 복지관과 사회시설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강연을 진행할 자격이 부여되기에 인기가 높은 것 같다. 참가자 대다수가 스님과 불자들로 사회참여에 대한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욱 신경써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외에도 최근 여러 단체가 각종 사회참여 기금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은 6월 26일~7월 4일 서울시 성평등 기금사업 '미혼모 생활설계전문가 과정'을 개최했으며, 7월 1~9일 행정자치부 비영리 공모사업으로도 같은 과정을 열었다. 이 과정에도 역시 20명 정원에 38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또한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가 서울시 여성안심 행복마을사업으로 오는 10월까지 성평등 메신저를 양성하는 '발 없는 말, 안전마을을 가다' 프로그램과 서울시 성평등 기금지원 사업 '에코젠터 가족학교'를 진행하며,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오종근 · 유지원 · 곽인순)도 전북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도보순례'와 산하 자연음식문화원이 주관하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전통음식문화체험'이 선정됐다.

특히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1대1 멘토 · 멘티를 설정, 지역 내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순례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도보순례'는 지난해 (재)아름다운동행 후원을 받아 실시한 이후 지역사회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9월 중 지리산 인근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살예방 · 청소년 보호 등
정부기금 사업 참여 증가
"사회참여 열기 확인된 셈"

이웃종교 비하면 태부족
행자부 사업 중 불교 6개
개신교 사업 22개의 27%

"불교만의 사업 방향 찾고
제반 환경 조성에 힘써야"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불자들이 2014년 창립한 명상나눔협동조합의 활동도 눈길을 끈다. 이 조합은 올해 개인 맞춤형 건강 지도 '몸맘건강종합세트'를 성북구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에는 매회 40여 명이 참여해 개인 건강을 위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정부 · 지자체와 연계한 불교계 단체 공공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불자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단순한 포교 목적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해당 종교의 공공성을 일반사회에 알린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주 명상나눔협동조합원은 "보조금을 받는 공공사업을 포교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순수하게 종교 본연 역할을 위한 불교 사회화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나선다면 보람과 결실을 느낄 수 있다. 불교계에도 제반 환경이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불자들의 관심 확대에도 현재 불교계 정부 · 지자체 공공사업 제반 환경은 이웃종교에 비해 많이 뒤처진 상황이다.

행정자치부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다문화 · 북한이탈주민 · 아이지킴 등 총 200개 사회참여 기금사업 중 불교계는 △불교여성개발원-미혼모 자녀 교육 프로그램 △생명나눔실천본부-청소년 교육홍보 프로그램 △더프라미스-지역사회 재난대응 프로그램 △무소유실천운동본부-마음의고향 우리의 장단 프로그램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나라사랑 한마음운동 △나마스떼코리아-네팔 히말라야 생활여건개선 △조계종사회복지재단-라오스 환아치료지원 등 6개에 불과했다. 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의 에너지절약 교육 등 기독교계 사업이 22개인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불교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각 단체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사업계획이 뒷받침돼야 꾸준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지원 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역 현안을 살피고, 불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웃종교 선례를 뒤따라가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교계가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길 바란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또 이범수 불교상담개발원 부원장은 "공공사업 전개는 사회 요구에 대한 불교의 대답"이라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 상담체계 완비 등 조건과 3년 이상 사업 진행의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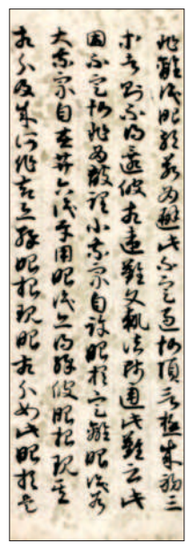
"눈앞에 펼쳐진 붓다 고행상 간다라 박물관에 온 것 같네"

동 · 서 문화 융합으로 탄생한 위대한 불교문화 '간다라 미술'이 불자들을 찾아왔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과 파키스탄 페샤와르박물관 · 라호르박물관이 주최한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붓다-간다라 미술展'이 6월 29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VR체험실에서 한복을 입은 불자들이 석가모니 고행상을 참배하고 있다.

현지 박물관을 재현한 모습에 VR기기를 쓴 불자들의 입가에는 놀라움이 떠나질 않는다. 개막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등 스님들과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 문화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관심을 표했다. 이번 전시전은 9월 30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서 열린다. 〈관련 기사 B5면〉

노덕현 기자



새롭게 발견된 〈판비량론〉의 단간.

원효 '판비량론' 조각 日서 새로 발견됐다

동국대 · 가나자와문고 원효 국제학술대회서 공개

원효 스님의 저술인 〈판비량론(判比量論)〉 미공개 부분이 일본에서 발견됐다.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 게이오대학 강사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과 일본 가나자와문고와 함께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공동 주최한 '원효와 신라사본' 국제학술대회에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판비량론〉의 단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로 발견된 〈판비량론〉의 단간은 개인이 소장하던 것으로 학술대회와 함께 열린 특별전을 준비하던 중 확인됐다. 그간 〈판비량론〉은 쿠카이(空海) 대사 쓴 '도지기레(東寺切)'로 전해지고 있었다. 이후 일본 교토의 사찰 도지에서 흘러나와 바이케이(梅溪)라는 사람에게 간 것으로 확인된다. 자료가 있던 상자에는 '쇼와(昭和) 44년(1969년) 가을, 서향(西鄕)산장에서 바이케이가 기록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판비량론〉 필사본의 낱장은 세로 25.7㎝, 가로 7.7㎝로 총 5행 100자가 쓰여져 있다. 한자 100자 중 앞부분 29자는 일본 승려 젠주(善珠)의 저술 〈명등초〉에 인용된 〈판비량론〉과 일치하고 나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오카모토 강사는 새로 발견된 단간이 오오타니(大谷)대학 소장본과 동일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자와 종이의 크기와 재질이 모두 오오타니본과 일치한다"면서 "젠주가 인용한 〈판비량론〉 문장과 새로 발견된 단간의 문장이 똑같은 점도 이를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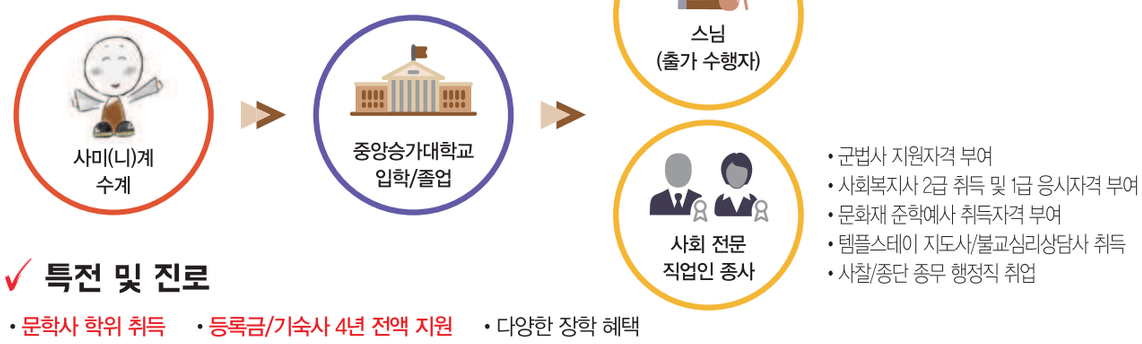
중앙승가대학교 '4년 단기출가자' 모집

✓ 'Uni-출가' : University + 출가
(4년 단기출가)

Uni-출가는?
⊙중앙승가대학교 정규대학과정을 마치고 문학사 학위를 취득한다.
⊙졸업 후 출가수행을 계속하거나 사회전문직업을 택할 수 있다.
⊙전공은 불교학역경학, 문화재학, 포교사회학상담학, 사회복지학이 있다.
⊙학비 및 기숙사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 신청자격 : 고교졸업학력 이상의 만 50세 미만인 자 / 고등학교 재학생
• 신청기간 : 8월 중순까지
(청소년은 12월 중순까지이며 '청소년출가 특별법'에 의해 행자교육이 면제됩니다)
• 문 의 :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031) 980-7736, 7713~5

✓ 'Uni-출가' 개요



✓ 특전 및 진로
• 문학사 학위 취득 • 등록금/기숙사 4년 전액 지원 • 다양한 장학 혜택
• 해외자매결연대학(대만 불광/남화대학, 미국 서래대학, 호주 남천대학, 필리핀 광명대학, 일본 교토 불교대학) 교환학생 : 학비 · 기숙사 전액지원
• 군법사 지원자격 부여 : 남 · 여 지원가능(국방부지정 군종장교 후보생지원대학)
•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및 1급 응시자격 부여 : 복지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
• 불교심리상담사, 템플스테이 지도사, 문화재 준학예사 취득 및 지원자격 부여 • 사찰/종단 종무 행정직 취업

(우) 10118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 중앙승가대학교 Tel 031-980-7736, 7713~5 www.sangha.ac.kr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파기환송

대법원, 정혜사 측 청구소송에… 원점서 재심리

선학원 정혜사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수덕사에 “정혜사 소유권 말소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되돌리는 결정이어서 추후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수덕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제2부는 6월 29일 선학원 정혜사가 수덕사를 상대로 낸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원점서 다시 다루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덕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파기환송의 정확한 이유를 알 것 같다. 일단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이행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정혜사 재산관리인이었던 석청 스님과 수덕사 간 이뤄진 ‘부제소합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1981년 설정 스님이 수덕사 주지 시절,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제7교구본사수덕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해 “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사찰인 원고와 피고의 명칭을 합쳐놓은 것으로 보일 뿐, 실재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수덕사 측은 1심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재가포살로 신행 혁신, 새 불교를” 6월 28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 위치한 템플스테이정보센터 보현실은 재가불자들의 뜨거운 원력으로 가득 찼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개최한 첫 산하단체 포살법회에는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을 비롯해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상담개발원 실무자 등 30여 명이 불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원주 성문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개소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제공 계획

강원도 원주 지역 최초의 불교계 치매전담실이 개소해 눈길을 끈다.

천태종복지재단 성문노인전문요양원(원장 소지)은 7월 3일 요양원 강당서 ‘치매전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성문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은 정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소규모(12명 정원)로 운영된다. 또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가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로 배치돼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자극 및 행동기능 개선에 집중한다. 지남력 · 기억회상 · 사물인지 훈련을 포함, 읽기 · 쓰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날마다 제공되며, 치매로 인해 행동심리증상(BPSD)을 보이는 어르신들에게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치매전담실은 일몰 시간대와 흐린 날 증가하는 행동심리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환경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벽면을 우묵히 들어가게 만든 공간(alcove)을 신설해 치매 환자들의 특징 중 하나인 ‘배회’가 자연스럽게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과거 사진 투사 · 옛 노래 들려드리기 등으로 우울감 완화 · 과거 회상 · 주의 환기 등을 치료할 예정이다. (033)745-9179

김주일 기자

불교학회지 논문 규정 통일 ‘본격화’

불교학술단체연합회 7월 3일 규정 통일안 발표

다양한 불교학계 학술지들의 논문 게재 시 맞춰야 하는 규정들이 일괄적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한국불교학회, 대행선연구원 등이 참여한 한국불교학술단체연합회는 7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통일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4일 통일안 합의를 위해 학회 대표자들이 첫 회동을 가진 후 3개월여 만에 완성된 것이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문작성 규정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학회지마다 규정이 달라 처음 준비하던 곳이 아닌 다른 학회지에 논문을 기고하기 위해서는 다시 규정에 맞춰 고쳐 써야했기 때문이다.

통일안 마련을 위해 주요 불교학 단체들은 종호 스님(한국불교학회), 김성철 교수(동국대 경주캠 불교사회문화연구원), 김광식 교수(대각사상연구원 · 만해학회), 이기운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호귀 교수(한국선학회) 등을 위원으로 한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4월 7일, 4월 26일, 5월 26일, 6월 2일 4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매 회의마다 4~5시간의 열띤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 같은 산고를 통해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통일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

주요 불교계 학회 14곳 참여

간결 · 일관 · 정확 · 국제성 ‘특징’

불교학자, 편의성 높아질 전망

“미참여 학회들 참여 독려도”

이번 통일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간결성 △일관성 △정확성 △국제성이다. 각주의 경우 간략히 작성하고 온전한 서지 정보를 기입할 것, 연도는 서기로 통일할 것을 명시했다. 참고문헌의 경우 본문 인용 문헌만 정리 · 표기하고, 1, 2차 자료를 구분해 정리할 것을 규정했다. 1, 2차 자료 표기법도 상세하게 명시해 놨다.

현재, 합의 동참한 불교학 단체는 △대각사상연구원 △대행선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동국대(경주) 불교사회문화연구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만해학회 △보조사상연구원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연구소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인도철학회 △정토학회 △중앙승가대 승가학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학회 등 14개 단체다. 불교학연구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불교학 단체들이 참여한 것이다.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학회지마다 논문 작성 규정이 다를 경우 게재하려는 학자들은 번거로운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세계 학계도 논문 규정을 통일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통일안은 국내외 학계의 관례를 중시하면서 ‘간결 · 일관 · 정확 · 국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몇몇 학회가 아직 동참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대한 독려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해인사, 고불암 감원 J스님 해임 · 산문출송

‘해인사 가풍 악영향’ 판단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가 최근 여종무원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산내암자 고불암 감원 J스님을 산문출송했다.

해인사(주지 향적)는 “6월 23일 관음전서 정유년 하안거 임회를 개최, J스님의 고불암 감원 해임과 산문출송을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J스님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산문출송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해인사 관계자는 “J스님은 여종무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승풍실추를 범하고, 해인사 가풍에 해를 끼쳤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J스님은 임회에서 수사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지만 대다수 임회의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해인사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이 입었다고 판단해 산문출송을 결의했다. J스님 해임에 따른 후임으로는 해인사 종무소 국장급 스님을 파견했다.

또한 해인사는 고불암을 직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직영 전환을 위한 실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단열로 사찰에너지 효율 극대화”

조계종 환경위원회, ‘사찰에너지 관리 어떻게’ 토론회

사찰에너지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로 ‘단열’이 제시됐다. 대부분의 사찰이 건축된 지 오래돼 단열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는 2017 토론회 ‘사찰에너지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6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함승호 적정기술공방 대표〈사진〉는 “단열을 통해 난방비를 절반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면서 사찰 단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및 사례를 제안했다.

먼저 함 대표는 100평 규모의 수녀원을 리모델링한 사례를 제시하며 “식당과 기도시설 등 외벽들 뿐 아니라 외벽과 나란히 위치한 벽들도 전부 단열했다. 또 종교시설의 불필요한 창과 문의 크기와 개수를 최소화했다”면서 “외벽과 이어지는 벽을 간과할 경우 이 부분을 통해 냉온이 계속 열교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벽짚 등 단열소재 활용하면

사찰 단열 문제 해결에 도움

또한 상시 거주 공간은 화목 보일러로, 비상시 공간은 구들과 보일러를 복합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시공 단계부터 단열 장치를 확보한다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볏짚 · 갈대 등 생태 단열소재도 주목할 만한 기법으로 소개했다. 함 대표는 “갈대는 사이에 있는 기공들이 천연단열재 역할을 한다. 볏짚, 갈대 등은 환경에 전혀 주장을 주지 않는 기법으로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도 ‘사찰에너지 문제의 세계성과 현실성’ 주제 발표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찰에서의 실천 방안은 ‘건축물의 단열’”이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이밖에 강해윤 동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찰에서 태양광 발전 설치 방안’을,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숲가꾸기+바이오매스 활용방안-적용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포교원 사이버 강의 일반인에게 문 연다

디지털대학 일반 접근성 높이기로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활용 중인 조계종 디지털대학 강의가 향후 일반인에게도 문을 열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6월 23일 디지털대학에 대한 교무회의를 열고,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도교육 과정 외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과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교국장 원묵 스님은 “신도교육과정 등 내부적인 교육에만 치중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다양한 자격 과정 개설을 통해 누구나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 디지털대학은 포교원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터넷으로 불교교리를 학습해 신도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회원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 본회 설립동기에 대하여 종단스님 및 문화예술단체 지도자님들께 널리 알리고 회원을 모시고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스님 및 지도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설립동기 : 많은 종교지도자님들께서 몸담고 계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 임원과 회원들 간에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 법인설립자 및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 각종행사 등을 하기 전 회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면 ● 회비 및 후원금을 회원들의 현실에 맞게 정했으면 ● 행사일정을 행사 15~20일전에 미리 연락해 주었으면 ●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상생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 덕망 있는 좋은 분들 만나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소생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오랜 기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기필코 해결하여 회원님들이 신뢰하고 덕망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 종단 및 문화예술 단체등록, 종단행정,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사암등록,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단체명의 차량등록증 등 모든 행정에 대하여 지원도 해드리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립니다. (문의 : 사무총장 산수스님 H·P : 010-3300-0408)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봉암사명상마을 청사진, '전통의 현대화' 방점

명상마을추진위, 국제건축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美한라한 교수-현대종합설계팀 선정, 10월 착공

조계종립 특별선원 봉암사와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한국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건립 추진 중인 '문경세계명상마을' 청사진이 공개됐다.

봉암사문경세계명상마을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적명 · 혜국)는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국제건축설계지명공모 참가 작가 설계안을 심사, 당선작으로 토마스 한라한 교수(미국 프렛대학)와 현대종합설계팀을 선정했다.

'전통의 현대화'에 방점을 찍은 한라한 교수는 선방을 상 · 중 · 하로 구분하고, 회랑을 통한 이동이 가능토록 기획한 데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각 선방에 정원을 배치하는 한편, 무문관과 꾸띠(토굴)를 본관과 분리해 수행집중도를 높였다. 전통기와 대신 아연징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이고,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심사에는 건축 · 조경 · 환경디자인 전문가 10인과 추진위원회 스님들, 고윤환 문경시장, 김지현 문경시의회의장, 권기섭 경북도청 도시기획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마스 한라한 교수

상 · 중 · 하 선방 나누고
개인수행장소 별도 마련
수행 편의 · 친환경 평가
"단계별 공사에도 용이해"

봉암사 결사 70년 맞아
오는 10월 1단계 착공
2018년 준공 개원 목표
일반인 대상 명상 계획



토마스 한라한 교수가 설계한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조감도.

상임추진위원장 의정 스님은 심사평을 통해 "수행 편리성과 친환경성, 에너지 생산 및 효율 등 심사서 한라한 교수 작품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단계별로 공사하기 용이한 데다 선 정신이 건물과 정원, 전체 환경에 융합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한라한 교수의 설계안에 따르면 명상마을에는 3개의 선방과 웰컴센터(사무동), 숙소동, 다도실, 무문관 및 꾸띠, 정원 등이 들어선다. 초심자들을 위한 하선방과 지도자과정 상선방은 50여 명을, 중간과정인 중선방은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게 했다. 숙소동은 남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나눴으며, 무문관과 꾸띠를 각 15개씩 배치해 개인 수행을 배려했다. 어느 곳에서든 자연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다.

추진위는 7월 중으로 현상공모설계팀과 계약을 맺고, 1단계 60억 원 규모의 설계에 착수한다. 이후 9월까지 자부담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시공 건설회사를 선정하고, 10월 말 봉암사 결사 70주년 기념대법회에 맞춰 기공할 예정이다. 2018년 12월 1단계 준공 개원을 목표로 하며, 곧바로 2단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공동대표 혜국 스님은 "여러 국가의 선센터를 답사해봤지만 봉암사 자연환경이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한국 선불교의 정신적 의지처인 봉암사와 명상마을이 잘 어우러져 국위선양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진위는 현재 확보한 3만6000여 평 대지 위에 명상마을을 조성하고, 일반시민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선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명상 한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인류 정신문화에 기여해 선불교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다.

한편 토마스 한라한 교수는 일로노이 주립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설계대학원 건축학과 석사를 받았다. 프렛대학 학장 및 건축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한라한 마이어스 건축설계사무소 공동설립자다. 대표작으로 뉴욕 그리니치빌리지 제10 교회, 프렛대학 기숙사, 배터리 공원도시 커뮤니티센터 등이 있다. 특히 원불교의 뉴욕 원다르마센터 설계를 맡아 기교를 배제한 디자인을 선보여 각광을 받기도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宗·學·官, 화과원 사적 지정 힘모은다

대각회 · 동국대 · 함양군 협약

불교계와 종립대학, 지자체가 백용성 스님의 업적 선양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6월 26일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재)조계종 대각회(이사장 혜총), 경남 함양군(군수 임창호)과 용성 스님 화과원 유허지의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용성 스님 화과원 유허지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 등 행정사항 추진협의 △함양군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함양군 내 고등학교 동국대 입시정보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성공적인 협약 이행 및 화과원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해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용성 스님은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명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선지식이었다. 함양 화과원은 스님이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29년에 황무지와 임야를 개간해 만든 과수원이다. 용성 스님은 이곳을 거점으로 일제의 억압을 피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오른쪽 첫째)과 김승하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복직 희망의 끈 놓지 않길"

자승 스님, 복직 투쟁 KTX여승무원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8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 복직 투쟁 중인 KTX여승무원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자승 스님은 "여기 오는 내내 답답한 마음이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끝이 있으니 놓지 마시라. 여러분의 그 끈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동계 각종 문제를 노동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계를 대리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을) 만나면 말씀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2006년 정리 해고된 여승무원 280명은 10년이 넘도록 복직 투쟁을 해왔다. 이 과정서 1명이 목숨을 끊고, 현재 33명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코레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1인당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호섭 기자**

"불교계, 항일 불교사적지 관심 全無"

한동민 박물관장, 불교사회연구소 항일운동 세미나서

"독립기념관에서 간행한 〈국내 항일운동 사적지조사-서울〉편에 따르면 불교계와 관련한 사적지는 6곳이다. 전체 사적지 199개소 가운데 3% 수준인 이 수치는 미미하다 못해 민망한 상황이다. 이는 불교계 내부 연구성과가 미약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3.1운동 100주년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교계의 미진한 연구사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은 6월 30일 서울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문수실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세미나서 이 같이 지적한 뒤 항일관련 불교사적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관장에 따르면 전국 14개 권역별로 조사된 〈국내 항일운동 사적지조사〉에서 불교계 사적지는 42개소다. 하지만 백담사는 활동인물이 중복되고, 한용운과 백용성 스님 관련 사적지가 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적지조사〉서 의병관련 사적지는 11개소였으나 한 관장의 개인조사에서 2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 관장은 "전국적 사적지 조사가 수백개소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불교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며 불교계 차원의 연구 노력을 주문했다.

사적지조사 · 관련연구 미흡
'순례길 개발' 등 추진해야

한 관장은 불교계 사적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병지도 제작 △의병답사 순례코스 개발 △사찰 중심 '의병의 길' 조성 △의병항쟁지 표석 세우기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의 의병활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대표 사찰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도 당부했다.

한 관장은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인물연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독립유공자 포상인원은 2016년 기준 1만4576명이다. 하지만 임혜봉의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2011) 부록에 불교계 포상자는 36명을 싣고 있어 아무리 많아도 50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불교계 연구는 한용운 · 백용성 · 백초월 등 대표적 인물 위주로 진행돼 왔다. 향후 포상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조언했다.

한 관장은 이어 "각 종교별로 근현대 연구기관을 두고 학술지를 내지만 객관성을 잃은 연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근현대종교사연구회(가칭)'를 결성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동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계 3.1운동의 회고와 전망(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대일항쟁기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향배(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 등이 발표됐다.

윤호섭 기자

출가 · 캠퍼스 생활 4년간 '동시에'

중앙승가대, Uni-출가자 모집

출가와 대학캠퍼스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계종립 중앙승가대는 "오는 8월 중순까지 '4년 단기출가자(이하 Uni-출가)'를 모집한다"고 6월 29일 밝혔다.

Uni-출가는 지난해부터 중앙승가대가 새롭게 추진하는 새로운 출가 모델이다. 중앙승가대서 정규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전문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모집대상은 고교졸업학력 이상의 만 50세 미만인자(일반인), 고등학교 재학생(청소년)으로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출가 특별법'에 의거 행자교육이 면제된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4년 전액 지원되며, 대만 불광대학 · 미국 서래대학 · 일본 교토 불교대학 등 교환학생으로도 갈 수 있다. 또 군법사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7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일 주 문



선본사 생전예수재

법성 갓바위 선본사 주지 스님은 생전예수재 및 관정이운 대법회를 7월 8일 오전 10시 유리광전에서 봉행한다.



조계사 유마경 강의

정운 동국대 선학과 강사 스님은 7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유마경〉 강의를 한다.



대관음사 동문신도회장 취임

남단아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제19대 총동문신도회장이 6월 24일 옥불보전 4층 대법당에서 취임했다.



대불련 여름캠프

이경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구례 화엄사에서 2017 여름캠프 '소.행.성'을 개최한다.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부탄 성지순례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회장 혜정)는 6월 15일부터 7일간 부탄을 순례했다. 방문단은 데쳉 포드랑 승가학교를 방문해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독려하고 부심도카종 사찰 등을 참배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사찰림硏, 한국JTS와 MOU



한국사찰림연구소(이사장 종수)와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6월 23일 서울 평화재단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관련기관 지원을 기반으로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의 복구를 위한 지원, 새로운 산림기술을 통한 북한산림의 육성 등 실효성 있는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수처작주(隨處作主)형 인재 양성소로 키울 터"

Interview

정홍섭 제9대 동명대학교 총장

4차 산업 맞는 인성 교육
'산학협력, 실용교육' 강화
"세계화 대세 아닌 현실"

"가는 곳 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인재를 배출하겠습니다. 기존 세계선센터를 중심으로 감성교육과 영성교육을 확대하고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부산 동명대 제9대 총장으로 정홍섭 박사〈사진〉가 취임했다. 동명대는 6월 23일 교내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홍섭 총장은 인간 교육을 기반으로 교육 혁신을 이뤄 낼 것을 강조했다.

정 총장은 "현대사회는 물질은 풍요로운 반면 급격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 빈부격차 확대 등 사람들의 소외감은 극대화하고 있다"며 "4차산업 시대를 맞아 개인과 사회의 행복 주안점은 바로 인성"이라고 강조했다.

동명대는 1977년 4월 초대 이사장 강석진 명예철학박사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을 설립하며 건학했다. 강석진 박사(1907~1984)는 한국경제의 선구자이면서 불교 만(卍)자에 담겨진 법리를 경영에 접목 할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

정홍섭 총장은 2012년 6월 대만불광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불교특별위원회'에서 초대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등 불심이 깊다.

정 총장은 대학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실용교육 강화'를 내놓았다. 정 총장은 "산학협력을 통한 실용교육은 1차 대학구조 개혁평가 전국 185개 대학 중 35위, 지난 해 모 중앙지 평가 전국 39위 등 상위권 대학에 진입한 동명대의 자랑이다"며 "내년 2차 대학구조 개혁 평가에서 '자율형 대학'으로 인정받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실력있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제화에 발맞춘 대학으로 성장 할 것과 일반인을 위한 스마트에이징 성인교육을 선도 할 것을 밝혔다.

정 총장은 "세계화는 이제 대세가 아니라 현실이다"며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에게 한국의 우수함을 가르치고 재학생들의 해외 유학과 해외 취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변화가 특색인 미래 사회에는 평생 직업을 갖기 어려우며 스마트기기와 사물인터넷으로 나이든 성인들은 사회적응이 쉽지 않다. 단순한 교양교육이 아니라 스마트에이징을 가능하게 하는 성인교육도 구축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취임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총장 약력소개 △취임식사 △교기 전달 △취임사 △축사 및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부산여여선원 선원장 정여스님,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 및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 등 불교계 및 정계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제천불교 지역발전 이바지 앞장"

제20대 제천불교총연합회장 백운 스님



"제천불교총연합회는 그간 사부대중이 함께 사회활동을 펼쳐오는 데 진력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화합을 모토로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지역불교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제20대 제천불교총연합회장으로 취임한 백운 스님(대각사 회주 · 사진)은 연합회 운영기조로 '화합'과 '사회발전'을 내세웠다. 6월 29일 열린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직무수행에 나선 스님은 회원 개개인을 회장으로 여겨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백운 스님은 "'바보 셋이 모이면 문수의 지혜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여럿이 지혜를 모을 때 더욱 큰 힘이 된다는 이 말은 구성원 간의 어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일깨워준다"면서 "개울이 시냇물을, 시냇물이 강물을,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 작지만 여러 생각을 모아 바르게 연합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운 스님은 1978년 장성 백양사서 동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1년 부산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87년 대각사 주지를 맡았으며, 제천불교총연합회 부회장 · 총무 · 재무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제천불교총연합회는 1982년 30여 사찰과 암자가 동참해 창립했다.

윤호섭 기자

"인욕통해 수행정진에 매진하자"

충담 선사 19주년 추모법회… 6월 27일 감로사서



충담당(沖澹堂) 원상(圓相) 대선사 열반 19주년 기념 추모법회 및 윤달맞이 조상천도 영산재가 6월 27일 경기도 가평 호명산 감로사서 봉행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해 前 태고종 중앙종회 부의장 지홍 스님, 前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능해 스님, 이병재 가평적십자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충담 대선사님의 불법수호 정신은 남달리 강하셨고, 일생동안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해 불교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도 인사말에서 "오늘은 19년 전 바로 이곳 도량서 태고종 승정이신 충담 대선사께서 소신공양(燒身供養)으로 화중생연(火中生蓮)을 피운 날"이라며 "국민 모든 불자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진주 연화사, 나눔의집 후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진주 연화사 불자들이 나눔의집을 찾았다.

6월 24일 연화사 불자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을 방문해 후원금 300만원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연화사 신도들이 진행하는 자비공양 차원에서 이뤄졌다. 연화사는 매년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자비공양을 실시하고 있다. 나눔의집은 후원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비로 사용키로 했다.

박아름 기자

생명나눔부산, 작은음악회 개최



(사)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는 6월 23일 부산 동래 대동병원에서 '제11회 환자 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 시작 전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는 직접 병실을 방문해 환우와 가족들에게 쾌유를 기원하고 떡과 다과를 전달했다. 각 병실에는 부본부장 자인 스님과 생명나눔 이사 혜우 스님, 생명나눔 홍보이사 혜산 스님 외 본부 이사들이 직접 환우들을 만나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호국불교조계종, 합동위령제 봉행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사단법인 한국호국불교조계종(종정 혜륜)은 6월 24일 총본산 칠곡 법전사에서 제40회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및 천안함 46용사 합동위령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종정 혜륜 스님과 해인사 용탑선원장 중천 스님 및 지역기관 단체장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혜륜 스님은 "위령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영혼들과 일체 고혼 애혼들을 위로하고 천도하여 이고득락 토록하며, 나아가 이 겨레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공 고 문

대한불교원효종은 오랜 기간 종권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바,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8월 25일자 2007라1580 결정에 의거 김윤철(향운) 스님을 임시종정으로 선임 결정하면서, 종단의 위의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윤철(향운)은 2009년 4월 13일자 첫 종회에서 종헌 · 종법을 위배하여 본인을 총무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상정하여 총무원장으로 선출하게 하고, 본인이 임시종정이 지위에서 자신을 총무원장으로 임명하고, 이후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헌을 개정하여 종단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윤철(향운)을 총무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서울고등법원(2015나7680)은 2015년 6월 4일 종단이 2009년 4월 13일경에 행한 김윤철(향운)에 대한 총무원장 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고등법원은 2017년 5월 12일 김윤철(향운)에 대한 2009년 4월 13일자 총무원장 임명이 무효인 이상 김윤철(향운)이 총무원장 지위에서 소집한 2013년 11월 28일자 종회결의도 무효이고, 따라서 위 종회에서 선출된 손영채가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판결(2016나1756)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김순석(용일), 이동수(성원) 외 16명은 대한불교원효종 종단 임시종정의 권한을 행사를 하는 김윤철(향운), 총무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손영채(우석)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하였고(2017카합10083), 울산지방법원은 2017년 5월 18일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김윤철의 임시종정, 손영채의 총무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한불교원효종의 종정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김동윤을 선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종정 직무대행자는 종단소속 사찰과 소속 종도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종무행정 질서를 재정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종도증 내지는 승려증을 재교부하고자 공고합니다.

다 음

①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승려증 또는 종도증

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진, 제적등본(타종단 소속이었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와 도첩, 자필이력서, 증빙자료 제출 (2009년부터 2017년 현재 분담금 및 승려 의무금 납부내력, 없으면 없는 대로 표시하시고 이유 부기하시기 바랍니다)

③ 접수기간 : **2017년 6월 12일 ~ 7월 31일까지 제출**

④ 접 수 처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30, 4층(역삼동, 우덕빌딩)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변호사 김동윤 (우편접수)

⑤ 문 의 처 : TEL 051)241-3002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직무대행자 변호사 김동윤

뻔~한 여름방학 말고 특별하고 싶다면 '여기'

전국 50여개 사찰서 어린이 · 청소년 여름 템플스테이

'여름' 하면 '바다'는 옛말! 이제는 울창한 나무와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산사로 가자.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 ·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사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용했던 산사의 문을 모처럼 활짝 열어젖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은 7~8월 동안 전국 50여 사찰에서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올해는 특히 기존 프로그램인 숲명상 · 사찰예절체험 · 물놀이 외에도 만다라 체험 · 목판 제작 · 어린이 영어 연극 · 한문학당 · 선무도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체험활동도 다수 마련돼 눈길을 끈다.

선택은 각자의 몫. 부모님 따라 떠나는 여행이 아닌 '나만의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싶다면 전국서 열리는 이번 여름 템플스테이에 주목해 보자.

"엄마, 템플스테이하러 제주도갈래요!"

수학여행 또는 가족여행 때만 갈 수 있던 제주도. 부모님께 당당하게 "템플스테이 하러 제주도 갈래요!"라고 외쳐보자. 제주도 곳곳을 견학하며 부처님 가르침도 배우고 오겠다는 자녀를 말릴 부모님이 누가 있으랴.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도 있으니 금상첨화다.

제주 불탑사는 '부처님의 향기를 찾아서'를 주제로 여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바닷가 걷기 명상을 비롯해 △향사불 △불아트 △야간체험 △자연으로 부처님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7월 21~22일, 어린이는 7월 29~30일, 성인은 8월 5~6일 진행된다.

제주 관음사는 7~8월 템플스테이 '코삿명상 여정'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제주 야간 오름길 걷기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 명상 △한라산 탐라계곡 탐방을 비롯한 제주 일대 체험과 △108배 명상 △다담 등 사찰 체험으로 구성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단 주말에는 유치원 및 초 · 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목관 · 트레킹 등 '이색 체험' 해보고 싶다면…

강원 명주사는 '고판화와 함께하는 여름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경내에 고판화박물관이 함께 위치한 명주사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위해 △목판 제작 △고인쇄를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등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어린이 ·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도 참여 가능하다. 1차 7월 29~30일, 2차 8월 5~6일, 3차 8월 12~13일 진행된다.

전북 내소사는 두 가지 상반된 매력의 템플스테이를 연다. 7월 29~30일에는 전문 시인에게 듣는 시강좌 및 시짓기 등을 하는 '한 여름밤의 시', 8월 13~15일에는 무녀도 · 선유도 · 장자도 섬을 자전거로 일주하는 '섬 따라 자전거 트래킹' 시간을 갖는다.

"사찰 영어캠프, 해외여행 못지않아요"

경북 축서사는 7개국 외국인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청소년 영어캠프 '반딧佛'을 진행한다. 외국인 자원봉사자들과 △솔숲체험 △천연염색 △다도 △영어퀴즈 및 놀이 △요가 등 함께하며 다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다.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가능하다.

서울 도심에서 원어민과 2박 3일을 보내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목동 국제선센터로 가자. 국제선센터는 7월 28~30일 '야단법석 어린이 영어캠프'를 열고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한국잡월드를 방문함으로써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찾는 시간도 갖는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전국 사찰이 일제히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 ·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사진은 묘적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어린이 모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전국 50여 사찰서 열리는 2017 어린이 · 청소년 여름 템플스테이 목록

지역명	사찰명	진행일자	프로그램 제목	프로그램	참가대상
강원	명주사	7월 29일~30일/8월 5일~6일 8월 12일~13일	고판화와 함께하는 여름템플스테이	명상, 스님과의 차담, 고판화박물관 관람,목판 제작, 고인쇄를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누구나
	백담사	7월 26일~28일 (주 2회, 2박 3일)	꿈,희망,도전 청소년 템플스테이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요가형 108배 배우기, 마음나누기, 소금만다라, 사물체험, 숲 명상돌탑쌓기, 꿈배띄우기, 차명상, 시심즉불	청소년(초6~고3학년)
경기	광명 금강정사	7월 28일~30일	마음아 여기서 함께놀자	만나라 사불놀이, 선재놀이, 신나는 물놀이,빙고놀이, 행복명상, 부모님께 편지쓰기, 촛불명상, 예불, 찬불가배우기	초등학생
		8월 4일~6일	놓아버린만큼의 행복	예불, 친구 장점찾아 칭찬하기, 호흡관찰 명상, 소금 만다라, 포행, 걷기명상, 선재놀이, 내말좀 들어봐, 108배	중,고생
	대광사(성남)	8월 3일~5일	내 마음 주인되기(가족캠프)	전통음식체험 및 시식, 전통연등 만들기(차 연등걸이 포함), 108 소원주 만들기, 웃음명상체험, 다도예절 및 스님과의 차담	초등학생 이상
	묘적사	7월 14일~15일/7월 21일~22일 7월 28일~29일	생긴대로	예불, 108배, 채움 명상, 계곡명상,먹기명상, 스님과의 차담	중학생 이상
		7월 4주 ~ 8월 1주	몰랑이(초등생) 여름 템플스테이	저녁예불, 부모은중경, 거울게임, 연꽃등, 소원지, 예불 108배, 마음이 구도기, 물놀이, 탑쌓기, 모닥불속 장기자랑, 롤링페이퍼	초등학생(1~6학년)
	용주사	7월 29일~8월 2일	지혜로운 성장 어린이 학문학당	한문공부, 대금소리명상, 집중력강화 명상, 전래놀이, 달마도 그리기, 두뇌활성화 운동	초등생
		8월 4일~8월 6일	청소년 기 氣(에너지) 충전 템플스테이	에너지명상, 사찰문화체험과 나의 무한 재발견, 전래놀이, 팔괘공 수련, 두뇌활성화 운동	중,고등생
	육지장사	7월 29일~8월 2일	청소년 비만 캠프	108배, 명상, 선차, 온구체험, 특강:오상우박사(전 대한비만학회장 동국대병원 건강검진센터장) 비만해소 노하우 전수	초5학년~고등3학년+ 학부모 동반
	화운사	7월 29일~30일	발칙당당 청소년 단체 템플스테이	물놀이, 발우공양, 범종타종체험&저녁예불, 마음명상, 캠프파이어, 아침예불&108배, 울력, 종이연꽃 만들기	중,고등학생
		8월 4일~6일/8월 11일~13일	놀아봐! 꿈궈봐! 어린이 단체 템플스테이	꿀잼 미션, 발우공양, 범종타종체험&저녁예불, 물놀이, 숲으로 놀러가기, 재밌는만들기, 캠프파이어, 조별마음나누기	초등학생
경남	성주사	8월 12일~13일	야호~ 신나는 보리수 학교로	신나는 물놀이, 성불도 놀이, 숲 체험, 부처님을 알고 싶어요, 나를 깨우는 108배, 체험활동(합장주,만다라,단청문양)	초등학생
		8월 5일~6일	가족과 소통하는 행복여행	음악명상, 다도시연 및 체험, 부모은중경사경, 녹차따기 체험, 계곡명상 및 돌탑쌓기, 가족과 소통하는 마음나누기, 사불그리기, 나를 깨우는 108배, 가족과 함께 만드는 자연물 만다라,	성인초,중,고생
	쌍계사(하동)	7월 31일~8월 3일	어린이 한문학당	사자소학(四字小學), 108배, 계곡 물놀이, 불일폭포 산행, 지리산생태과학관 관람	초등학생 (4~6학년)
	옥천사	7월 25일~27일	여름 어린이 템플스테이 꿈을 가져봐! 놀아봐!	예불, 발우공양, 보물찾기, 숲체험,108 소원주 만들기, 연꽃만들기, 물놀이, 스님과의 차담, 부처님을 만나요!(영화감상)	초등학생(4~6학년)
	통도사	7월 28일~30일/7월 31일~8월 2일 8월 3일~8월 5일	자연에 물들다통도사 여름수련회	발우공양, 삼보일배, 천연염색, 스님과의 대화, 자연과하나되는시간	초등학생 이상
경북	고운사	7월 28일~30일	고운 꿈을 향해 쏴라어린이 여름캠프	108염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위파사나, 사찰음식 체험	초등학생 3~6학년
		8월 4일~6일	고운 꿈을 향해 쏴라청소년 여름캠프	108염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스님과의 대화, 사찰음식체험	중,고생
		8월 11일~13일	가족간 화합을 위한 여름힐링캠프	108염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오연명상, 사찰음식체험	누구나
	골굴사	7월 23일~8월 12일	골굴사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영어학습, 자아성찰,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경주문화유산 탐방	초, 중학생
	불국사	7월~8월	추억의 행복여행	예불, 소리명상, 숲속명상, 참선요가, 108배, 스님과의 차담	초등학생 부터
	심원사	7월 30일~8월 2일	검정고무신동심체험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꿈등만들기, 물놀이, 캠프파이어, 향낭만들기, 천년문화유산답사, 108배, 소금만다라명상, 발우공양, 가야산 생태학습, 안전교육, 스님! 궁금해요…	초등학생 3~6학년
		6월 3일~8월 26일 (매 주말)	하하호호	숲속명상 or 만물상트래킹, 향낭만들기, 꿈등만들기, 탑돌이, 108배, 스님과대화, 발우공양	누구나
	자비선사	8월 11일~12일	청소년 행복찾기 명상 '자비다선' (포교원 인증 인성프로그램)	차명상, 전래놀이, 걷기명상, 5분요가, 민화그리기	중고생
	축서사	7월 23일~30일	청소년 여름캠프 반딧佛	외국인 대학생(7개국 자원봉사)들과 함께 하는 일상생활 영어캠프 – 솔숲체험(생태관찰) , 천연염색체험 , 다도체험 , 영어퀴즈 및 놀이(각 나라에 대해) , 요가 , 계곡물놀이 등등	초등학교 4학년 부터 고등학생 *외국인 참여 가능
대구	동화사	8월 7일~10일	어린이들의 내몸그린 여름여행	숲속소풍, 타종체험, 몸맘 쑥쑥요가, 다도, 전통놀이, 캠프파이어	초등학교 1~6학년
		7월 28일~30일	청소년들의 내몸그린 여름여행	발우공양, 타종체험, 다도, 정신집중요가, 부채만들기	중1학년~고등3학년
부산	범어사	7월 29일~7월 31일	신나는 어린이 여름수련회	신나는 물총놀이, 스님과그룹토론, 누가누가 높이뛰나, 캠프파이어	초등학생
	홍법사	8월 2일~8일(6박 7일)	홍법사 제3기 어린이 작심단기출가	나를 깨우는 108배, 발우공양, 전래놀이 및 장구로 스트레스 풀기, 생활다도체험, 한지공예체험, 물놀이, 소원주만들기, 마음나누기	초등학생 4~6학년
서울	국제선센터	7월 28일~7월 30일	원어민과 함께하는 여름방학야단법석 어린이 영어캠프	한국잡월드 견학(성남시 분당), 삼사라 : 아바타(자기소개), 영어 스피드퀴즈, 허심탄회 내 마음을 알아줘(초불명상), 나도 부처님같이(친구에게 절하기), 108배 염주만들기,	초등학생 4~6학년 (선착순 30명)
		8월 11일~8월 13일	청소년 활동명상캠프	Acting out(놀이 활동), 허심탄회 내 마음을 알아줘(촛불 명상), 창작에서 표현으로(연극활동), 나에게 쓰는 편지, 행복한 108배, 가슴으로 들어오는 자연(자연 명상), 스님과의 차담	중,고등학생 30명 (우울증 및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 대상)
	금선사	8월 2일~8월 3일	청소년 톡톡(talk talk)템플스테이	새로운 꿈을 향한 108배, 스님과의 talk talk, 숲속명상	중고등학생
	조계사 &금선사	7월 24일~7월 26일 8월 15일~8월 17일	조(曹) 금(金) 더 놀자~!(조계사와 금선사의 콜라보 어린이 템플스테이 1+1)	자기성찰 놀이, 소금만다라, 런닝맨, 다도시연, 단청목걸리 만들기, 108배, 촛불명상, 계곡 물놀이	7세~초등학생
	묘각사	7,8월 매주 주말(토,일)	Where is your mind?	외국인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스님이 직접 영어로 진행)	영어가능한 초등학생이상
	진관사	7월 22일~23일	자연속에 뛰어 노는 행복 한 동심	진관사 태극등 만들기, 108배, 타종체험,참선	어린이 70명
		7월 29일~30일	나의 주인공을 찾아 집중하는1박~2일!	진관사 태극등 만들기, 108배, 타종체험,참선	청소년 50명
인천	전등사	7월 25일~27일 (초등생) 8월 1일~3일 (중고생)	寒(한)여름밤 특별 템플스테이	삼랑성 숲 이야기, 단주 및 108염주 만들기, 워터파크 물놀이(초등생) 범종타종체험, 청소년 마음거울 108배, 나를 깨우는 108배,	
전남	대흥사(해남)	7월21일~23일	2017 어린이 숲속마을 캠프	명심보감, 우리는 하나/팀 빌딩, 참 나를 찾아서,108배, 소원담은 연꽃 만들기, 미션테마파크물놀이, 레크레이션	초등학생
		8월8일~10일	여름 청소년 숲속마을템플스테이	사찰예절습의, 스님과 차담, 108배 염주만들기, 동백숲길 걷기, 북미륵암 산행, 요가명상, 사찰안내, 울력	중 1학년~고등 3학년
	도갑사	8월 1일~3일	너, 나, 우리 같이 놀자!	계곡물놀이, 남도역사문화탐방, 월출산생태체험, 행복충전놀이, 캠프파이어, 선하스님의 불교 돋보기	초등학생
	미황사	7월 29일~8월 5일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	한문교육, 예불, 참선, 다도, 발우공양, 탁본, 바닷가 물놀이, 사경	초등학생 4~6학년
	불갑사	8월 4일~6일	여름아裁(아) 我(아)몰라 불갑 간다(초중생)	목장 체험 (수제 피자와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기, 동물 먹이주기 체험), 불갑산 숲길 명상과 물놀이 명상, 한지공예, 기와에 소원그리기	초 2학년 이상중학생
	화엄사	8월 2일~4일	얘들아 놀자	보물찾기, 로봇학 외	초등생
전북	금산사	8월 초 3박 4일 예정	어린이 영어캠프	어린이 영어 연극(석가모니 생애)영어예불금산사 국보 및 보물지도 그려오기모악랜드에서 물썰매 체험	초등학교 4~6학년
	내소사	7월 29일 ~ 30일	한 여름밤의 시	전문 시인에게 듣는 시강좌직접시짓기 & 발표	누구나
		8월 13일 ~ 15일	섬 따라 자전거 트래킹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섬을 자전거로 일주하는 트래킹	누구나
제주	관음사	6,7,8월 평일7,8월 주말 (교원직무연수)	코삿명상 여정	평일–제주 야간 오름길 걷기,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 명상, 한라산 탐라계곡 탐방, 108배 명상 다담주말–명상, 수지에니어그램, 자아선언, 108명상 다담, 소금만다라	평일–누구나 주말–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불탑사	7월 21일~22일(청소년) 7월 29일~30일(어린이) 8월 5일~6일(성인)	부처님의 향기를 찾아서	향사불, 북아트, 합장주 만들기, 야간체험, 자연으로 부처님 만들기, 발우공양, 바닷가 걷기, 명상촛불명상	누구나
충남	서광사	8월 4일~6일	Catch Your Dreams' 너의꿈을 응원해	보궁명상관음보살 42수 만다라드림캐쳐 or 꿈가방 만들기차담	초등생
		8월 11일~12일			중고생
	수덕사	7월 28일~30일	어린이 프로그램(수덕각시, 넌 누구니?)	협동심, 배려심, 자립심 길러주는 신나고 즐거운 산사생활	초등생
		8월 4일~6일	가족프로그램(비움 & 채움)	함께 행복해지는 茶(차) 명상숲길명상만다라명상오감체험명상발우공양	초등생 이상
	영랑사	7월 29일~7월 31일	청소년 산사학당(여름수련회)	전통소원등만들기,자비명상,108배체험,산계곡온천나들이,일출수목감상	초(4~6학년)중고등학생
충북	법주사	7월 말~8월 초(2박 3일)	풍당 여름에 빠지다	예불스님과의 차담계곡 물놀이풀잎 만다라	초등학생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재가자 수행열기, 올 여름 뜨겁다

정토회 등 수련모임 인원 증가
각 단체 집중수행 개최


정토회의 명상수련 모습. 매회 30여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재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집중수행과정이 진행된다. 간화선부터 위빠사나 등 수행법을 익히고, 스님과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자리도 마련돼 불자들의 발길을 이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수행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수행분야는 명상이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수행도량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명상수련을 개최한다. 청년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상수련은 2012년 법륜 스님의 힐링캠프 출연 이후 매회 3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정토회 문경수련원 관계자는 "명상수련의 경우 참가자 대부분이 청년들이며 불자가 아닌 이들의 비중이 높다. 명상 수련을 시작으로 백일출가까지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기 10여명으로 시작했지만 매년 소폭이나마 참가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054)571-6031

월정사(주지 정념) 단기출가도 최근 연령별로 세분화돼 진행 중이다. 특히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제3기 청년마음출가학교는 15세부터 35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지난 겨울 2기에 42명 참가한데 이어 올해는 접수를 시작한 2일 만에 20여 명이 신청했다. (033)339-6800

남원 실상사(주지 응묵) 재가불자 여름학림 또한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높다. 2008년 처음 시작된 재가불자 여름학림은 올해로 10년차를 맞이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 1~2년 과정 참여가 힘든 재가자들이 모여 시작한 수행모임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4박 5일간 집중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실상사 주지 응묵 스님도 "스님들과 함께 단기간 집중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높다"고 설명했다.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1차 여름학림에서는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이 강사로 나서 〈청정도론〉에 나타난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한 이론 및 좌선수행을 지도한다. 2차 여름학림은 독특하게 교육 형식으로 진행된다. 前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그림으로 읽는 불교문화 이야기'를 통해 사찰 탱화와 벽화 등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불교설화를 전한다. (063)636-3031

이같은 열기속에 다양한 수행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도심에서 간화선 집중수행을 개최한다. 국제선센터는 스님과 일반인이 함께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희망자에 한해 기숙 형식을 통해서도 방부를 들일 수 있다. 지도법사는 수불 스님으로 미수료시 재참가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02)2260-3891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진행하는 생활참선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만하다.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5기 생활참선은 해인사 백련암 감원 원택 스님을 증명법사로 매회 마다 재가자 생활참선에 대한 이론과 실습과정이 병행된다. 심화코스 이수 후에는 명상지도사 2급 자격이 나오며, 하반기에는 6기 과정도 개설된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이사는 "함께 수행도 하지만 각 가정의 생활 속에서 각자 참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1661-1108

위빠사나의 경우 해외 고승인 우실라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자리도 열린다. **홍천 건봉사 파욱선원**은 7월 10일부터 10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사찰 내 파욱선원에서 우실라 스님 초청 집중수행을 개최한다. 수행에서는 아나빠나사띠(들숨날숨 알아차림) 외 사마타 수행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 수행인터뷰로 진행된다. (033)433-3847 **노덕현 기자**

초기자본 마련 어려운 '청년'도 OK
서울형MC로 창업·결혼까지 '성공'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③ 동대문종합시장 '엠디' 김나현 대표


그림 · 박구원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결혼, 연애, 주택구입, 취미,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하는 요즘 청년들. 일명 'N포 세대'라고 불린다. 3포 · 4포 · 7포를 벗어나 '포기해야할 것이 무한대'라는 뜻이다. 이 가운데 무담보 · 저금리 대출을 통해 사업은 물론 결혼까지 성공한 청년 사업자 부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의류원단 도소매업장 '엠디'를 운영하는 김나현(33) 씨와 그 배우자 천민우(35) 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 씨와 창업의 꿈을 꾸고 있던 천 씨는 현재 월평균 8,000만원 매출을 기록하는 엄연한 '청년 창업자'가 됐다. 비결은 무엇일까. 그 시작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서울형 MC)'이 있었다.

이들은 2012년 서울형 MC를 통해 창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던 김 씨가 남자친구였던 천 씨(현 배우자)에게 서울형 MC를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천 씨는 원단 도소매업을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마땅한 사업장을 마련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서울형 MC를 통해 대출받은 창업자금으로 동대문종합시장 내에 사업장을 열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꽤 어려웠어요. 매장도 없이 창고만 얻어서 출발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형 MC를 통해 대출을 받으며 자재 구입 등 초기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2013년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던 것은 서울형 MC의 '1년 거치 상환' 보장 덕분이었다. 1년 동안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많은 사업 초기 재정적 부담이 덜했던 것. 김 씨는 "낮은 금리도 장점이지만 첫 1년 동안 거치 상환할 수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됐다. 경영이 자리 잡은 후 원금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매년 청년 창업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단순한 자금지원뿐 아니라 청년창업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직업개발 나서

함께일하는재단과 MOU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6월 26일 서울노인복지센터 3층 TOP작은공연장에서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월주)과 어르신 창의 직업 개발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4년부터 고령구직자 취업전문기관인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의 활기찬 노년과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2003년 설립한 민간공익재단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에 앞장서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첫 협력사업으로 '시니어케어매니저 양성교육 및 활동지원사업'을 12월 말까지 추진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신규 직종 개발과 교육 훈련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전쟁 희생 영령 천도를 바라며"

호국 금강사 제34회
호국영령 위령대재 봉행


6월 25일 열린 위령대재서 불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67주년 기념 포천 육군 5군단 호국금강사에서 '제34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올해로 제34회를 맞이하는 제5군단 호국영령 위령대재는 국군과 참전국 장병, 또 북한군 및 중공군 전사자까지 포함한 모든 한국전쟁 전사자에 대한 왕생극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령대재는 오전 5군단 호국금강사 주지 덕명 군승법사의 집전 하에 천도의식으로 시작됐다. 오후 호국금강사 금강보전에서는 추모법회가 진행됐다.

1984년 위령대재를 시작으로 매년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위령대재 봉행위원장 현성 스님(서울 도선사 조실)은 법어를 통해 "오늘 천도 자리에 초청 받으신 모든 영령들이여, 이 자리에 모인 불제자들은 어느 나라 어느 영령이건 분별하지 않고 오늘 모셨다"며 "진리의 자리에서는 태어남도 없고 소멸 또한 본래 없으니 나고 죽는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정법의 마음자리만이 본래 실상(實相)이다. 생멸없는 진리의 소식을 들으시고 오직 칠보산 극락세계에 왕생하소서"라며 축원했다.

군종교구 부교구장 승원 스님은 추모사에서 "오늘 위령대재는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늘 상기하고 자각하며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당시 참상을 기억하고 대비하여 남북평화통일을 이루는 초석을 만들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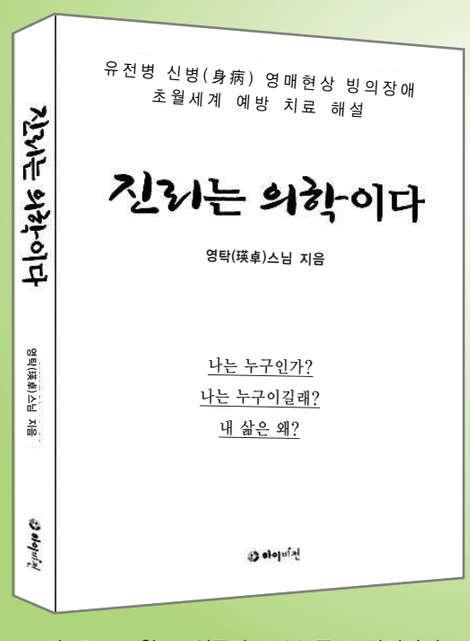
제갈용준 5군 군단장은 봉행사에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물질적 풍요는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다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군에 부여된 소임을 충실히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령대재에는 봉행위원장 현성 스님(서울 도선사 조실)과 군종교구 부교구장 승원 스님, 제갈용준 5군단장, 정동호 前5군단장 미망인 구형선 씨, 5군단 예하부대 군승들과 6.25참전용사, 군장병 및 일반불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리는 의학이다!

천불사 영탁스님이 세계 최초로 중생제도 대원력 서원을 성취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
조상영가 왕생극락 시킬 수 있는 방편 대공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는
삼계사생육도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잠재의식 다겁다생의 업보를 해체 분리
파괴 소멸시켜 해탈하는 초월세계
우주진리법 입니다.

신병(身病), 영매현상, 빙의장애는
완치될 수 있고, 유전병도
예방 치료 됩니다.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값 15,000원 | 신국판 | 261쪽 | 하이비젼

■ 문의 : 천불사 053)624-2272, 053)624-2275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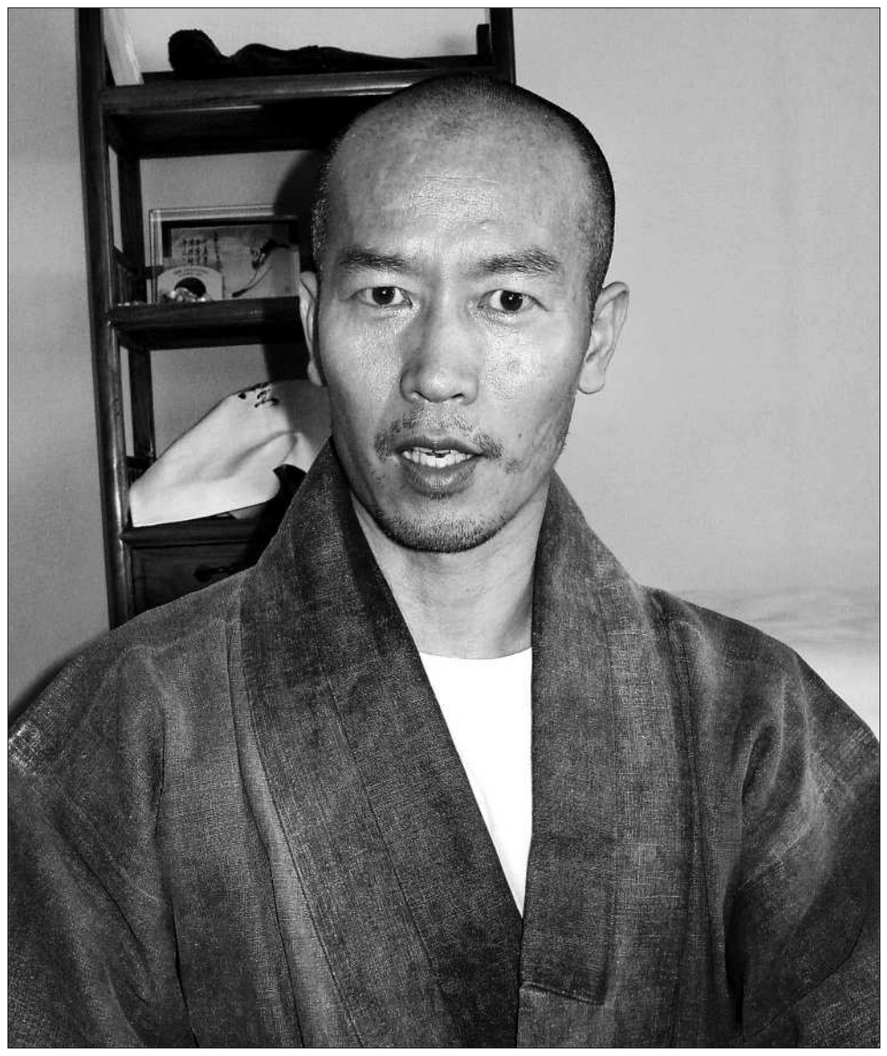


마음자리는 時空 떠난 것… '나'를 놓아라

서울 길상사 일요법회… 주제: 존재의 근원

수행공동체 법화림 덕현 스님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은 인류가 풀어야할 난제 중 하나다. 프랑스 대표화가 고갱(1848~1903) 역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작품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고민했다. 이후 우리는 흔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을 던지지만 쉽게 답을 내리진 못한다. 그 답은 무엇일까? 수행공동체 법화림을 운영하는 덕현 스님은 5월 21일 서울 길상사 일요가족법회서 "'나'라는 상을 버리고, 무엇이 나를 일으켰는지 돌아볼 때 무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비심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리=박진형 수습기자**



덕현 스님은… 1986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법정 스님을 은사로 송광사서 출가했다. 그해 5월 송광사서 사미계를, 1994년 9월 범어사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길상사 6대 주지와 (사)맑고향기롭게 제2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수행공동체 법화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각자 인생에서 내키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존재하고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감당하기 벅찬 시간들을 견디면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살면서 내가 원한 것이 뜻한 바대로 이뤄지고, 현실화된 것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반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많은 것들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벌어졌고, 나를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어떤 때는 '이 삶을 그만 접고 싶다' '다 버리고 떠나고 싶다'는 심경을 일으키기 충분했을 겁니다.

심리학자 크롬볼츠가 제창한 '계획된 우연이론'이란 것이 있더군요.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연적인 사건의 연속인 것처럼,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설계한 것과는 다르게 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우리다운 삶을 펼쳐낼 것인가가 이 이론의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크롬볼츠는 우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잘 해석하고 뜻하지 않은 것들을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인생을 그나마 의미 있게, 또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진지하고 적극적인 관심이나 호기심, 또 기다리는 마음, 참고 견디는 것, 뜻하지 않던 것들이 다가오고 벌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 용기 있게 행동을 하는 위험감수능력 등이 살면서 벌어지는 우연적인 사건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아무 질서도 없이, 방향도 없이 벌어져가고 있는 세상사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불교적인 가르침과도 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부처님은 많은 것들이 과거의 내가 행한 바에 의해서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지만, 그것은 지금 내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고,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노력으로 선업을 쌓으면 지금 나한테 이런 저런 장애로 부딪혀 오는 것들을 차차 극복해 갈 수 있고 내가 바라는 편안함이나 행복을 조금씩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짓는 것도, 타자가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서 인연 따라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되, 언제나 그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된 것이고 그때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이 '모른다'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혹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밝히는 길잡이가 돼요. 부처님도 출가하셔서 깨닫고자 했던 일종의 화두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였죠.

최근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중간에 어떤 젊은 여자가 타더라고요. 그 여자가 "당신은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당신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난감해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이렇게 묻는 순간 우리는 침묵에 빠집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가 온 자리에요. 그 빈 마음에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간의 어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자리라고 부르는 시공을 떠난 그 어디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묻기도 하지만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지만 보이거나 잡을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공(空)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이라는 것도 말일 뿐이지 어떻게 그것 자체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과연 본래 우리가 무엇이었는가. '나'가 되기 전에 무엇이었는가.'

저는 네팔에서 사흘 동안 포카라 시내에 묶여 있다가 다음날 바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사실 그곳에 간 이유는 2600여 년간 불교의 역사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의 불교를 네팔에 접목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로치'에 승방을 짓기로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난제들을 이런 식으로 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카트만두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 버스는 오전 6시에 출발해 느리게 달리다가 카트만두 시내에 접어들기 직전 생활 폐기물 범벅인 도로변에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가게에서 어떤 아이가 문설주에 다리를 올려놓고 아주 퇴폐적인 자세로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기분이 묘했는데, 어느 순간에 꼬맹이들이 자전거를 끌고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곳이 자전거 수리 센터였어요. 저를 쳐다보던 너석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연장을 들고 자전거를 1~2분 사이에 고쳐주더군요.

> "
> **모든 존재가 살아가지만**
> **각자 근원에 대해 몰라**
> **'나'라는 像 내려놓을 때**
> **자연 섭리 느낄 수 있다**
> "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자전거 수리공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자전거를 수리하려고 앉아있으면 많은 자전거들이 고장 나서 수리하러 오기를 바라겠죠. 자전거가 고장 난다는 우연찮은 사건은 자전거를 타던 아이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것들이 다 계획된 우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고장 나기도 하고 마음이 좋지 않은 병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병원에 가면 의사는 당연히 내 몸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들을 위해 한 일이 없어요. 이건 온전히 빚지는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옷을 세탁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사람…. 그렇게 우리 삶은 여러 사람에 의해 도움을 받으면서 용기를 얻고, 또 일을 찾으면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게 허상, 주체만 남는다

우리에게 행복을 준 것들을 보면 나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받을만한 자격이 온전히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잠깐 있다가 가버린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얻은 모든 것은 언젠가 우리를 버리고 다시 왔던 데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이 삶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은 다 스쳐갈 뿐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남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기억력도 떨어지고 어쩌면 치매를 겪을지도 모르죠. 지금 이 순간의 능력이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무상을 자각했을 때 우리는 존재적으로 좌절하고 나아갈 길을 더 이상 한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부처님은 그 답을 발견하고 목적지에 섰습니다. 밖으로 찾아다니면 아무리 멀리 쏘다녀도, 우주선을 타고 나가도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본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간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공간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있고 그 속에 내 몸이 있고, 이 몸을 가지고 몇 십 년 살아간다는 것은 중생의 무지이고 크나큰 착각입니다. 사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질문을 따라 가보면 그것은 내 안이고, 내 참 존재이고,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시간도, 공간도, 그 속에서 펼쳐져 나가는 우리 인생도 다 꿈같은 것이고 허상입니다. 그래서 '나'도 없습니다. '나'가 없기 때문에 남도 없고 내 안도 밖도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살았던 주체는 오고 감 없이 불생불멸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깨달으신 거고 그런 존재를 우리는 부처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자각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시 보아야 하고 순간순간을 살아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계이고, 보살의 삶이고, 수행인이 마음을 펼치고 거두는 선의 도리입니다.

나를 놓아버리는 가장 좋은 길은 '나'가 무엇인가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가 무엇인가 묻기보다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이미 하나의 상이고, 이것 자체로 번뇌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찾아내려면 '무엇이 나를 일으켰는가'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듣고 무엇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죽음을 향해서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한단 말이에요.

잘 보면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본다고 착각하잖아요. 알 수 없는 무엇이 보고 있어요. 그 무엇을 묻고 물으면서 나아가야 하고, 길 없는 길 끝에서 그것이 돼버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아가 무명을 완전히 깨뜨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나와 더불어 하나이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고 나와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불이(不二)라고 하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말 있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다. 이 모든 것들은 본래 다 그러하고 저절로 그렇게 돼 갑니다. 나를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나'는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인 채로 온전히 빛나면서 제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삶의 길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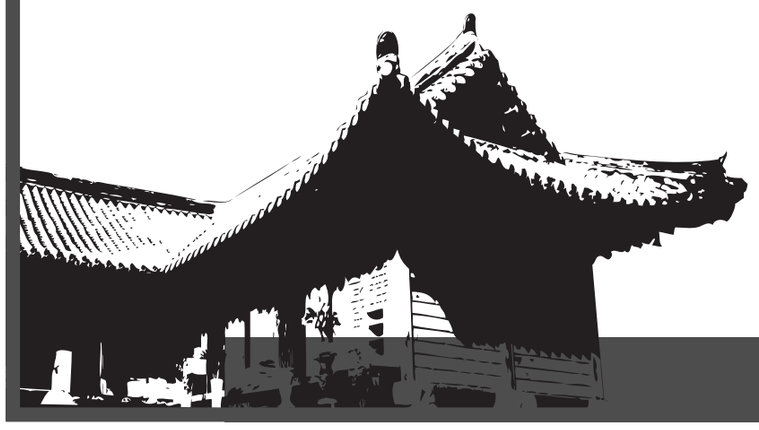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서 만날 수 있는 절경들. 저멀리 훈자왕국의 발티트 성이 보인다. 불교는 이길을 통해 전해졌고, 교류됐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苦·思의 길… 불교는 이 길을 걸어왔다

⑫ 東西교류의 길 카라코람 하이웨이

참으로 많고도 많은 길이 사방으로 뻗어 있다. 동양과 서양을 이어 준 실크로드, 이 길 또한 여러 갈래가 있다. 동서문화 교류의 길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거기서 인류 문명의 싹은 꽃을 피웠다. 그래서 호기심이란 말은 소중하다. 그 호기심은 많고도 많은 길을 뚫게 했다.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걷는다. 길이 있어 의욕이 샘솟게도 한다. 그래서 길은 삶의 한 화두가 되기도 한다.

그동안 참으로 많고도 많은 길을 걸었다. 고대 동서 문화를 이어주던 실크로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죽의 장막'이라던 '중공'을 3개월간 취재여행을 실행한 이래, 오지 여행은 한때 '직업'이었다. 지그재그의 중국대륙 답사, 여기서 인생 행로가 바뀌는 하나의 계기를 얻었다. 오지는 훌륭한 교과서였다. 그래서 인간을 두 가지 부류로 양분한다면, 오지체험의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로 나누곤 했다. 더 정확히 말해 사막체험의 유무로 사람을 나누기도 했다. 사막은 고귀한 자양분이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듯, 사막에 석굴사원이 꽃을 피웠다. 이 무슨 역설인가.

이름하여 실크로드. 사실 실크로드는 말만 그럴듯하지 '고통(Sick)'의 길이요, '사색(Think)'의 길이다. 비단(Silk) 길만은 아니다. 고통 없는 열매는 없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했다. 흔들려야 꽃을 피운다. 실크로드 오지의 답사 코스에서 단 한군데만 추천하라면, 나는 이곳을 추천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 실크로드 오지에 웬 하이웨이? 여기서 하이웨이는 하나의 역설적 표현이다. 얼마나 험한 길이면 이 같은 표현법이 생겼을까. 아무튼 나는 지구상의 최고 여행지로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추천했다. 최소 10년 전만 해도 그랬다. 요새는 관광지로 재미를 반감했지만, 그래도 '순정'은 지니고 있다. 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지구상의 마지막(?) 코스,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어디인가.

카라코람 하이웨이(Karakoram Highway)는 중국의 카쉬카르에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까지 연결되는 길 이름이다. 중국 발음으로 카라쿤룬궁루(喀喇崑崙公路)이다. 지난 1959년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하여 20년의 기간 동안 약 24,000명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뚫은 800km의 길이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고산지대이다. 파키스탄과 중국의 국경인 쿤제랍 패스의 해발 높이는 4,693m! 정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경선이다.

그래서 어느 어간을 지날 때, 이런 표지판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길, 그 길은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던 '실크로드'였다.

고산지대의 길. 그래서 이 '하이웨이' 일대는 히말라야 산맥 북단을 비롯 힌두쿠시 산맥, 곤륜산맥, 카라코람 산맥 등을 아우르고 있다. 해발 8천m대 고산만 해도 5개를 포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K2는 해발 8,611m의 높이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다. 더불어 파키스탄의 낭가파르밧은 해발 8,125m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산이다. 카라코람의 절경을 짐작하게 하는 풍광이다. 더불어 이 말은 세계에서 가장 험한 길임을 짐작하게 한다. 최고 수준의 험로(險路), 정말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건너가게도 한다. 사실 산허리의 좁고도 구불구불한 길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려면, 그것도 수십 길 낭떠러지 계곡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려면, 머리카락이 치솟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이 험로의 묘미이기도 하다.

카라코람 하이웨이의 재미는 절경에 있다. 고산은 으레 만년설을 보여준다. 근래는 지구의 온난화 덕분에 만년설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내가 처음 이 길을 갔을 때와 오늘의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다. 현지가 지나치게 관광지화 되어 복잡하게 된 것도 문제지만 자연환경도 많이 변했다. 아무튼 '하이웨이'에 카라쿨 호수 같은 곳이 있고, 또 발토르 빙하 같은 세계적 빙하 지대도 있다. 파수 빙하는 직접 걸을 수 있어 '빙하'를 안아 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지구상 최고의 절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나는 무슨 복이 많아 이곳을 대여섯 차례 여행할 수 있었을까. 다만 고산지대여서 여름에 통과해야 실감할 수 있다. 겨울에는 폭설로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만 길을 열어준다. 카라코람 하이웨이가 절경만이어서 나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동서문화 교류의 길이었고, 또 붓다 로드였기 때문이다. 인도불교는 이 길을 따라 중국으로 전래되었고, 또 그 길은 한반도로 연장되었다. 그래서 많고도 많은 구법승들이 이 길을 걸어 왕래했다. 정말 목숨을 내걸고 다닌 길 아닌 길이었다.



폐허가된 조울리안 사원의 모습.

실크로드 통해 동서문화 교류
佛法 찾기 위한 구법로이기도
가장 긴 카라코람 하이웨이엔
불교 東進 역사 흔적이 곳곳에

오늘의 파키스탄 북부인 간다라에서 출발하면,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와 라왈핀디를 거쳐 인더스 강 상류로 북상하게 된다. 그러면 베샴 그리고 칠라스에 도달한다. 칠라스는 불교 암각화로 유명한 지역이다. 여기를 지나 낭가파르밧 고산의 북면을 조망할 수 있다. 훼리메도우(3,306m)에 가면 낭가파르밧 전망대 같아 만년설을 음미할 수 있다. 이어 훈자 마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이 아닌가. 이 협곡과 같은 고산마을에서 스케줄 없이 며칠 여유를 부릴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없을 것이다. 절경! 더 이상의 설명은 군더더기일 뿐이다. 훈자. 이 일대는 고구려 유민 고선지 장군의 체취가 묻어 있는 곳이다. 고선지는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중국의 국토를 확장시킨 명장이었다. 사마르칸트에 가면 그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훈자에서 위로, 위로 올라가면, 마침 국경선의 쿤제랍 고개에 이르러 중국으로 진입하게 된다. 파밀 고원이 있고, 타슈쿠르칸 그리고 내리막길, 바로 카쉬카르이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서쪽 도시이다.

세상에 이렇듯 험한 길이 있을까. 만년설을 넘어, 고원과 협곡을 넘어, 몇 달씩 걸어갔던 길. 먼저 걸어갔던 선구자들의 해골을 보고 이정표를 삼아야 했던 길. 험로, 이 험로는 문화를 주고받으면서, 실크로드가 되었다. 불법을 전달해 준 다르마 로드이기도 했다. 바로 깨달음의 길이었다. 사이사이의 요지에 마애불 등 불교유적이 남아 있다. 다만 현재 파키스탄이나 중국의 타클라마칸 일대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바뀌었다. 불교의 나라에서 이슬람의 나라로 바뀐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이슬람 지역에 간다라 문화의 자취가 있고, 갖가지 불교 유적이 남아 있다. 탁실라의 조울리안(Jaulian) 유적도 그런 곳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는 폐허이다. 무너진 탑상의 자취만 남아 있다. 크게는 탑원과 승원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축은 기원후 1세기 혹은 3세기 언저리로 추정하고 있다. 탑의 기단부에 여러 층을 두어 각층마다 감실처럼 구획을 두어 불상을 새겨 넣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모습이다. 무너지다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

폐허의 조울리안에서 불상을 만난다. 당당하고 섬세한 솜씨, 하지만 불두가 없다. 하필이면 이렇게 파괴되었을까. 머리 없는 불상들, 선정인에 든 좌불, 하지만 머리가 없다. 역설적으로 상징성이 강하게 다가오는 듯하다. 도열해 있는 여래상 부조, 몸에 상처가 많다. 상처 입은 불상, 이 또한 상징성을 안겨준다.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씨이다. 그렇다고 방문객이 많은 곳도 아니다. 이름 난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라코람 하이웨이의 길목에서 조울리안 불적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느낄 수 있어 풍요로운 조형감각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폐허, 폐허는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 온다.

절경을 음미하면서 북상하면 칠라스에 도달한다. 시내에서 가까운 곳, 칠라스 강가에 가면 아슬아슬한 현수교가 있다. 그 다리를 건너 산자락 곁으로 가면 암각화를 만날 수 있다. 검은 바위에 꽉 차게 새긴 불상들. 섬세한 선각(線刻)으로 입상과 좌상의 여래를 새겼다. 단아하면서도 기품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다. 비례감각은 물론 쪼으기 기법으로 단순하게 처리한 형상성, 노천 미술관임을 확인하게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관관리의 측면에서 무방비 상태라는 것.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 이방인들은 바위를 마음대로 밟고 다니면서 암각화를 훼손시킬 수도 있겠다. 무방비의 방치상태는 안타깝게 한다. 칠라스 암각화는 카라코람 하이웨이에서 확인하게 하는 과외의 안복과 같다. 섬려한 조형성 때문에 특히 그렇다. 아니, 험한 길, 그것도 물살이 센 강가의 바위산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지 모르겠다. 칠라스 암각화!

카라코람 하이웨이. 지구상에 둘도 없을 험한 길. 그런 험한 길을 왜 가느냐고? 어차피 인생은 고해라 했다. 가시밭길을 통과했을 때의 성취감, 그런 일시적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 고통을 무릅쓴다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고대의 선구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걸었던 험로, 그곳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절경이 있고, 또 역사의 흔적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읽을 성찰의 길도 열려 있다. 그래서 고통을 자청하게 된다. 그래도 그렇지,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관장 : 이준혁

※ 지면은 쥐 · 원숭이 · 용띠 기준 ※

개운원판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12신살을 이용한
방위개운법 붉은색이
정북입니다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은 1회 전화 및 방문하시면 상담 하여드립니다.



특수유압 나침판을 드립니다

• 가액 : 20만원
특허번호 4-2013-035176-1
특수재질 PC

NAVER
귀장술 원판
귀장술 수강생 모집 검색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故 박일우 선생님 영전에 바칩니다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문 의 : 010-8558-2345 / 02)2273-8557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주 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 1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 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문화재 방재 연구 韓日 교류 나선다

문화재硏 · 리츠메이칸大 MOU

한국과 일본이 문화재 안전 · 방재 분야 연구와 학술교류를 위해 손을 잡았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와 일본 리츠메이칸대(총장 요시다 미키오)는 6월 23일 국립고궁박물관서 문화재 안전방재와 관련한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방재와 위기관리 분야에서 학술교류, 공동연구 활동, 조사와 연수를 통한 협력, 관련 정보 교환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양국의 연구 협력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과 리츠메이칸대 역사도시방재연구소에서 맡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향후 문화재의 안전관리와 재해 대응과 관련해, 국내외 문화재 방재전문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연구 체계를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의심 형성 · 유지, 간화선 수행 성공 요소"

김성욱 교수,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서 주장

간화선 수행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기에 따른 다양한 방편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욱 콜럼비아대 교수는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된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간화선은 쉬운 수행법인가'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같은 김 교수의 논문은 제1회 수불학술상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6월 29일 시상식과 발표가 진행됐다. 우수상으로는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화두는 타파되는가', 김성은(브리티시 콜럼비아대)의 '간화선이 조선 지식인들의 시 문화에 끼친 영향', 명준 스님(동국대)의 '선종언어 '시심마(是甚麽)'와 '이뭣고' 화두의 관계 정립에 대한 고찰'이 선정 · 수상했다.

김 교수는 불법을 수용 ·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근기'와 간화선의 상관관계를 대혜 종고 · 고봉 원묘 · 보조 지눌 · 태고 보우 · 서산 휴정 등 한국과 중국의 간화선사를 통해 분석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저명 간화선사들은 공통적으로 간화선을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들 선사들은 대부분은 간화선이 상근기의 수행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중 · 하근기의 제자들에게는 다른 수행방식을 간화선에 적용할 것을 제자들에게 제시했다. 실제, 태고 보우나 백파 긍선은 간화선 수행방식을 정토교 수행 등에 적용할 것을 권했다. 대혜 종고와 고봉 원묘는 간화선 수행의 어려움을 풀 해결책으로 끊임없는 의심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선사들의 사례는 현재 출재가 수행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간화선사들은 모두 의심의 형성과 유지를 수행의 성패 요소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방편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선사들은 특정 화두나 참구 방식에 집착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의 가르침에 따라 현대 수행자들은 정토교와 결합된 간화선 수행이든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화두 참구이든, 자신의 근기나 개성에 맞는 방식으로 간화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1회 수불학술상 시상자와 상을 제정한 수불 스님(사진 가운데)의 모습. 수상자는 사진 왼쪽부터 박재현 동명대 교수, 김성욱 콜럼비아대 교수, 명준 스님(동국대), 김성은(브리티시 콜럼비아대).

선사들 특정 화두에 집착 안해

제1회 수불학술상 최우수 수상

명준 스님 등 3명 우수상 받아

세계 학자, 논문 발표 · 실참 진행

이어 "이런 방식은 의심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간화선 수행이 더 이상 힘들지 않는 수행이 될 것이며, 모든 근기의 사람들이 쉽게 닦을 수 있는 간화선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수상 수상자 명준 스님의 논문 '선종언어 '시심마(是甚麽)'와 '이뭣고' 화두의 관계 정립에 대한 고찰'도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시심마'는 중국에서는 단순 의문문이지만, 한국의 선가에서는 '이뭣고'로 번역해 화두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살폈다. 명준 스님은 단순 의문문의 번역이라는 이유로 '이뭣고'를 화두로 보지 않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서로의 번역어로서 인식하는 관점에서 오는 오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뭣고' 화두에 대해서는 '일물(一物)을 참구하는 종류의 화두를 간단히 줄여서 사용하는 화두'이며, '시심마'는 '이뭣고 화두의 '이'에 해당하는 전체 화두의 내용이 생략된 한자어로서 화두의 제목으로 삼아 표기한다' 고 정의할 것을 주문했다.

명준 스님은 "잘못된 해석을 하는 주요인은 선어록의 원전 언어 습득이 선행되지 못한 까닭"이라며 "현대 중국어의 모체가 되는 당송백화체인 구어체로 이뤄진 선어록을 제대로 해독하자면 중국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이제 원전언어를 습득해 스스로의 안목으로서 제대로 된 선어록의 정법안장을 투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의 마크 블럼, 호주의 로버트 셔, 인도의 라트네시 등 저명한 국내외학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학술 발표 이후에는 백담사에서 5박 6일의 일정으로 간화선을 직접 실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을 방문해 차담을 갖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티베트대장경역경원 현대 티베트어 강좌

매주 수요일 무료로 진행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이 여름방학을 맞아 '현대티베트어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

8월23일까지 매주 수요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D408호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강의 시간은 오후 1시(기초반), 오후3시(중급반)이다.

강사는 양승규, 정성준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원이 맡는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 홈페이지(www.koreatibe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은 2009년에 설립돼 티베트대장경 역경사업을 위한 티베트어 한글표기안, 티베트어 교재 발간 및 석학들의 특강, 국제학술대회 개최, 번역서 출간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054)770-2893

신성민 기자

문경 대승사 목각탱 국보 승격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선종영가집' 등 보물

청주 비중리 삼존불 보물 지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현재 보물 제575호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국보 승격을 지정예고했다. 또한 '선종영가집(언해)'과 '재조본 사분율 권47~50', '자치통감 권57~60' 등 3건은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해 흔히 '목각탱'이라 불리며 주로 조선 후기에 유행했다.

이 같은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등에 봉안돼 있으며, 6점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탱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 가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보물 제575호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모습. 국보로 승격될 예정이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선종영가집(언해)'는 세조가 직접 구결(口訣)을 달고 신미 스님 등이 한글로 옮긴 것을 1464년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상, 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 '교정(校正)'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善本)이다.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거질(巨帙)의 대장경 중에서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의 선장(線裝) 형식의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됐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 최고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인출한 '자치통감 권57~60'은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傳本)이 드물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와함께 문화재청은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6월 23일 지정했다.

보물 제1941호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은 초기 삼국시대 불상으로서 그 역사적, 미술사적 의미가 크며, 함께 전해오는 석조여래입상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삼국 시대 조각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진학자들의 연구를 만나다

한국불교학회, 하계 워크숍서 신진학자 논문 발표

신진 불교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6월 26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서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을 주제로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불교교리부터 역사, 철학, 응용불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불교학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담준 스님(동국대)은 '원효윤리사상 연구'에서 서양의 대표적 윤리 이론인 공리주의와 원효 스님의 사상과 윤리를 비교 ·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인간과 동물들의 행복과 복지를 추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현실적 지침을 공유하는 불교 윤리와 공리주의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안유숙(동국대)의 '유가사지론의 사마디 수행 연구', 장성우(동국대)의 '초기불교의 경영사상 연구' 등이 발표됐다.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은 "그간 불교학계에서는 매년 여러 편의 박사학위논문들이 발표되지만 소개할 기회가 적어 반향없이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시대의 불교학을 개척하고 있는 신진학자들의 학문세계에 대한 평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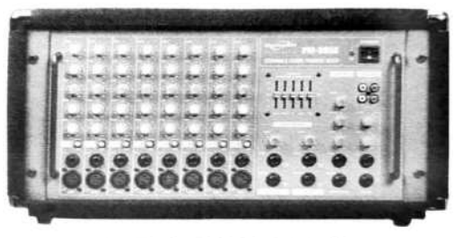


(사)한국불교학회는 6월 26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서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을 주제로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7월 31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영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자체 USB탑제) 1대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머니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은 통계학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을 어머니로 꼽는다.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이라는 대답도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오늘은 어머니, 나의 어린 시절의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을 두어 개 옮겨와야겠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장에서 축구놀이하다 학교 교무실 유리창을 깨트린 사건이 벌어진다.

집은 가난했고 유리창 값이 걱정되어 주눅 든 아이에게 어머니는 방문을 잠그게 하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너에게 하는 말은 형이나 누나에게도 친구나 선생님에게도 비밀로 해야 한다. 어머니의 태몽이야기를 들려 줄 테니 굳게 믿고 정직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다. 내가 너를 잉태할 무렵 밤이 되면 꿈을 꾸는데 청룡, 황룡이 일주일동안 품안으로 날아들었고 마지막 날 밤 꿈에는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큰 목소리로 '이 아이가 장차 성장하면 전라도 절반이 이 아이의 몫이니라' " 이, 전라도 절반과 이 나라 절반의 엄청난 차이, 형제는 울고 있었지만 동생은 의문부호를 남기며 추억의 숲으로 어머니를 따라갔다.

역시 초등학교 때의 어린 시절 이야기이다.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몇 푼을 꺼내 몰래 쓴 후 어머니와의 힘겨운 대면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머니의 회초리는 매섭다.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 따지고 물어 잘못을 인정하면 잘못 저지른 만큼 회초리는 나의 종아리에 박혀왔다. 그날도 어머니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회초리를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셨다. 부엌에서 잘 부러질 회초리 두어 개를 골라 긴장된 모습으로 어머님 앞에 섰을 때이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며 회초리로 어머니의 종아리를 세차게 때리라는 것이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힘주어 또렷하게 그러나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주야! 너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다. 어머니가 가난해 아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용돈을 미리 살펴주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셨다. 그러므로 오늘은 비록 가난해 유리창 값 걱정으로 주눅 들어 있으나 내일은 전라도 절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힘찬 설명이셨다.

해외에서 15년을 머문 후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볼 수 없었던 나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어색하게 비밀스런 어머니의 태몽이야기를 넌지시 형에게 들려주었다. 머리만 깎지 않았으면 지금쯤 전라도 절반의 성주(城主)가 되어있을 사람이라며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염없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고 있었다.

그때 형이 미소를 머금고 말하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형에게도 매우 은밀하게 비밀을 지키라며 태몽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것이다.

"너를 잉태할 무렵 밤이 되면 꿈속에 청룡, 황룡이 한 달 동안 어머니의 품안으로 날아드는데 마지막 밤의 꿈에는 하늘에서 우레와 같이 큰 목소리로 '이 아이가 장차 성장하면 이 나라 절반이 이 아이 몫이니라' " 하셨다는 것이었다. 일주일과 한 달의 차이, 전라도 절반과 이 나라 절반의 엄청난 차이, 형제는 울고 있었지만 동생은 의문부호를 남기며 추억의 숲으로 어머니를 따라갔다.

어머니는 저게 부처님이십니다
불러보면 서러운 그 이름이여

한 죄가 크구나.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갈 때 아들의 마음고생은 얼마나 컸겠느냐. 아무리 어머니가 가난해도 아들의 마음고생하기 전에 용돈의 필요함을 대화로 풀어가지 못한 것은 어머니와의 대화 문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아들아,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필요한 물건이 많아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굳세게 정직한 노력으로 이겨내고 이루는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용주는 향봉 스님의 호적에 담겨있는 이름이다. 나는 이제 늙디늙은 노승(老僧)이 되어 이 글을 쓰며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고 있다.

어머니는 나에 있어 또 한분의 부처님이자 영원한 고향의 안식처이다. 인도와 네팔, 티베트와 중국에서 머문 15년은 길고 험한 고행자의 길이었다.

어머니의 교훈적인 말씀들은 해외까지 따라와서 언제나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 생명의 키를 키워주셨다. 어머니! 불러보면 서러운 게 이리도 많습니다. 어머니는 저에 있어 부처님이십니다.

선시게송으로 법을 전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의 절강성 가흥현(浙江省 嘉興縣)에 화정(華亭)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뱃사공 노릇을 하면서 지낸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뱃사공 형색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배에 실어 강을 건네주기만 할 뿐이었다. 오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도인이 오후보림(悟後保任)의 은둔기를 보냈는지 모를 일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화정 선자' (華亭船子)라 불렀다. 화정선자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나타나지 않으나 여러 전등사(傳燈史)에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명은 덕성(德誠)으로 청원행사(靑原行思)계(系)의 법을 이은 약산유엄(藥山惟儼) 선사의 제자로 알려졌다. 그의 행적이 후세에 큰 감명을 남긴 것은 그가 쓴 절창(絶唱)의 선시 한 편 때문이다.

긴 낚싯줄 아래로 드리우니
한 물결이 일렁이자 수많은 물결이 잇따라 출렁인다.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찬데 고기가 물지 않아 빈 배에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누나.
(千尺絲綸直下垂 一波 動萬波隨 夜靜水寒魚不食 滿船空在月明歸)

나중에 이 게송이 공안(公案)으로 채택돼 '덕성천척' (德誠千尺)이라 하였다. 〈선문염송설화〉에는 이 송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천척의 낚싯줄' 이란 비단잉어(錦鱗)는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 자(尺)나 되는 낚싯줄을 드리워야 한다는 뜻을 제 1구가 가지고 있다 하였다. 고도의 상징적 은유로 '꼬리 붉은 비단 잉어' 가 나오며, 이를 낚으려면 모름지기 천척의 낚싯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무위의 큰 교화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 '한 물결이 일렁이자 수많은 물결이 잇따라 출렁이다' 는 것은 낚시질로 인하여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물결이다. 이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오음(五陰)과 삼계(三界)가 갖추어져 생사의 물결이 그치지 않고 세차게 솟구친다는 뜻이다. 다음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고 고기가 물지 않았다' 는 것은 제도할 중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혹자는 이 게송의 낚으려 하는 물고기는 도를 비유한 것이라고 말한다. 〈오등회원〉에는 덕성의 또 다른 게송이 있다.

한 마리 물고기여! 너무 커서 손 쓸 수가 없구나.
모든 걸 포괄하니 참으로 기특하다.
변화에 능하여 바람, 우레 토해 내니
낚싯줄 드리운들 어떻게 낚으리오.
(有一魚兮偉莫裁 混融包納信寄哉 能變化吐風雷 下線何曾釣得來)

여기서 한 마리 큰 물고기는 도(道)의 광대함을 표현한 것이라 한다. 도는 없는 데가 없다. 불성이 온 우주에 두루 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천지를 포괄하는 한 물건을 고기에 비유한 것이다.

숨어 은둔한 자취를 보여 준 화정 선자 덕성 스님도 그의 법이 '협산선회(夾山善會)' 스님에게 이어진다. 협산 스님은 〈벽암록(碧巖錄)의 책 제목에 인용된 벽암이란 말을 써 오도송을 읊었던 사람이다.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 뒤로 돌아오고 새는 꽃을 물어다 푸른 바위 앞에 떨어트리네."(猿抱兒歸靑 後 鳥啣花落碧巖前)

협산 스님이 도반이었던 도오(道吾) 스님의 권유에 의해 화정으로 덕성 스님을 찾아 갔다. 덕성 스님이 협산 스님을 보자마자 물었다.

"대덕은 어느 절에 머무르시오." "절에 머물지 않고 머문다면 곧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다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않다는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법과 같지 않습니다."

"한 언구의 합당한 말은 만겁에 나귀를 매는 말뚝이다. 천척(千尺)의 낚싯줄을 드리운 것은 깊은 연못의 바닥에 닿고자 함이다. 그대는 어떤가?"

협산 스님이 한참 생각하다 입을 벌리려 하자 노(櫓)로 때려 물속에 빠뜨렸다. 협산 스님이 겨우 배에 오르려 하자 또다시 "말해 봐"하고 노로 후려쳤다. 이때 협산 스님이 활연히 깨닫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본래 갖춘 마음이 바로 '부처'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㉖ 금강경의 참 뜻

마조 선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일체의 생활 일상에서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에서 대상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그저 이름뿐인데, 진여(眞如) 또한 어느 이름에도 속하지 않지만 그렇다 하여 이름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름이 없는 것도 없다' 의 무무명(無無名)에 관해서 조사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름이 없는 것을 그 이름으로 불러주고, 모양이 없는 것을 그 모양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도가 도라는 이름 없이 그대로 머무는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그러므로 지인(至人)은 네모에 머무를 때는 네모가 되고, 동그라미에 머무를 때는 동그라미가 되며, 하늘에 머무르면 하늘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머무르면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삼아승지겁(三阿僧祇劫)의 백천(百千)이나 되는 명호가 있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이름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따라 그 색이 변하는 마니주(摩尼珠)와 같이 파란 색의 대상을 만나면 파랗게 되고, 노란 색의 대상을 만나면 노랗게 되지만, 그 본체는 아무런 색도 띄고 있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스스로 자신을 만질 수 없고, 칼은 스스로 자신을 자를 수 없으며, 거울은 스스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없듯이, 그때그때의 때와 장소라는 조건을 따라 나타나는 대상에 각기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허공과 그 수명이 같아서 설령 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하여 각양각색의 형체로 바뀌어 태어나도, 그 마음만은 결코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득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갖가지 업을 지어 그 과보를 받으며, 본성을 잃은 채 속세의 풍류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모에 머물면 네모가 되고, 사람에 머물면 사람이 되며, 파란 색을 만나면 파랗게 되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하며,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혀에 있으면 맛을 보며, 몸에 있으면 움직이고 감촉을 느낍니다. 손가락은 스스로 자신을 만질 수 없고, 칼은 스스로 자신을 자를 수 없으며, 거울은 스스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음도 네모가 없으면 있을 수 없고, 파란 색이 없으면 있을 수 없으며, 손가락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눈이 없으면 마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눈과 보이는 모양이 마음이고, 듣는 귀와 들리는 소리가 마음이며, 코와 냄새가 마음이고, 혀와 맛이 마음이며, 몸과 촉감이 마음이고, 생각과 생각의 대상이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가 오직 한 마음이지만, 우리들은 마음을 보면서도 마음을 못 보고, 마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듣지 못하며, 마음을 맡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모르고, 마음을 맛보면서도 마음을 모르고 있으며, 마음을 느끼면서도 마음을 모르고, 마음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을 할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미혹한 분별심을 일으켜서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 색, 수, 상, 행, 식의 5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니라. 사리자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아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니, 받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도 또한 그러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위를 앎의 형식으로 축적하는 행위인 수, 상, 행, 식이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사)한국불교조계종 종단 통일가사 점안법회 봉행

한국불교조계종은 미래불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종단개혁과 혁신으로 불교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한국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정법수행을 일으켜 세우고 법계일탈이 만연하여 해체된 승가공동체 구현과 대중공의와 종도주권의 실현을 위해 종단의 체질을 최근 새롭게 바꾸고 종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종도들이 다함께 원융회통을 통해 종단 법인설립 이래 최초로 전통 점안의례 통일가사 점안을 봉행하여 한국불교조계종의 승려 의제를 통일하고 법계제도를 새롭게정착 조계종 정체성 확립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전법의 혁신과 종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종단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분열과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소외된 종도가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창의적인 종무행정을 공평무사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종도들이 환골탈퇴하는 개혁을 통해 기계를 닮아가는 메마른 사회의 풍토에 깨달음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는 종풍쇄신 운동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제방의 대덕큰스님과 전국에 계신 종도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1일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법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FAX : 02)720-8271 H.P : 010-5432-0108(총무원장 운산), 010-4167-3666(사무총장 도광)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처님 복지”



[복지시설 탐방] 강원 양양 무산복지재단

동해바다와 설악산이 자리하고 있는 대표 관광도시 양양군이 강원도 내 최고 복지도시란 점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2017년 국회 조사에서 전국 251개 시군구 중 7위, 강원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한 양양군에는 21개 복지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 6개를 운영하는 무산복지재단은 양양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05년 낙산사복지재단으로 출발해 2012년 설악무산 스님을 기리며 설립된 무산복지재단은 유치원부터 지역전문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 복지

치매 중풍도 佛心으로 치유

2005년 무산복지재단 이사장 정념 스님은 도량복원 불사란 과업을 안고 낙산사 주지로 부임했다. 당시 낙산사를 전소시킨 화재를 복원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낙산사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양양군민들을 치유하는 복지 불사에도 뛰어들었다. 사찰과 대중은 함께 이어져 있기에 대중들의 마음을 보듬는 불사가 진정한 불사라는 의미에서였다.

낙산사는 도량복원으로 여력이 없을 것이란 예상을 뛰어넘어 화재 직후인 2005년 10월 낙산사복지재단을 설립한다. 이를 시작으로 낙산주간보호소를 개원했으며, 2007년부터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 무료급식소를 열고 하루 평균 250여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인 2007년에는 치매와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을 치유하는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상락원을 개원했고, 2013년에는 이를 낙산요양원으로 확장시켰다. 낙산사는 이러한 노력 끝에 2010년에는 양양군노인복지관을 위탁함으로서 명실공히 양양군의 복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다양한 무산복지재단의 어르신 복지시설 중 ‘낙산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등 중증노인질환을 치유하는 공간이다. 신관과 본관에 110명의 어르신이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신시설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전개된다. 가족을 대신해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미술치료와 요리강습 등을 하며 행복한 노년을 즐기고 있다.

어르신 복지의 핵심인 ‘양양군노인복지관’은 지상3층 지하1층의 대형 복지관으로 30여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과 취미활동 지원을 비롯해 일자리 제공까지 다양한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무산복지재단은 경로당 지원, 저소득 가정 연탄 지원, 명절 독거어르신 경로잔치 등 지속적인 행사도 열고 있다.

아동 복지

미래 부처 동량 키운다

무산복지재단의 활동은 어르신 복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 동량을 키워내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까지 전개되고 있다. 낙산사 주지로 있던 정념 스님은 2007년 낙산유치원을 건립하며 양양지역 미래불사에도 뛰어 들었다. 1983년 ‘현산 새마을 유아원’으로 시작한 ‘낙산유치원’은 양양 지역의 유일한 불교유치원이었지만 시설 노후화가 문제였다. 불교유치원이란 이유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과 낡은 시설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사연을 접한 정념 스님은 유치원 재건립 불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양양 중심지에 2800여 평의 땅을 매입하고,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 건립불사를 시작했다.

아 동 – 유치원 · 아동센터 · 도서관
청소년 – 1318아동센터 · 장학사업
어르신 – 요양원 · 복지관 · 보호센터

2008년에는 낙산유치원 맞은편 부지도 매입해 양양군 청소년 중심도량인 ‘무산오현문화센터’를 건립했다. 이어 2009년에는 무산지역아동센터와 부설 의상도서관을 개원했다. 이는 영유아 교육부터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생, 그리고 한부모 가정 자녀 등 다양한 계층의 아동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필수시설로 이 곳에서 아이들은 악기를 배우고, 책을 읽으며 저녁 식사까지 한다. 중요한 점은 학교에서 놓치기 쉬운 인성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런 인성교육에는 무산복지재단이 자랑하는 시설 중 하나인 의상도서관도 일익을 담당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상도서관은 ‘책 뿐만 아니라 마음도 공부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명상 등 마음수행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상담도 진행된다.

현재 낙산유치원을 비롯해 청소년공부방과 도서관, 방과 후 교실 등이 집결된 무산오현문화센터는 양양군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서있다.

이 밖에도 낙산사는 매년 어린이날 동화책과 손목시계 등을 지역 아동들에게 선물하는 등 미래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풀뿌리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청소년 복지

무산복지재단은 최근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1318무산지역아동센터도 개원했다. ‘따띠(따뜻한 아띠)’라는 이름으로 2016년 문을 연 1318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과 미술, 독서교육 등 문화교육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2층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공간도 갖추고 있으며 영화 상영과 공연도 펼쳐진다.

무산복지재단의 청소년 지원사업은 이 뿐 아니다. 청소년 문화 포교단체인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도 10년째 운영중이다. 매년 1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한마음운동회, 문화체험과 템플스테이를 겸한 달팽이 캠프,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양지역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아동 및 청소년,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과 생활정착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및 각종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산복지재단은 2012년 사랑의연탄 및 겨울철 저장식품 나눔을 진행, 5년간 양양초등학생 및 가족봉사단, 양양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봉사단 등 1000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양양군 내 생활이 어려운 1,268세대 연탄가구에 1억원 상당의 연탄과 식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사장 정념 스님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불사에 매진, 지역발전과 불교미래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가진 것 덜고 이웃과 함께 나누자”

Interview

무산복지재단 이사장 금곡 정념 스님



정부가 실시한 인구총조사에서 불자 인구 300만 감소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인 불교계, 하지만 양양군에서만큼은 불교 미래는 밝기만 하다. 양양군의 불자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무산복지재단의 꾸준한 인재불사, 자비실천이 있었다. 이런 무산복지재단의 중심에는 이사장 정념 스님이 있다.

“무산복지재단의 복지사업은 설악산 신흥사 조실이신 무산 오현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재단 명칭도 그 가르침을 위해 따왔죠. 평소 사찰이 지역민심을 아우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큰스님의 원력을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무산복지재단의 ‘무산’은 설악무산 스님의 법명으로 무산 스님은 강원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비행을 오랫동안 베풀어 왔다. 설악산 백담사에서는 일거리가 없는 마을 주민을 위해 버스를 구입해 왕복버스를 몰 수 있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전하며 미래인재도 양성하고 있다.

정념 스님은 “2005년 낙산사 화재 복구 당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쾌척하는 것을 보며 불교가 사회에 다시 회향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했다”며 “지역 주민들이 복지, 문화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는 사실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전국 3000여 사찰이 각 지역에 맞는 복지활동을 펼치고 매년 1명 씩이라도 불자를 배출하면 불교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살겠다는 생각으로 가진 것을 덜어내고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면 곧 행복이 돌아온다. 불교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대중의 행복에서 꽃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각 시설에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과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전했다. 스님은 “재단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데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 작은 창고였던 곳이 어르신을 보듬고, 청소년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어린 아이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는 불심으로 이들을 보살피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복지불사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산복지재단의 자랑, 다양한 복지서비스

노인의료

‘어르신들의 은빛 보금자리’ 낙산요양원



낙산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요양 전문기관으로 부처님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는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

낙산노인복지센터



낙산노인복지센터는 낮 동안 보호자 부재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가족들에게는 부양부담을 덜어줘, 가족들과 더불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여가

양양군노인복지관



2010년 8월 개관한 양양군노인복지관은 무산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전문기관으로 생교육, 취미여가사업지원, 어르신자원봉사 활성화, 동아리활동지원, 어르신문화예술단 육성, 건강생활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교육

낙산유치원



2007년 신축된 낙산유치원은 6학급에서 창의 인성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방과후 과정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및 산학협력, 실습지도 등 양양지역 유일 사립 유치원으로 유아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아동복지

무산지역아동센터



2007년 의상공부방으로 시작한 무산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무산지역아동센터로 새롭게 시작, 현재 양양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 문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2014년 무산지역아동센터에서 분리된 청소년 아동센터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 문화, 정서지원을 비롯해 수학, 영어 및 제과제빵 등 각종 자격증 수업도 진행된다. 특히 저소득 가정 청소년 멘토링을 비롯한 진로상담을 진행중이다.

“높아진 불교 문턱, 문화로 낮출 것”

안국선원교육관, 제1회 천하태평 공연

6월 27~28일, 문화 기획 첫 공연
김종걸 기타리스트 초청 무대
400여 선원 신도 및 불자 동참
“참된 문화쉼터로 역할 할 것”



안국선원교육관이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종걸과 함께하는 천하태평한 공연’을 6월 27~28일 안국선원교육관 1층 원형홀에서 열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가 기타 선율로 울려 퍼지자 20대 청년부터 80대까지 모든 이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언어도, 종교도, 세계관도 걸릴 일이 없었다. 음악으로 다름과 편견이 사라지고 하나가 됐다. 이것이 바로 문화가 주는 힘이다.

안국선원교육관(주지 석산)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종걸과 함께하는 천하태평한 공연’을 6월 27~28일 안국선원교육관 1층 원형홀에서 열었다. 이번 공연은 안국선원교육관이 ‘천하태평’을 타이틀로 실시하는 문화기획의 첫 번째 공연이다. ‘온 세상이 태평하고 근심 걱정 없이 느긋하여 편안하다’는 뜻을 담았다. 세상에 쉼과 힐링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다.

첫 번째 기획인 만큼 안국선원 신도들이 특별초대 손님이 됐다. 이틀 동안 안국선원 신도와 소식을 들은 일반불자 400여명이 찾았다. 석산 스님은 “안국선원교육관은 신도님들의 십시일반으로 지어졌다.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선물하는 심정으로 첫 번째 문화 기획을 열었다”고 말했다.

첫 문화 공연 초청가수는 김종걸 기타리스트였다. 김종걸 씨는 핑거스타일 주법으로 기타를 연주한다. 핑거스타일은 어쿠스틱 기타 한대만으로 무한한 음악세계를 표현할 수 있으며 클래식, 팝, 뉴에이지,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표현하는 주법이다.

김종걸 씨는 현재 야마하 코리아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부산예술대학교 외래 교수다. 일본 오사카 어쿠스틱 기타 라이브 페스티벌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밴드 ‘국카스텐’과 ‘10cm’의 단독공연 게스트로 참여한 바 있다. 김종걸 씨는 “어릴 때부터 불자인 어머님과 함께 절에 다녔다. 그동안 절에서 연주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불자로서 이런 자리가 더 뜻 깊다”고 말했다.

김종걸 씨는 자작곡과 귀에 익은 음악을 편곡해 신선함과 편안함을 함께 선사했다. 자작곡 ‘Mr, Bean’은 영화 속 미스터 빈을 표현한 곡으로, 익살스러움 가운데 통통 튀는 재치를 절묘하게 묘사했다. 루시드 폴의 ‘사람들은 즐겁다’는 그의 손을 통해 새롭게 편곡됐다. 루시드 폴의 슬픈 감수성은 살리되 기타 선율로 섬세함을 더했다.

곡을 들은 불자들은 함께 웃고 슬퍼하며 호응했다. 전소영(45 · 해운대) 씨는 “지난번 동의대 내 안국사에서 공연을 본 적이 있다. 그 때도 좋아서 연락받고 왔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며 “특히 교육관 공간이 너무 아름다워 더 좋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례(68 · 대신동) 씨는 “평소 접하기 힘든 공연을 보게 되니 더 귀하고 좋다. 한 달 전에 알게 됐는데 시간을 빼고 왔다”며 “앞으로 다채로운 문화 기획으로 많은 분들이 쉼터가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 포부가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하태평 문화기획은 문화로 문턱을 낮추고 모두가 함께할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약할 안국선원교육관의 첫 번째 시도다. 이번 천하태평 문화기획은 매달 특별 공연 및 강연으로 열리며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일정은 아직 조정 중이며 일반 법률 및 영화, 사회문제 등 주제는 다양할 것이라 전했다.

문화포교를 위해 2008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건립된 안국선원은 안으로는 간화선을 기치로 심도 깊은 수행을 강조하고, 밖으로는 문화를 가교로 삼아 여유와 쉼을 제공할 것을 강조해왔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전시실과 영화관, 메인홀, 법당 및 옥상정원까지 갖춘 현대식 건물이다. 부산시 건축상 은상을 받아 건축미도 자랑한다.

앞으로 안국선원교육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축구단, 합창단을 비롯해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다도수업, 수행 기초수업,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난 6월 1일 새롭게 주지로 임명된 석산 스님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참된 문화 쉼터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불교의 기본은 수행이지만 젊은이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 문화는 감동을 준다. 감동으로 얻는 가르침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생전예수재 회향식과 미륵십선계 포살법회에 참가한 사부대중이 경내를 돌며 업장 소멸과 무량 공덕을 서원하고 있다.

“허물 참회하고 무량 공덕을…”

선운사, 예수재 회향 · 미륵십선계 포살 법회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6월 24일 지장보궁에서 생전예수재 회향 및 미륵십선계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지난 5월 7일 입재이후 49일 동안 봉행해온 선운사 생전예수재 기도를 회향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각 국장스님들과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한 생전예수재는 불교전통의식에 따라 생전 업장을 소멸하고, 지계와 보시로 스스로 내생의 복락을 추구하자는 의미를 담아 봉행됐다.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은 회향법문을 통해 “우리나라 3대 지장성지인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봉행된 생전예수재에 동참하게 된 것은 불자로서 흔치않은 행운이라 할 수 있다”며 “49일간 걸친 기도를 통해 선업을 쌓고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내생에 무량공덕을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오후 의식에서는 금은전 이운과 미륵십선계 포살법회가 봉행됐다. 전계사로 등단한 선운사 한주 범여 스님은 생전예수재의 공덕과 미륵십선계의 계목을 상세히 설하고 진실하고 참된 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범여 스님은 “계를 지니는 것은 부처의 지위에 오르는 사다리이며 고해를 건너 열반언덕에 이르는 배와 같다. 십선계의 계목과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깊이 수지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군산에서 왔다는 보문심 불자는 “평소 선운사 지장보궁 기도에 동참해 왔다”며 “특별히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재에 동참하면서 지난 허물을 참회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북 평화통일하려면 ‘중년부부’ 자세 취해야”

김근식 교수, 민추본 통일강좌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부산지역본부는 6월 26일 부산불교회관에서 ‘변화된 환경과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이란 주제로 통일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의에 나선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재 남북 상황을 중년부부에 비유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군사적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중년 부부가 냉담하고 다툼은 있어도 폭력은 결코 써서는 안 된다”며 “서로 존중하는 부부의 모습처럼 사상적 체제를 존중하는 남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부부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때 황혼 이혼이 없다. 이처럼 남북은 서로 통일 해야 하는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나눔의 ‘플리마켓’… “함께 행복해져요”

(사)행복한마을 9주년 및 행복한절 11주년 맞아

거창에 위치한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사)행복한마을이 9주년을 맞는다. 행복한마을의 수행 중심지인 행복한절은 11주년이다. 이를 기념하며 행복한마을은 나눔을 위한 ‘행복한 플리 마켓’을 행복한절 극락보전에서 연다. 행사는 7월 9일 오전 9시 1부 개관기념법회로 시작하며, 오후 1시에는 2부 무대공연 및 플리마켓으로 열린다.

플리마켓에 참여한 주민들은 수익금 일부를 거창청소년예술단 나눔 자선 행사에 기부한다. 거창청소년예술단 나눔 자선 행사는 한국과 캄보디아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며 7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캄보디아국립극장(짜따목)에서 열린다. 공연은 천원의 기적이란 모금 활동을 위한 것이다. 캄보디아 인구 70% 이상이 하루에 한끼로 살아간다는 현실을 듣고 현지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플리마켓과 함께 여는 공연에는 기타리스트 박경호가 이끄는 어쿠스틱기타 듀오 2km가 참여한다. 2km는 가수 김연우 · 김범수 · 이은미 등 유명 가수의 세션으로 활동했으며, TV프로그램 윤도현의 러브레터 · 김정은의 초콜릿 등에서 하우스밴드로 잘 알려진 아티스트다.

이밖에 거창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및 행복한절 주지 은산 스님의 토크 및 프리허그 행사, 참가자들의 장기자랑 등도 펼쳐진다. 이날 부스에는 각종 전시회 및 공예작품들과 건강한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린다.

(사)행복한마을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자는 원력으로 만클릭 기부활동, 저소득 청소년 노인 반찬 지원 사업 등 행복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행복한절 주지 은산 스님은 지난 11년 동안 20차례 불교대학을 열어 수계자 450명을 배출하고 20여명의 포교사를 양성했다. 아울러 부산나랑명상센터를 운영하고 공동체마을 및 공동 육아를 통한 포교활동에 전념 중이다. 하성미 기자



대구 화성사 일대 주택 건립 수행환경 훼손 우려감 커져

대구 북구 화성사(주지 종묵) 바로 앞 대지에 18층 높이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행환경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4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 추진(공사기간 2016.12~2019.3월 예정)에 따른 피해 우려다.

화성사 주지 종묵 스님은 “공동주택(행복주택) 건설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물론, 지상 6층까지 건설될 주차장으로 인해 소음 및 분진 피해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님에 따르면 현재 주변 상가건물들은 모두 10층 이하인데, 이 신축주택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18층 높이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 이와 함께 지상 6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지어진다.

종묵 스님은 “현재도 화성사 일대 상황은 좋지 못하다. 인근 대형병원과 기존 아파트 진출입 차량들로 인해 정체가 심하다. 새로 400세대가 들어서면 교통지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설계변경을 통해 최소한의 수행환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공사가 강행될 경우 화성사의 피해는 수행환경 침해 뿐 아니다. 지난 연말 정부시책에 따라 1억2,000여만 원을 투자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도 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 지상 주차장 설치로 인해 화성사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들도 소음 및 매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는 말사 화성사의 진정에 따라 추진 건립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종길 종무실장은 공사가 강행될 경우 동화사 신도회 차원의 항의 운동을 감행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LH공사는 현재 불교계 반발에 따라 착공을 연기한 상태다. LH공사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해 불교계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전 조계종 원로의장
현 파계사 조실 도원 큰스님 초청법회

나무대방광불 화엄경 (3번)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아 이대로가 화엄장엄 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 것을!

남화사 화엄회상 100일 화엄경 수행법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입제안내 : 2017년 7월 14일 (윤,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 하루세번 :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7시 (천수경, 능엄신주, 약찬게, 화엄경수행법)
■ 강 설 : 화엄경 제1권 세주묘음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보살계 수계산림 : 2017년 10월 21일 (음,9력 2일) 토요일 오전 10시
제1회 화엄화상 - 조계종 전계대화상 석성수 큰스님 초청 보살계 산림대법회

천년의 미소 남화사는 도심속 산중 사찰로 숙식도 가능하며 1박은 2만원, 1개월은 50만원이며 단, 강의만 듣고자 하는분은 월 5만원입니다. 그리고 1인 1등은 1만원, 10인이상 동참자는 강의료가 무료입니다. (남화사 유튜브 화엄경수행법)

경북 구미시 선기로3길 38-37 (남통동 70번지) 금오산 남화사
전화 : ☎ 054)452-6568 / 010-3540-6588



연인원 9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윤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연내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아, 우리는 아주 안락하게 산다. 원한 품은 자들 속에 원한 없이 원한을 품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원한을 여읜 자로서 산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불사용 달마도

불사하시는스님들을위하여불사나 선물용으로 저렴하게그려드립니다
규격 : 40㎝*60㎝/가격 : 6,000원
(고급 족자에 그리면 15,000원)
10매 이상은 절이름과스님법명을 넣어드립니다.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 달마원

명예박사학위

취득할 분
미국령상담. 학과자유 선택. (철학, 문학, 정치학, 대체의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070-8844-2030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뇌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사찰,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과 법사님 필수조건
명리+귀장술+원인사+조상
찾는법을 단기간에 책임지도
(무료로 배우면서 공양주 하실분 1분)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수바라, 나비춤(작법),
염불,송주북, 정근북, 법고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010-7579-8200
금륜사 대진 합장

석 하 명 리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속성반 (기초부터 통변까지)
명리 진로적성 상담사 1급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010-2643-5685
부산경남지역 설운 합장

효 림 불 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테라피

(우주기에너지) 1,2,3단계
인상학, 타로, 파동
성명학 모집합니다
010-6284-6172
문자 부터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 바로 상담가능(책임지도)
– 불교 고승비급 전수
– 일반 사주학과는 다름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 (석사)
010-3936-2295
정광 합장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10-3840-4355

비구니 부전스님 구함

숙식거주자,
운전가능자, 30~50세,
월 보시금 100만원
(서울 도봉구 청암선원)
010-3382-8625

절에서 청소, 심부름. 일하실 처사, 스님이 될 행자, 공양주 보살님 구함

010-3840-43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절을 함께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심

(30대 비구니 스님 모심)
010-5564-5211
부산 총무보살

부전스님 모십니다. 행자 모집합니다. 제반의식에 능통하신 스님 연락주세요.

(경북 문경)
010-8819-8988

법맥이 궁금하시거나 특수기도법을 찾는 스님은 전화 주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사찰 처사 (운전가능)

모십니다
숙식 필수
(50세 이상, 경기도)
010-5264-8312

포교당 계승자 구함

집주인이 포교당 신도 다양한 협조, 권리금 800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교통편리, 10평방, 욕실, 중방거실
강서구 화곡동
02)2062-4488
본 광고는 8월까지 유효합니다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 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비구니 스님 , 보살님 방사 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조용한 산사에서 요양하실 분 /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010-4640-4747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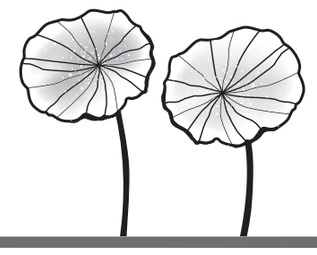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보라, 이 화려한 세상을 그럴싸하게 장식된 왕의 마차 같아서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 끌려가지만 눈 있는 사람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다.

- 법구경 -



서울시 사찰 안내

- 서울시 노원구
- 토지 : 210㎡(약70평) • 법당 요사채 마당 주차장 등
- 지하철역 인근 조용하고 살기 편한 사찰
- 가액 : 7억 5천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파주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3층 건물 법당. 요사채. 공양간 • 토지 570㎡
- 마을주변. 교통편리. 뒷편은 산인사찰
- 양도가액 : 3억 2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서울 중랑구 불교용품점 매매 소개합니다.

- 면적 : 60㎡ (20평)
- 보증금 : 1500만원, 월세 90만원
- 물품값 : 6500만원 (오토바이 포함)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이천
◎ 부지 : 60평 ◎ 면적 : 2500평
◎ 법당 : 25평 ◎ 인법당 : 30평,차량진입
◎ 요사 : 30평 ◎ 경관수려,남향,IC인접
◎ 양도가 : 6억 5천 ◎ 양도가 : 6억3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40평, 대지 360평
- 요사채 3동, 산신각, 용왕당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몸만 오셔서 바로 법회가능

010-8384-7754

하루 전 미리 전화 요망

사찰(급)안내

- 성북구 산중 사찰 양도
- 토지930㎡.이층법당.일층요사.넓은주차장
- 산중에 위치한 접근성 좋은 사찰
- 안정되고 버스진입가능함
- 가액 : 28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다용도주택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옥천 (다용도 주택)
- 주위편의시설 체육공원, 마트. 관공서, 은행, 전철역,
- 전망 좋음, 대지 257평 건물 40평
- 가액 : 4억 5천 (융자끼고 3억에 입주가능)

010-4234-2536

대지 건물(급) 안내

- 위치: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614
- 산세수려한 전지역 국유림내에 위치한 대지 457평, 건물 60평
- 자연 지하수 도로 양호 창건 희망 하는분 최상의 적합지, 1%도 거품이 없는 가격
- 9,500만 검색 또는 현장 답사후 전화주세요

010-8899-8899
010-7621-7621

인천시 남구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남구
-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위치
- 2층 150 ㎡ (약 48평) 방4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2000만, 월100만 시설비 3000만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삼보사찰안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5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김해 / 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수도권의 위치
- 목조 단청, 전통사찰로써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 가액 : 9억

010-5466-332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 지리산(둘레길)
- 대지 152평, 법당 조립식 약 10평
- 요사채 철근콘크리트 약 25평
- 팬션형 2층 건물 바로 앞 계곡
- 공기, 물, 산세, 경치 건강최고
- 기도도량임, 보살님 법사님 환영
- 가액:2억 1천만원(대출가능)

010-3283-7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억

010-8551-33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1140평
- 주차장 20대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방 7칸), 스님친견실 6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010-2498-7899

사찰안내 (포교당)

- 위치 : 경북경산시소재 (갓바이 인근)
- 부지:500평(종교용지)
- 법당:35평(목조,단청,2층)
- 요사채: 2동 60평
- 가액: 사억이천만원
- 특징 : 갓바이인근의 조용한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 으로 참 좋습니다.

사찰안내 (포교당)

- 위치 : 포항시 소재
- 부지: 40평(2층 방 두개)
- 보증금:1000만원(월50만원) 시설비:1200만원
- 특징: 도심 번화가에 있으며 시설이완벽하여 곧바로 법회를 볼수있습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아담한 단독
- 스님들 노후에 안성맞춤 도량
- 높은 담장 대문엔 비디오폰 설치 침대가구 서재 콤푸트 살림일체
- 현재시설 그대로 몸만 오실 스님
- 특별양도가액 : 칠천구백만원

010-5458-295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주문진 토굴임대

- 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458-17
- 법당, 방2, 공양간, 욕실 평지텃밭 : 천여평 화목 및 기름보일러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오백만원

010-5714-78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오천읍
- 대지 : 76평 (상업지)
- 건평 : 120평 3층 (각층 40평)
- 1층101호 30평 보증1천만,월30만 임대 중
  1층102호 10평 사무실
  2층201호 40편 법당
  3층301호 25평 요사 주택
  3층302호 15평 투룸숙박 취사 가능
  3층 : 태양광 설치
- 가액 : 5억 5천만 원

010-5421-637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4,000평 분할가능
- 산세, 지세, 수세명당. 사찰터
- 전망좋은 남향
- 가액: 5억 5천만원

010-3405-0068

별장같은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일월산 자락 아담한곳
- 현대식 목재건물 후원 30평
- 대지 500평, 밭 500평
- 마당 앞 계곡 흐르고 1급수 자연수
- 법당지을 수 있는 땅이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면적 : 3층 약 40평
- 금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참고 : 10개월 월세 보조 가능

02)571-919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포항 남구 청림동
- 상가 2층, 80평
- 법당,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010-2857-2811

울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 30평
- 삼존불 : 아미타불, 관세음, 지방보살, 관음, 지장보살, 소불 60불, 후불탱화, 미타, 관음, 신중, 칠성, 산신
- 현재 법회도량

010-3558-9016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읍
- 부지 약 1,700평
  대웅전1, 삼성각1, 부처님 진신사리 있음
- 대형돌탑 높이 9m30, 탑둘레 13m 108돌탑, 요사채2, 정자각1, 심야전기, 보일러, 태양광열설치, 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읍내거리 5분 • 가액: 16억

033-562-0448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 173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28평
- 가액 : 1억 8천

010-2376-5411
041-557-778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대지 : 150평(반지하)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약 70평
- 스님친견실, 주지실, 종무소, 외 방 3개,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텃밭
- 완전 몸 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010-6717-6826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전75평,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 1억 5천만원

010-7345-167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삶의 무한 지혜, 香향이 세상에 나왔다!!

화제의 신간

密밀작가의 신작!



허공천(虛空天)
향운계(香雲界)에서
향수(香水)의 비가 내려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가 향수대해(香水大海)를 이룬다.

향1권 기품, 승화, 사유, 이성(理性)의 향기
향2권 지혜, 정신, 마음, 지성(知性)의 향기
향3권 생명, 차(茶), 초월, 꽃잎의 향기를 담았다.

박명숙(德慧林)저 / 향 1권 336쪽 / 향 2권 328쪽 / 향 3권 320쪽 / 정가 각 23,000원

완전한 지혜의 세계, 密밀이 세상에 나왔다!!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부탄의 대표 수행처이자 관광객들이라면 꼭 방문해야하는 탁상사원. 해발 3,120m에 위치한 이곳은 부탄을 건국한 파드마삼바바가 절벽을 올라 수행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선조인 파드마삼바바를 따라 산 절벽 위에서 수행 중인 한 스님의 모습.


부탄의 전통 불교무용을 선보이는 스님들. 대부분의 불교무용은 17세기 뻬마 링빠에 의해 만들어졌다.

절벽 위 8개 전각 '금강승불교' 의지처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연재

② 파드마삼바바와 탁상사원

부탄의 상징, 호랑이굴

세계인을 맞이하는 부탄의 국제공항이 위치한 파로 시내에서 10㎞ 북쪽으로 가면 호랑이가 나올 법한 계곡에 닿는다. 여기에서 해발 3,120m에 위치한 탁상사원은 금강승 밀교수행자가 아니더라도 부탄을 방문한 이라면 꼭 가보고 싶은 장소이자 부탄을 상징하는 대표 명소가 됐다. 파로 탁상(Paro Taktsang), 영어로는 흔히 Tiger's Nest(호랑이굴)라고 표현한다. 정확한 사원 이름은 탁상 팔푹 사원(Taktsang Palphug Monastery)이다.

우디야나국(Oddiyana, 현재의 파키스탄 지역) 북서쪽에 위치한 다나코샤(Dhanakosha) 호수는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의 가피가 연꽃 형태로 피어나는 곳이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서방정토의 아미타불 가슴에서 찬란한 금빛 금강저를 호수 위에 활짝 핀 연꽃으로 보냈는데, 그 금강저가 순간 8살 남자아이의 몸으로 화현했다고 한다. 우디야나국의 왕이었던 인드라부티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 나라를 잇게 했다. 파드마삼바바의 탄생이다.

파드마삼바바는 프라바바티 왕비와 결혼하고 나라를 불법(佛法)에 입각해 다스린 후 북인도로 갔다. 그가 레와사르국에서 밀교의 가르침을 펼치자 레와사르국 왕은 그를 불 태워 죽이려 했다. 하지만 연기가 걷히고 연꽃 위에 참선 자세로 앉아 있는 파드마삼바바를 본 국왕은 그의 왕국과 딸 만다라바 공주를 줬다고 한다. 그 후 네팔의 마라티카 동굴에서 무량수불 정진수행을 하던 파드마삼바바는 몸이 무지갯빛으로 화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부탄왕국으로 가서 암호랑이로 변한 또 다른 반려자인 예셰초갤을 타고 깎아지른 절벽을 올라갔다고 전한다.

파드마삼바바는 바로 호랑이굴로 알려진 동굴서 수행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사원은 그가 명상에 잠겼던 히말라야 전 지역 중 13곳 동굴 중 하나다. 파드마삼바바는 켄파종(Khenpajong)이라는 곳에서 악마호랑이를 물리치고 현재의 탁상 사원에서 명상삼매에 들었다. 그 결과 파드마삼바바의 8대 변화신이 나투어 이 지역을 성지로 만들게 된다. 그는 금강승불교 닝마파의 시조가 됐다. 파드마삼바바는 부탄뿐 아니라 북인도, 티벳, 중국, 몽골, 네팔 등 히말라야 전 지역에 불교를 전파한 인도 왕자로서 금강승 불교 창시자이자 절대적 신심의 대상이다.

역사적 수행자들의 의지처

서기 853년 랑켄 펠키 싱계(Langchen Pelkyi Singye) 스님이 호랑이굴에서 수행한 뒤 네팔에서 입적하게 되는데, 탁상 사원을 보호하는 가람호법신 도제 렉빠(Dorje Legpa)에 의해 스님 육신이 한순간에 동굴로 돌아왔다고 전한다. 지금도 펠키 스님의 몸은 탁상 사원 계단 끝 작은 탑에 봉안돼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11세기 이후부터 △십만송으로 유명한 밀라레빠(1040~1123) △시제파 시조 파담파상게(?~1117) △쬐 수행 중흥조 마칙랍뎬(1055~1145) 등 히말라야 성자들이 탁상동굴을 찾아 수행했다.


최근에는 부탄 신혼여행 등이 급증하면서, 탁상사원을 배경으로 한 웨딩촬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해발 3000m 자리한 호랑이굴
파드마삼바바의 무문관 장소
聖人 잇달아 수행하며 사원화
"수행자 영적 몸부림 그대로"

호랑이굴에 수행하는 성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적인 사원 모습을 갖춘 것은 14세기. 닝마파 6대 본사 중 카똑사원 출신의 소남 걜첸 스님(Sonam Gyeltshen) 때부터다. 이 스님의 초상화가 현재 탁상사원 대웅전 지붕 위 암석에 남아있는데, 대웅전을 탁상 우겐 체모(Taktsang Ugyen Tsemo)라고 부른다. 이때부터 17세기 중반까지 탁상사원은 닝마파 카똑전승에 의해 지켜져 왔다.

17세기 들어 위대한 떼르똔(파드마삼바바가 숨겨놓은 밀교경전을 찾아낸 이들) 뻬마 링빠(Pema Lingpa)는 부탄 전역에 많은 사원을 창건하는데, 지금 부탄에 내려져 오는 대부분의 불교무용이 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부탄을 지금의 국가형태로 건립한 샵둥나왕남걜이 온 이후 매년 파로 축제에는 뻬마 링빠의 불교무용이 펼쳐진다.

샵둥은 파드마삼바바가 수행한 성스러운 수행 동굴 주변으로 사원을 창건하고자 했으나 생전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692년 4대 둑떼씨 걀세 텐진 랍게(Tenzin Rabgye) 스님에 의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곳은 서기 8세기 구루린포체 파드마삼바바가 3년 3개월 무문관 수행을 마친 탁상 셍게 삼둡 동굴(Taktsang Senge Samdup) 주변을 정비한 것이다.

1998년 4월 19일 탁상사원은 큰 화마를 입는다. 하지만 대웅전에 모셔놓은 파드마삼바바 불상이 화재 전날 밤 스님들의 꿈에 나타나 불상과 불화를 옮기라고 한 말에 따라 스님들이 급히 움직였고, 다행히 큰 피해는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스님들의 꿈에 나타난 파드마삼바바 불상은 탁상사원 내 8개 전각 중 중간쯤에 위치해 참배객들에게 여전히 사자후를 던지고 있다.

탁상사원은 금강승 밀교수행자뿐 아니라 기공 · 호흡 · 명상을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더 없이 강력한 힘을 제공하는 근원지며, 천 년이 넘는 역사의 중심이었던 수행자들이 반드시 거쳐 간 수행처이기도 하다. 지금도 히말라야 낭떠러지 계곡의 좁은 동굴 속, 몸을 넣기도 힘든 곳에서 인욕으로 수행했을 수행자들의 영적 몸부림이 그대로 느껴진다.


윌리엄리 부탄문화원장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부가 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NAVER 지엠소프트

대표 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샤론 샐즈버그(미국 수행지도자)

〈2〉 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자애로운 마음은 두려움을 이겨낸다



공포에 물들지 않는 자애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 이것이 자애(mettā)의 본질입니다. 자애를 통해서 만물은 다시금 자신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때, 스스로를 축복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메따(mettā)'는 '사랑'이나 '자애'로 번역할 수 있으며, '범천이 사는 곳'을 의미하는 브라흐마 위하라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나머지 덕목인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은 메따에서 발전해 나가며 메따가 그 나머지 덕목들을 지탱해주고 확장시킵니다.

자애의 정신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어떤 방해물도 없으며 모든 것에 열려 있습니다. 물을 각자 다른 그릇에 담아도 '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듯, 메따 또한 각 상황에 알맞은 모습으로 자유롭게 흐르면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거나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잃지 않기 위해 진실을 희생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포와 불안의 감정을 부정하고 잘라버리려 합니다. 이런 태도의 마지막 종착점인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붓다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밀려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메따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붓다는 한 무리의 수행승들을 나무의 정령이 살고 있는 숲으로 보냈습니다. 수행승들이 숲속에 들어와 지내는 것을 괘씸하게 여긴 정령들은 그들을 숲 바깥으로 내쫓기 위해 귀신으로 나타나거나,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수행승들은 겁을 먹고 도망쳐 붓다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른 숲으로 가서 수행하게 해 달라고 수행승들이 간청하자 붓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그 숲으로 가서 수행하도록 해라. 하지만 이번에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보호 장치를 함께 주겠다."

이것이 맨 처음 메따 수행을 가르친 계기였다고 합니다. 붓다는 메따에 대한 경을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잘 닦으라고 수행승들을 격려했습니다. 수행승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 열심히 메따 수행을 했고, 숲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사랑의 에너지에 깊이 감동받은 나무의 정령들은 수행승들을 항상 보호하고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공포에 가득 찬 마음에도 메따의 덕목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애로 넘치는 마음은 공포에 압도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공포가 생겨나더라도 자애로 넘치는 마음은 정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메따는 세상의 모든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감싸는 능력입니다. 메따 수행은 우리 내면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를 조명합니다. 메따 수행을 하면 내면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자애를 통해 그 상황을 손상시키지 않고 진심을 다해 있는 그대로 삶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길러 나갈 때, 붓다가 가르친 가장 힘찬 진리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음은 본래 빛나고 순수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밖에서 들어온 번뇌, 즉 객진번뇌 때문입니다.

붓다는 우리 마음에서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들이 사랑이나 지혜와 같은 긍정적인 힘들을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는 있지만 결코 파괴할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부정적인 힘은 결코 긍정적인 힘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공포나 분노,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힘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자애를 뜻하는 빨리어 메따는 두 가지 어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메따는 부드럽게 흩뿌려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비와 같습니다. 이 비는 조건을 선택하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그저 내릴 뿐입니다.

다른 어원적인 의미는 '친구'입니다. 메따를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우정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붓다는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에 대해 실제로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좋은 친구란, 행복한 시절은 물론이고 불행한 시절에도 늘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붓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우리를 지켜주거나 돕는 사람이며, 우리가 두려워할 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붓다는 설명했습니다.

세상 품어 안는 능력 '메따'
부정적 에너지보다 강력해
수행으로 본래모습 발견하면
'自他不二' 사랑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이 명상 수행 중에 아주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달라이 라마께 말하자,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여러분의 머리를 부처님의 무릎에 갖다 대십시오."

부처님의 무릎은 진정한 우정이 주는 안전에 대한 상식적인 예입니다. 최상의 메따 수행은 바로 자기 자신과 생명 있는 모든 존재에게 이러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 바라는 일은 멋진 행위

사랑의 힘을 밝히는 메따 수행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며, 수행을 통해 우리는 공포나 분노, 죄책감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에서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쏟을 만한 존재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존재를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주 전체를 통틀어 누구보다도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할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이들은 정말 적을 것입니다. 메따 수행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빛나는 이 마음을 직접 보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다시금 알게 됩니다. 선(禪)의 전통에서 말하는 용어를 빌려 쓰자면 이 사랑스러움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본래 얼굴(父母未生前本來面目)입니다. 즉, 분리되고 한정된 자아로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사랑의 힘을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는 일입니다.

자애로운 인간이 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확신은 메따 수행을 할 수 있는 원천입니다. 언제든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하든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협력자는 바로 스스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지혜와 결합할 때, 바람은 자유를 향한 귀소본능으로 작용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며 스스로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행복을 바라는 일은 우리가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의 제한된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정신적인 자유를 위해 육체를 괴롭히는 일은 거의 하지 않지만, 붓다 생존 당시 인도의 어떤 철학 체계(고행주의)에서는 육체가 충분히 고통받고 학대받아야만 정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정신이 진정한 변환을 이뤄 삶을 윤택하게 하려면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경향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 증오에 바탕을 둔 정신으로는 결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에 바탕을 두지 않는 타인에 대한 사랑은 한계를 잃어버린 종속적인 사랑이 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고통스럽고 결실 없는 모색만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도록 배려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철조망이 쳐진 캠프에서 몇 년 동안 집단 수용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루 네 번씩 사람들이 수용소 한편으로 끌려가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일렬로 줄을 서서 강제로 그 장면을 보아야 했습니다. 수용소의 규칙에 따라, 그 장면을 보고 우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도 살해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매번 사람들이 끌려가서 살해될 때마다 혹시 그 안에 친구나 이웃, 친척들이 있을까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만일 아는 사람이 살해된다면 자신이 울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자신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감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스스로 인간성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캄보디아의 정치 상황이 바뀌었고, 이 소년은 입양되어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삶의 전환점에서 이 젊은이는 다시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제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양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 젊은이는 다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과 마주하고 교감하면서 그들이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일은 그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크나큰 선물입니다.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 속에 이러한 사랑스러움이 내재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메따의 힘입니다.

이 글은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조계종 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회향선원의 회향

회향선원(회향복지원)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입주하시고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3년째 퇴실을 원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1층 : 12평 1억 (3人 까지 거주 가능)
• 2층 : 9평 5천 (2人 까지 거주 가능)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종 도 모 집

사)해동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 혜 암

불조의 혜명을 탁마 하면서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하실
제방의 스님과 법사님을 모시오니
뜻을 함께하여 주시길 권청합니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 시대길 73-26

총무원장 전화 : ☎ 010-8224-1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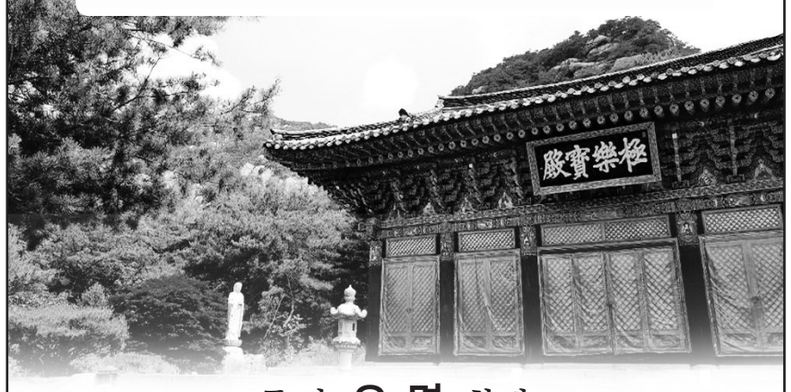
천년고찰 암반수 영험도량 영 천 사

봉행 천장사 1,000일 지장기도 안내

천년도량 천장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입 제 일 :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제천 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 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천장사
H·P 010-5960-2085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우리는 자기완성 하는 것을 급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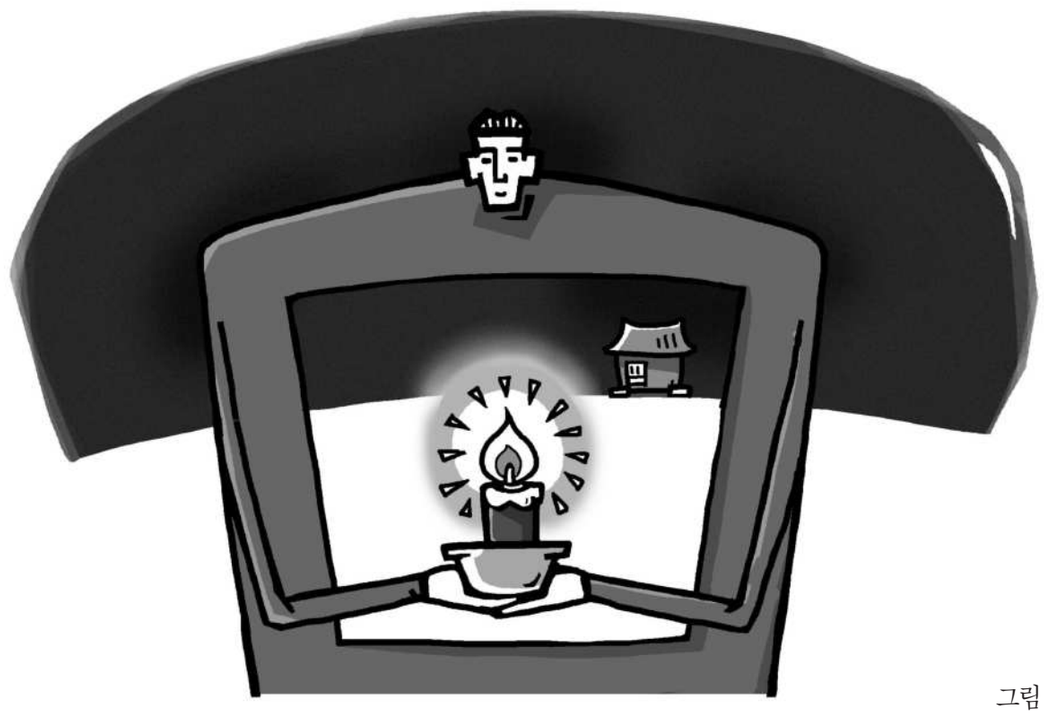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발심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

질문 스님께서는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고 도(道)라고 하셨는데, 굳이 일상생활을 떠나서 수련회나 신행회 모임을 통해서 발심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일정에 보면 대부분 촛불재가 있던데 공부를 한 사람이 켜는 초와 초심자가 켜는 초가 어떻게 다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왜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 진리를 참구하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가 부처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자기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각자 자기완성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우리는 자기완성 하는 것을 급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까지 진화돼서 올라왔으니까, 부처님의 그 뜻과 우리의 진리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에, 그 가운데서 이제는 더 볼 나위 없이 먼저 나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자기완성을 하면 모든 것이 겁나지 않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라든가, 안 되고 되는 거라든가, 하늘이 무너진다든가, 세상이 발칵 뒤집힌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자기완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모두 뒷받침을 잘 해 주지 못하고, 또 자기의 근본을 아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불법을 배운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복으로만 항상 빌고 다니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를 벗어날 길은 천야만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지마는 선지식들이 일 년에 한 번씩이든 그렇게 육법공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거의 선지식들이 모두들 너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랬건만 그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을 못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촛불을 켜 놓을 때 어떠한 심정으로 촛불을 켜야 하는지 그것조차도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그러죠. "주인공에다가, 오직 한군데다가 몰입을 해서 놓아라.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모든 거를 감사하게, 거기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전부 놔라. 일거수일투족 다 놔라." 이랬죠. 그것이 바로 저 촛불 켜는 거와 같습니다. 촛불을 켜 놓으면 초는 녹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녹는다는 것은 바로 이 업덩어리 몸체 속에 들어 있는 그 모든 인과성, 유전성, 업보성, 영계성 또는 세균성 이 다섯 가지의 문제를 다 몸으로 녹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놓지 않으면 녹지를 않아요. 절대로 끊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칼로 베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촛불을 켜 놓을 때는, 진짜 그 마음의 불을 켜서 내 몸과 같은 초가 녹고 녹아서 다 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도 없고 초도 없죠? 그 도리를 알면 바로 깨친 겁니다. 초도 없고 불도 없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전에는 "할!" 하기도 하고, 주장자로 다가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골통을 치고, 또는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법은 어떤 겁니까?" 해도 손가락 하나를 들었고, "인도에서 달마 스님이 동쪽으로 온 뜻은 뭡니까?" 해도 "저 뜰 앞의 잣나무다." 하고 이렇게 그냥…. 그 방편상의 말들을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생사를 전부 파괴할 수 있는, 바로 함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똥둑간에 가다가 질문하면 "똥 친 막대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그 일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누가 아느냐는 얘깁니다. 남전 스님이 이르지 않는다고 왜 고양이를 죽였을까? 조주 스님이 왜 머리 위에다 신발을 얹어 가지고 나갔을까? 이런 등등 말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은 그건 정말 부처 아닌 부처가 돼서 그 마음이 일체 보살이 돼서 허공에 꽉 찰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촛불을 물질로 볼 때는 이게 작고 크고가 있죠. 그러나 마음을 깨닫고 불을 켠다면 이것은 등이 아니죠. 등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그냥 등불은 비바람이 치면 꺼지는 불이지만, 마음의 불이라는 건, 불씨라는 건 온통 천둥번개를 쳐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마음의 불과, 그냥 등불이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이 등불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는 불이니라." 하고요.

우리 신도님들 중에도 마음의 불이 켜져서 지금도 훨훨 밝히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촛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다 미생물이 있고, 날아다니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다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내 인연으로 인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없다면 없는 거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하나 켜 놓는 데 얼마만큼 자기의 앞뒤가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나 미래의 자식들,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촛불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촛불을 마음으로 그렇게 켜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주인공은 꼭 잊지 마시고요. 세세생생에 내려온 주인공이고 지금도 주인공이고 미래에도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 죽는 법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동안 촛불을 켜는 과정을 통해서, 촛불을 보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의 촛불을 켜 들고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불과 보이지 않는 불이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리가 마음의 촛불은 항상 켜고 다니는데, 내가 어떠한 의식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을 좀 꺼뜨리고 간다 이럴 때는 캄캄합니다, 마음의 불을 껐을 때는. 그럴 때 남이 촛불을 켠 걸 보면 바로 또 촛불을 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켜는 것도 좋고, 안 켜는 것도 안 켜는 것이 아니죠. 하여튼 내 마음의 불만은 절대로 꺼뜨리지 마십시오.

애욕이 왜 나오고 어떻게 녹이는지

질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 나름대로 늘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제 마음 안에서 애욕이 왜 나오고 어떻게 녹여야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만약에 애욕이 있는 당신이 없다면 어떻게 애욕이 있겠습니까? 당신 자체가 없는데, 네?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게 당신이 앉아 있는 겁니까? 더불어 같이 앉아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상대가 있습니까?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데 어떻게 애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피어난 꽃들의 움죽거림에 연관을 시키면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이 없이 했고 가고 옴이 없고.

그래서 가고 옴이 없이 여기도 올라왔는데, 누가 올라왔어요? 발자취도 짊어진 게 없고 또 몸속의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지, 댁이 껍데기가 어디서 생겨서 올라왔어요? 알고 본다면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지 자기 혼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자기 혼자만이 보는 게 없고, 그래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더불어 같이, 자기가 심부름을 해서 더불어 같이 돈을 번 거지 내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게 더불어 한 거지, 왜 자기 혼자만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돈 나갈 데 안 나갈 데 다 나가 버리고 말죠.

하여튼요, 천주교 자리든 만주교 자리든, 하하하, 불교 도량 자리든 한도량이고, 한 지구의 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원천적인 근본을 우리가 보고 마음을, 지혜를 내야지 소소한 거, 이 다섯 손가락이 있으면 이 손가락 하나를 보고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대로 여러분이 그게 무슨 희한한 기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란 다 자동컴퓨터와 자동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다 주어져 있는데 자기가 쓸 줄을 몰라서 못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도 그렇게, 비도 그렇게, 모두

☞ A18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苦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계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이 등불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는 불이니라!

☞ A17면에서 계속

마음으로 쓰는 건 그렇게 쉬운데, 그러게, 내 얘기하지 않았나요? 모두 직결이 돼 있고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 수레바퀴하고도 더불어 같이 가설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내면 즉시 빛보다 더 빨리 전달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냥 모든 걸 묘법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대로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 구정물을 깨끗한 물로 바꿀 수가 있지만 이 물체로는 (법상 위의 물컵을 가리키시며) 그렇게 우리가 그냥 바꾸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이라 하면은 물하고도 통하니까 마음으로는 얼른 그게 바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깐 제대로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길 수도 없고, 맡기지 못하니깐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니깐 일이 잘 안되고 이러는 거뿐이죠.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공부의 어떤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질문 사량심이 앞서다 보니까 평소 때 관하면서 맡겨 들어갈 때 과연 이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회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꿈으로라도 어떻게 공부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저는 가슴을 향해서 눈을 내리깔고 사무실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가끔 어떤 사안이 없어도 관을 해 봅니다. 그럴 때 가슴이 아련히 아려져 오는 그런 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부를 하는 중의 어떤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괜한 생각을 두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가 가슴이 아련해짐을 느끼고 이러는 것도 그것이 있다는 증거의 과정이죠. 그런데 확실치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확실치 못하다고 없다고 미심쩍게 생각진 마세요.

그런 점도 있죠. 옛날에 나는 그렇게 서로 상응하면서도,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때가 스무 살 정도? 그러니까 6·25 나기 전이니까. 야! 참 신기한데 말이야, 내 깐에는 뭐 절에서 스님네들한테 많이 들은 것도 아니고 경을 본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야, 당신이 있다면 내 손을 들어서 확실하게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선 딱 앉았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웬걸요.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선, 그래도 나는요, 믿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고 '허! 명령이 되는 모양이지?' 이렇게 하곤 고만뒀어요. 그랬는데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냥 별안간에 이 팔이 말입니다, 그냥 공중제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한문 글씨를 모르던 때인데, 지금은 뭐, 아나요? 하하하, 국문도 잘 몰라요. 절 도량에서 그전에는 불을 많이 때서 숯을 썼거든요. 숯 하나를 집어들면 이게 내 손이 아니에요. 모두가 이게 내 몸도 아니고, 내 손도 아니고, 내 눈도 아니고, 내 귀도 아니고 전부 아니에요. 이렇게 해 보니깐요. 그래서 그때서야 '아하! 들 것도 없고 안 들 것도 없고 몽땅이구나, 몽땅이야!' 그러고 웃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못 믿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몸뚱이 하나가, 즉 내가 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근본이 있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착이 돼서, 지금 속에 정맥 동맥이 같이 돌아가듯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나무가 둘이 아니게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뿌리를 못 믿습니까?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웃음이 나서도 웃을 거고, 화가 나서도 화를 낼 것이고 이렇게 만드시란 얘깁니다. 허!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이쪽은 저쪽이 없는 줄 알고 막 그냥 생각을 하고 웃기다가 보면 거기서 껄껄껄껄대고 웃는단 말입니다. 거기서 웃는 게 바로 자기가 웃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색경을 봐도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 참이 보일 때 바로 둘이 아니게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무쇠로다가 면경을 만들어서 그 면경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죠. 바로 진짜로, 진짜로 믿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리송하면 안 되죠. 잘하든 못하든 그냥 진짜로 믿고 '생활하는 내 몸뚱이 전체가 다 그놈이 하는 짓이로구나. 생활하는 자체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나가는구나.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게 아니로구나.' 하고 '응, 바로 네 울력에 내가 이렇게 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하는 일도 걸림이 없이 잘될 겁니다.

그런데 모두 여러분이 100% 내가 사는 거 따로 있고 믿는 거 따로 있게끔 하거든요. 참 이상해, 그거 보면. 그러니 자기가 자기 부처인 줄 모르죠.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이 몸속에 있는 생명의 의식들과 더불어 한마음으로써, 한마음의 그 선장이 바로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를 아십시오.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바로 배를 타고 허허바다에 지금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마음이 선장이 돼서 바로 안으로, 배 안으로, '야, 배 뒤집힐까 봐 무섭다. 가만히 좀 있어! 여기를 벗어날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 좀 조용하게 있어. 배 뒤집히면 너도 나도 다 죽어.' 하고 안으로 다스려야지, 바깥으로 "살려 주시오, 살려 주시오." 해 봤던들 소용이 없거든요. 아니, 생각들을 해 봐요. 안 그런가? 내 몸속에 지금 중생들이 잔뜩 배에 탔고 내가 지금 배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선장이 돼 가지고 지금 자꾸 끌고 가는데 그냥 허허바다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허허바다를 지금 헤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너도 나도 다 죽자고 안에서 악업 선업들이 그냥 요동을 칩니다. 악업이 나올 때는 마음이 금방 좋았다가도 요렇게 삐뚤어져서 그냥 이런 게 치밀고 어떤 건이라도 별거 아닌데도 화가 나요, 화가 나게 되는 거니까. 또 어떤 건은 웬만큼 화날 거라도

진짜 그 마음의 불을 켜서 내 몸과 같은 초가
녹고 녹아서 다 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도 없고 초도 없죠? 그 도리를 알면 바로 깨친 겁니다.

아, 슬기롭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잘돼서 이렇게 하는 때도 있고, 바로 잘돼 나갈 때는 '아, 너희들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이 배를, 노를 젓고 가는 데도 절대 손색이 없게 하니 참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다 놓고, 또 여기서 막 우왕좌왕할 때는 '야, 가만히 있어. 우왕좌왕하는 것도 너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관(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시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도 꿈에 나타나서 채찍질을 해서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입니다, 지금. 예전에도 자주 탤런트 얘기 했죠. 이 탤런트들도 꿈과 같이 탤런트들 그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하죠? 우리 지금 사는 것도 탤런트들이 연극하는 거와 같죠. 지금 연극하는 배우들이에요, 우리가. 허허허. 그러니까 꿈에는 이 몸을 벗어나서 마음이 가르침이요, 또 몸과 마음이 한데 합쳐서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생시나 꿈이나 같이 공부입니다, 이게. 꿈 따로 보고 생시 따로 보지 마십시오.

생멸과 불생불멸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한마음'이나 '불성(佛性)' 또는 '공(空)'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불생불멸(不生不滅), 부증불감(不增不減) 등 여러 가지 말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불생불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생멸(生滅), 즉 생멸하는 것과 생멸하는 세계가 따라붙게 됩니다. 생멸하는 것과 불생불멸 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불생불멸은 어느 누구도 부정은 못할 것입니다. 살고 죽는 일이나 어떠한 물건이든지 부서지고 변하고 없어지고 생하고 하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증불감'이라고 했겠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멸이다' 하는 것이 '생(生)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멸(滅)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을 했죠. 두 친구가 살았는데, 한 친구는 출가를 하고 한 친구는 속세에서 살고 있는데 속세에서 사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된 친구를 불러다가 "우리 어머니 좋은 데로 가시게 천도나 좀 해 주시오." 했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오지 않았더라면 갈 곳도 없을 것을…." 했더랍니다. "오지 않았더라면 갈 곳도 없을 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 한마디 하곤 그냥 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 말 한마디가 법(法)이 돼서 생멸이 둘이 아니게, 끄달리지 않게 해 드린 거죠. 그런 능력이 부실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도 없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물질이 있어야만이 생멸이 있는 거지, 물질이 없는 데서는 생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나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보고! 그래서 나를 보면 멸이 있는가? 멸도 없고 생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무엇이 남느냐? 그것은 이게 (주먹을 쥐어 머리 위로 들어 보이시며) 하나가 남겠지요. 남는 게 없는 것이 바로 남는 것이죠.

꼭 출가수행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 저도 사실 마음 밝히는 공부를 참 하고 싶은데 스님처럼 꼭 출가수행을 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들어서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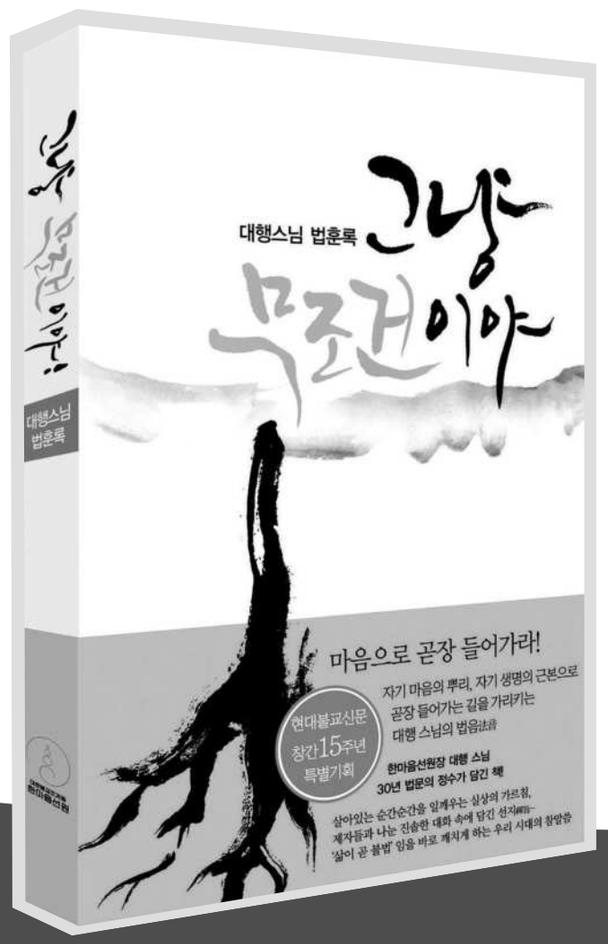
답변 음, 그거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건 자유로 하는 건데, 하하하…. 내가 느낀 거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머리 깎고 입산을 한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저이는 스님이야.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지만, 출가하지 않고 공부하는 이는 그냥 스님하고 똑같이 다 실천할 수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넓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깎는 거지요.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안 보이는 데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유예요. 스님이 되고 안 되는 건 자유고, 공부하는 거는 스님이 됐든 안 됐든 똑같아요.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니, 그 도리도 모르고 스님이 된다면 스님은 돼서 뭘 합니까? 껍데기 스님이 돼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천만 명이 된대도. 그러니까 결심하고 스님이 되는 거,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허허허….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스님 안 돼요. 스님 되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속단해 버리고 이 무명초, 천차만별로 어지러운 모든 걸 깎아 버리고, '나는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도리를 알겠다' 고 다짐하고 들어오는 거, 이거 보통 아니죠.

그런데 공부를 한다니까 말인데, 어떤 분야든지, 만약에 의학을 해서 아픈 사람을 건진다 하더라도 이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물질 또는 학술로 배워도 마음으로 50%의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걸 체험해서 터득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그걸 커버하고 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당히 이거는 배우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확고하지를 못하고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중이라면 진짜 생각을 해서 단호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나는 시간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집을 간다, 장가를 든다고 하는데, 그런 일에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이라면 공부도 못할 거 괜히 스님이 돼서 뭘 하느냐. 가정이라도 잘 지켜야지. 이 공부는 모든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앉아서도 이 세상을 다 주름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승려가 안 돼도 말이죠.

그러나 이 스님네들은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마음이 돼 줍니다. 한마음이 돼 준단 말이에요. 단호히 결정을 내렸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다 끌어들여서 한마음이 돼요. 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되려면 스님이 돼서 이 세계를 누비면서 이 마음법을 전파해도 좋지요. 우리 생명의 근본과, 말하고 체험하고 이러는 게 불교니까. 그러니까 풀 한 포기라도 제도하려면 스님이 되고요. 그런데 살림하는 사람들은 풀 한 포기까진 생각을 안 해요. 또 죽은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죠, 살기 바쁘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벌레의 시대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혐오 신조어 벌레 '충(蟲)'
익명의 SNS가 등장 무대
한국사회 병리 대표사례

계층 · 집단 매도로 변질
자극화되는 타자 혐오는
도덕적 가치관 붕괴 상징

도덕과 사회정의 수립이
정화의 유일한 길일 터

벌레는 참으로 억울할 것이다. 벌레는 작고 기어 다니는 동물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벌레의 한문 발음 충(蟲)이 접미어로 사용되어 상대방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맘충, 급식충, 한남충, 노인충 등 사람을 벌레로 만들어 비하하고 있다. 한때 된장녀, 김치녀 등 우리가 자랑하는 전통음식까지 동원하여 대한민국 여성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어느 정치가는 바퀴벌레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비난하기도 한다. 벌레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는데 벌레는 환장할 노릇이다.

인간의 단백질 보충을 위해 벌레의 주류인 곤충을 대량 사육하여 살 처분까지 한다고 하니 이름 더럽히는 수모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아, 기억난다. 우리 엄마들이 속 썩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을 '밥충'이라고 야단치는 것을 . 그러나 이 밥충은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안타까움의 용어이지 결코 '급식충'이 아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은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의 사바세계에서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충(蟲)이란 접미어에 요란을 떠는 것인가? 충의 횡행 현상은 우리 한국사회의 병리 현상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오염된 지하수가 지표면에 균열이 생기면서 땅위로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충(蟲)의 등장 무대는 SNS이다. 이곳은 익명의 공간이다. 익명의 공간은 나를 감추고 남을 공격하기 좋은 장소다. 또한 이 공간은 집단을 만들기 쉽다. 따라서 싫은 대상이나 집단에 '떼공격'을 하기 쉽다. 이러한 익명의 집단 속에서 개인이 지닌 체면과 도덕성은 무디어 가고 그래서 편하기도 하다. 바로 인터넷 공간이 오염된 지하수를 여과없이 분출시키게 만든 것이다.

충(蟲)이란 접미어의 첫 등장 배경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 음식점,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 애들을 데리고 나온 일부 젊은 엄마들의 철없는 행동(개념 없는 행동이라 표현된다), 지하철 등에서 보는 일부 노인들의 추태는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일부 개인에 대한 미움을 일반화하여 한 계층이나 잡단을 매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타자를 혐오하는 용어는 점점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진화된다.

혐오의 자극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계속 용어는 험악해진다. 그래야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황폐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한국사회의 제일 큰 병리적 현상은 '정신적 가치의 물화(物化)' 현상과 '공동체 의식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배금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현세적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공동체의식이 균열되고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과 집단이기주의는 횡행하고 있다.

혐오의 시대를 벗어나는 근원적인 길은 우리 땅 밑을 흐르는 지하수를 맑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오염된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분출될 때 이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과 사회구조의 정의성에서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찍이 붓다께서는 연기법의 지혜와 자비의 두 수레바퀴로 큰 마차를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어인 일인가.

이 마차를 몰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어디에 있는가?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마(Gregor Sama)처럼 우리 모두가 벌레가 된 것 같으니 이를 어쩌랴.

社說

불교 사회참여, 제반환경 조성 시급

종교는 삶의 한 축을 이루는 요소로, 종교계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사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불교는 자리이타를 말하며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종교이다. 이런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의 사회참여 욕구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진행하는 사회참여형 공모사업에 불자들의 참여가 몰리고 있다. 자살예방이나 청소년 보호, 또는 미혼모 생계설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불교계 기관 교육과정 정원이 두배 넘게 초과해 분반하거나 2차 강좌를 열고 있다.

정부의 지원 하에 진행되는 강좌로 무료 진행이 한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현장 전문가들은 또 다른 원인으로 불자들의 사회참여 욕구 확산을 들고 있다. 사실 불교계는 이웃종교계 만큼 신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같은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단순히 포교 목적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해당 종교의 공공성을 일반사회에 알린다 것에 착안해 꾸준히 사회참여 활동을 늘려가는 것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찰 외 교육관이 필요하고, 공공사업 선정을 위해 수년간 자체 사업 진행의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기본적인 필수조건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찰 등 불교계의 지원이다.

최근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 확산, 청소년 폭력 증가,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 확대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부처님은 재세시 세상의 고통과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제는 남은 불자들이 그 사명을 이어야 할 것이다.

간화선 세계화의 신호탄 올리자

수좌 스님들이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대작 불사에 나섰다. 바로 '문경세계명상마을' 불사 청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봉암사문경세계명상마을추진위원회가 6월 28일 개최한 국제건축설계공모작 발표현장에서는 간화선 세계화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다.

미국 토마스 한라한 교수가 설계한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물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와 외국인들이 편하게 좌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여기에서 진행될 다양한 선 명상 프로그램은 한류 관광콘텐츠의 새 바람이자, 인류 정신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불사와 함께 인재불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간화선 세계화의 문제점은 간화선을 전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불교를 펼칠 간화선 종장, 수행지도자들이 태부족하다는데 있다. 위빠사나 지도자들이 매년 우리나라에서 대중들을 지도하고, 티베트 린포체들이 법회를 여는 만큼, 간화선 종장들도 해외에서 활발히 간화선을 알려야 한다.

외국인과 스스럼 없이 소통하는 수좌 스님이 외국인들이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도한다면 간화선 세계화도 먼 꿈 만은 아닐 것이다.

간화선 세계화는 한국에서의 대중화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기에 세계화와 함께 간화선 대중화도 자연스럽게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옛날 인도인에게서부터 지금의 한국인들에게까지 보편타당하게 적용돼 왔다. 세계인이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화선의 발전을 문경세계명상마을 청사진 공개와 함께 기원한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대학 강단서 혐오 발언이라니

학술대회 참여를 위해 오랜만에 동국대에 올라갔다. 학기 말이라 학업에 여념이 없을 학생들 사이로 오랜만에 캠퍼스를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세 장의 대자보를 발견했다.

동국대 총여학생회 '동틈'이 붙인 대자보로 내용은 대학 강의 중 이뤄진 여성 · 성소수자 · 장애인 · 인종 등에 대한 혐오 발언 사례들이었다.

여총이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혐오 발언은 29건(64%)로 가장 많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9건(20%), 장애인 혐오 발언 2건(4%), 인종 혐오 발언 2건(4%)였다.

발언 수위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충분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여자들이 다 취집(취직+시집)을 해서 GDP가 낮다" "여자가 제사도 지낼 줄 모르면 시집가서 어쩌려고" "철학은 남성의 학문이다. 철학과 남녀비율이 비슷해지는 것이 우려스럽다" 등은 명백한 여성 비하 및 혐오 발언이다. "철학이 남성 학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수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도 마찬가지다. "동성애자는 유전자적으로 돌연변이"부터 "게이 스럽다" "동성커플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가지는 번식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등 심각한 수위의 발언들이 상당했다.

이 같은 결과에 여총은 "젠더, 국적, 성적 지향, 장애 유무 등을 근거로 특정 대상을 타자화 · 대상화해 혐오의 근거로 정당화하는 것은 강의실뿐만 아니라

동국대 女總 강의실 혐오 발언 대자보
대학 內 혐오 문화 자성의 계기 되길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은 강의실이라는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혐오 · 차별 발언이 문제임을 인식하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총의 문제 제기는 타당한 부분이 많다. 실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언어를 통해 혐오하고 차별한다. '맘충' '급식충' 등 누군가를 벌레로 대상화시켜면서 혐오하는 행위는 사회 문화로 정착되는 중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배려와 관용이 부족하다.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4 1월 발표한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연구: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장애인노동자 관련 법률 수와 타인에 대한 관용 · 외국인 비율 등으로 구성된 '관용사회지수'와 실업률 ·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 노령 고용률 · 도로사망률 · 건강지출비율 · 자살률 등으로 구성된 '안전지수' 순위는 31개국 중 31위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사회를 바꾸는 것은 미래의 인재들이다. 미래 인재들은 현재 대학이라는 상아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도 하다. 대학은 학문 연구의 장이자, 교육의 공간이다. 교수와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의무가 존재한다.

학점이라는 권력 아래서 묵묵히 강의자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말에 공감하거나 웃는다고 생각 안했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세계 120여 국가와 도시, 30만km 순례길~

Jade Buddha
for Universal
PEACE







세계평화와 자비를 위한
비취 부처님 방한 친견 대법회

0 2 522 555

YTN 24NEWS 불상 주변 기이한 빛…'만다라 라이트' / MBC WORLD REPORT '옥불상 미스터리' 소개

제드붓다 코리아 위원회



학생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쫓기보다 실패 속에서도 더욱 강해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김경희 장안중학교 교장. 이 시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듣기 위해 김 교장을 6월 19일 교정에서 만났다.

"쉽게 좌절하는 학생들, 마음공부 필수"

테마人 김경희(60 · 장안중학교 교장)

2005년 장안제일고 교장으로 취임

10년 후 2015년 장안중 교장 부임

명상 중심 '마음공부' 교육 앞장서

교내 자연친화적 잔디 · 정원 조성

"좌절에서 바른 선택하는 인격 중요"

사교육 필요 없는 공교육 환경 개선

일반고 학교평가 3년 연속 부산 1위

과학영재학급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

예 · 체능 수업 및 동아리도 '다채'

일반 언론서 '공교육 신화'로 평가

지난 2010년 1월 26일 삼성전자의 부사장급 임원이 자살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한 그는 과중한 업무로 괴롭다는 짧은 메모를 남겼다. 그의 극단적인 선택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는 타인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었고 모두가 동경하던 삶이었다. 그의 결말은 성공을 꿈꾸고 노력하던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을 반복한다. 또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혹자는 '삶을 운전한다'고 표현한다.

특히나 이 시대 학생들은 '성공'을 향해 하루하루 공부와 씨름한다. 부모들은 자녀의 학력은 곧 미래를 보장한다는 믿음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불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불안감을 마음속에 감추고 성공을 향해 달리는 학생들을 향해 '지곤자강(知困自强)'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 '곤궁함을 알아야 스스로 강해진다'는 이 말은 고통과 좌절을 자신의 수행 도구로 삼아 더욱 강해지는 계기로 만들라는 뜻이다. 좋은 직장을 얻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보다 인생의 굴곡에서 바른 선택으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주인공, 김경희(60) 장안중학교 교장을 6월 19일 학교에서 만났다.

장안중학교를 '참된 도량'으로…

부산 기장 장안중학교 강당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19일 학교 측이 김성규 영남대 의대 교수(통섭불교원장)를 초청해 마련한 강연 현장이었다. 학생들은 강연 시작과 함께 외국인 여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보며 키득거렸다. 영상 속 여자는 음악에 잔소리를 담아 속사포로 쏟아냈다. 학생들은 자신의 엄마와 비슷하다며 즐거워했다.

김 교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마음공부'라는 핵심이 숨어있다. 김 교장은 마음공부를 잘 해나가면 역경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토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공부합니다. 부모들은 든든한 후원자로 나서 지원하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아이들은 자력을 잃고 실패를 만나면 좌절합니다. 요즘 자주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저는 그 이면에 바로 성공을 지나치게 지향하는 문화가 자리한다 생각합니다. 성공을 위한 지식 중심 교육이 낳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성교육과 마음공부는 학생들에게 절실합니다.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고난의 순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버리고 인격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김 교장이 학교에서 진행한 명상 강의는 10년이 넘는다. 장안중학교와 같은 재단인 장안제일고등학교에서 교장직을 처음 역임했던 2005년부터다. 2015년 장안중학교에 취임한 그는 지금도 수준 높은 강의를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강의를 맡은 강사진은 우현 법사(K-MBSR, 마음챙김교육원 원장), 조성래 원장(위빠사나 금정선원장), 故 주영배 前 부산대불련 부산동문회장 등 불교 내에 마음공부를 지도하는 전문가들이었다. 또한 TV에서 활동하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양재진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등도 초대한 바 있다.

김 교장은 꿈을 향한 동기부여와 인격 성숙 등 마음공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학부모의 민원은 없었냐는 질문에 김 교장은 "없었다"고 대번에 말하며 "불교색을 드러내지 않는 한에서 마음공부로 학생들에게 유익함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거나 혹은 포교하기 위해 마음공부 시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 교장은 "포교보다는 진심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인격성숙 방법을 전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선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교장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마음힐링을 얻도록 돕고 있다. 잔디 운동장과 함께 조각 공원을 옮겨 놓은 듯한 아름다운 정원을 교내에 조성한 것도 그 일환이다. 또 교사들의 회의 공간에는 다도를 즐길 수 있는 다기를 배치했다. 섬세한 김 교장의 안목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행법에 '걷기 명상'이 있지요. 학생들이 교내를 걷는 것 자체로 걱정을 내려놓고 그 순간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걷기 명상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수행을 직접 아이들에게 실참하라 할 수 있나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정원을 걸으며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학생들을 위해 환경을 정성껏 꾸며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명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장안중학교는 2007년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의 '아름다운 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다음해인 2008년에는 환경의날 기념 환경유공기관 선정 부산광역시 표창장, 2013년 학교평가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영화 '우리형' 영화 촬영지로도 사용됐을 정도로 아름다운 교내 경관을 자랑한다.

'공교육 우수학교'로 부산 교육계 모범

김 교장은 인성교육 뿐 아니라 학력 부분에서도 소홀하지 않았다.

장안제일고 교장을 역임하던 당시 장안제일고는 2011~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년 연속 일반고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1,666개 일반고교 학교평가에서는 3년 연속 부산에서 1위를 했다. 2014년에는 104명 중 7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는 학생 수 대비 전국 일반고 중 2번째로 높은 서울대 합격률이다.

학교 내에선 과학영재학급 및 우수심화 과학반을 운영했으며, 연구논문 및 인턴십 체험 활동 · 토익 · 토플 · 텝스 수업 및 영어방송부 운영 등 다채로운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로 일궜다. 또한 예체능 교육을 위한 댄스, 연극, 그룹사운드, 전통사물놀이, 힙합, 관현악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했다.

일반 언론에서도 장안제일고를 '공교육의 신화'로 평가했다. 2005년 부산일보는 공교육을 살릴 대안을 제시한 학교라 평가했으며, EBS교육방송은 연중기획 '교육이 미래다'의 '학원 없는 세상을 꿈꾼다' 편과 특별기획 '공부의 왕도'에서 장안제일고를 소개했다. 이에 대한 공로로 2010년 스승의날 기념식에서 김 교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4 출판 신간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B5 문화 동 · 서문화 융합 결정체 '간다라 미술전'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인성교육 강조… 부산 교육계 모범 '우뚝'



김경희 교장이 이끈 장안제일고(2005~2015)와 장안중학교(2015~)는 '공교육의 신화'로 평가받을 만큼 우수한 학력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김경희 교장이 교내에서 진행된 '양재진 박사(김교장 오른쪽) 특강'에서 학생들과 밝게 웃고 있다.



6월 10일 열린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20주년 대법회 모습. 김 교장은 2014년부터 연합회장을 맞고 있다.

김경희 교장은?

김경희 교장은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2005년 3월 장안제일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해 10년간 역임했다. 현재 장안중학교 교장이며 부산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부산교육경영직불자회 부산푸루나 부회장을 역임하고 2014년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8대 회장에 취임, 2016년 9대 회장으로 재임했다. 2010년 5월 국민교육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15년 7월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도 수상했다.

김경희 교장

B1면에서 계속

장안제일고와 장안중학교는 부산 기장 변두리에 위치해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된다. 학부모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해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교육 없이 일궈내 결과를 보여 준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김 교장은 장안중학교장을 맡은 후에도 학력신장을 위해 원어민 교사의 회화 중심 교육과 국내 우수대학과 연계한 아인슈타인 프로젝트,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교사멘토제를 운영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어학연수 및 홈스테이를 진행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콜롬비아, 펜실베니아, MIT 대학 등 해외 대학 탐방을 추진해 국제교육 이해를 돕고 있다. 일본 분고오노시 키요가와 중학교 외 6개교와 자매결연 하여 23년 째 교류, 학생들에게 국제 교류 기회를 제공 중이다.

이러한 학력신장 노력에 대해 김 교장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언급했다.

"저희 학교 건학 이념이 '흥진(興陳)'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법인이 '흥진학숙'이죠. 흥진은 '성과를 나누다'란 의미 입니다. 배우고 익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거둔 성과를 또 다시 나누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장천사 진수 스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격적인 부분도 갈고 닦아야 하는 겁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교육이념

부모님 영향 받아 불자로 성장

"관세음 가피로 살았다고 생각"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장 활동도

"불자회 젊은 교사 영입 과제"

기도 가피로 얻은 삶, 인재양성 위해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교장의 가정은 불교 집안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가족 중 부산지방법원장을 지낸 큰 오빠 김시승은 고시공부를 위해 가야산 보현암에서 지냈다. 당시 보현암을 창건한 혜촌 스님은 큰 오빠와 함께 김 교장의 집을 방문하면 일주일 간 머물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평소 보여준 가족들의 불심을 설명하듯 김 교장은 혜촌 스님을 설명했다.

"스님은 1985년 비구니회가 출범했을 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분이에요. 비구니회의 정체성을 확립한 분으로 칭송받으셨지요. 가족들이 지극히 모시는 것을 보고 자랐고 평소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불자로 성장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육군 대령이었던 아버지 아래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랑스러운 형제들 속에서 성장해 심형구 학교법인 흥진학숙 이사장을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 아들 둘이 있는데 성장하면서 공부를 잘했어요. 잘 가르치고 싶었고 잘 따라줬죠. 하지만 어릴 때는 엄마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만 막상 공부를 해야 할 고등학생이 되니 스스로 공부할 의욕이 없어보였어요.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교육심리학도 이수하고 연구하는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경영 보다는 저희 자녀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시기였어요.

대학원을 다녀오던 중 김 교장은 100km 이상을 달리던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대구에서 이사와 부산 지리에 약해 길이 헷갈렸다. 잠시 머뭇거리던 사이 차간 거리를 지키지 않았던 뒷 차가 김 교장의 차를 박았고 그 뒤를 따르던 차가 다시 충돌했다.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3중 추돌사고로 김 교장의 차는 도로 난간을 연달아 박았다. 차가 들이박던 그 순간 김 교장은 큰 사고를 직감했다.

"정말 그 때 다시는 걷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어요. 1초의 찰나 같은 시간에 간절함으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도했지요."

관세음보살님 덕분일까. 그 날 자동차는 부셔졌지만 모두가 무사했다. 다른 차의 운전자 중에도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부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남은 삶은 덤이구나'란 마음이 절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뿐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모두 소중하고 저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 사건 이후 사랑했던 어머니가 2010년에,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큰 오빠가 2013년에 갑자기 세상을 등졌다. 그때 상실감으로 괴로웠던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이며 무상을 체험했다. 2007년부터 진행하던 부산가정법원 조정위 활동과 불자교직원 활동에 더욱 힘을 보탰다. 무상은 오히려 삶에 소중함을 일깨웠다. 가치 있는 일에 더욱 노력하게 만들었다. 가피로 자신을 보호하고 무상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재를 이겨내게 해준 부처님이라 했다.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현재 김 교장은 2014년부터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김 교장은 인재불사에 대한 불교 역할을 제언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현장에서 일하며 인재불사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도량 불사도 중요하지만 스님들이 인재불사에 더욱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불자회 내에 젊은 교사 영입도 과제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인재에서 본다는 김 교장의 확신은 오늘 이 순간을 더욱 성실하게 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처님께 기도로 하루를 연다는 김 교장이다. 그는 말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어두울 때 별은 더욱 빛이 납니다."

하성미 기자



靑春의 번뇌, 절수행으로 '훨훨'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⑬ 법륜 스님이 108배를 권하는 이유

절은 참회하는 마음의 표현

젊은이들에게 108배를 권하는 글을 몇 회에 걸쳐 쓰고 있다 보니,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누구보다 잘 되고 있는 법륜 스님의 108배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다.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라 포기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좋은 자료가 나왔다. 지난해 5월 청년, 대학생 정토불교대학 입학생들을 위한 즉문즉설 강연 뒤,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왜 108배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특강 수련프로그램 중 108배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던 터라, 처음 절을 해보는 젊은이들은 도대체 왜 절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스님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절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 내가 옳다고 하는 몸에 밴 아상을 내려놓게 되고, 동시에 마음에 밴 아상도 내려놓게 되어서 번뇌로 인한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108배 자체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참회의 동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을 하면 저절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임을 증명하는 예를 들면서 108배를 설명하는 스님의 말씀이 흥미롭다.

"몸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고개를 쳐들고 눈을 부릅뜬다. 이게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내가 생각을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부릅떴던 눈이 약간 내리감기고, 쳐들었던 고개가 약간 숙여진다.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하게 된다. 더 잘못했다 싶으면 허리를 굽히고, 더 잘못했다 싶으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다.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을 하면 몸과 마음에 있던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억지로 하는 것은 굴복이어서 저항을 하거나 복수를 하게 된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다. 그러므로 절을 하는 것은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참회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몸을 숙이다보면 마음도 같이 숙여져서 저절로 참회가 되고, 참회가 되다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맑아진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의 주범은 번뇌고, 번뇌의 가장 큰 주범은 내가 옳다는 편견이다. 몸을 숙여 절을 하다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러한 자신의 허물이 선명히 보인다. 맑아지기 때문이다. 청춘의 시기는 번뇌가 가장 치성할 때다. 그 시기를 지나면서 성숙해지는 게 청춘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오래 번뇌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져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마음이 복잡해서 어떤 일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몸이 찌뿌둥할 때 절을 해보면 몸과 마음이 환히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스님은 또,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좀 하다가 마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은 108배를 100일, 1000일 동안 지속해 보라고 권했다. 꾸준히 하다보면 끈기가 형성되어서 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재능은 있는데 끈기가 부족한 것이다.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그만둔다. 직장생활도 그렇고 연애하는 것도 그렇다. 108배를 시켜보아도 젊은 사람들은 사흘, 혹은 일주일 하다가 그만둔다.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밥 먹듯이 꾸준히 실천하면, 삶에 흔들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끈기가 있어야 실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일 때 자존감을 찾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용기가 나온다. 청춘에 자존감과 용기가 없으면 탄력을 잃어 시들한 삶을 살게 된다.

스님은 108배를 하면 건강에도 좋다고 말씀했다. 등산을 할 때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너, 108배 안 하지?' 하고 물으면 거의 백퍼센트 맞는다는 것이다. 매일 108배를 하는 사람은 1000미터 높이의 산을 다섯 시간 정도 등산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교와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만 해도 전신운동이 된다고 했다. 또 3000배나 1만 배를 하는 것은 극기훈련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8배는 비교적 수월히 할 수 있지만 3천배나 1만 배를 하려면 힘이 들어서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데, 그 하기 싫은 마음을 이겨내는 극기 훈련의 대상으로 좋기에 3000배를 하고 1만배를 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心건강이 身건강 유도
젊은이들과의 소통 고리

자연 성형으로서는 최고인 108배

스님의 말씀에 젊은이들이 절을 하면 무조건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뻐지기 위해 성형수술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8배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효과가 있다.

절을 하는데, 왜 얼굴이 예뻐질까? 법륜스님의 말씀처럼 몸과 마음이 정화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니 예뻐지지 않을 수 없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는가. 또 운동 효과가 있어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피부가 매끈해지는 느낄 수 있다. 108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분 가량인데, 그때 소비되는 칼로리가 남자는 144kal, 여자는 100kal로 같은 시간 대비 빠른 걷기와 수영, 테니스를 하는 효과와 같다고 한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절을 하면 금세 얼굴은 물론 온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한다. 피부의 노폐물이 땀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이다. 108번이나 일어났다 엎드렸다, 허리를 접었다 폈다하니 하체의 근육이 발달하고 복근이 단단해지지 않을 수 없다.



절을 하면 정말 얼굴이 맑아진다. 체형도 변한다. 몸매가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예를 많이 보았다. 우리 집 예를 들면 더 확실해진다. 작은 딸애가 중학교 3학년일 때 울주군에 있는 석남사로 놀러갔다. 그곳 선방에 계시던 불필스님께서 기왕 온 김에 놀지만 말고 절을 하라고 하셔서 얼떨결에 열흘 있는 동안 매일 1080배를 하고, 마지막 날은 마무리로 3천배를 했다.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날, 남편과 함께 석남사에 가서 딸애를 보는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두고두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뻤을 때가 그 당시였다고 얘기하고 있다. 정화가 주는 아름다움을 나는 그때 느꼈다. 열흘만 절을 해도 사람이 그렇게 맑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남편의 경우다. 몇 해 전, 더 나이 들면 할 수 없을 거라며 김천 수도암에 있으면서 21일 동안 매일 3천배를 하고 돌아왔는데, 몇 달 동안은 정말이지 멀리서 보아도 얼굴에서 빛이 났다. 체형도 날렵하게 바뀌었다. 전철역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난 조카가 전화를 해서 이모부를 못 알아볼 뻔했다는 인사를 할 정도로 변해버린 것이다.

내 친구의 경우는 얼마 전 1080배 백일기도를 하고 났는데, 마음이 편해진 것은 물론 뱃살이 들어가고 복근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사례는 수없이 많다. 한분만 더 소개한다. 이혼을 결심하고 절에 들어와 백일 동안 3천배를 하고 있던 40대 중후반의 부인을 만난 적이 있다. 이혼을 염두에 두었으니 말할 것도 없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몸도 한없이 무거워보였다. 만만치 않은 체중의 무거운 몸으로 절을 하자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밤만 되면 끙끙 앓는 소리가 옆방에 있는 나에게까지 들려왔다. 1년 후 쯤 우연히 어느 절에서 그녀를 보았는데,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예뻐져 있었다. 얼굴에 수심은 싹 걷혀있었고, 몸은 날씬하게 바뀌어 있었다. 옆에 듬직한 두 아들을 대동한 모습으로 보아 이혼을 안 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모습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108배는 이렇게 예뻐지는 기적을 낳는다. 오죽하면 스님들이 절을 하면 다 자연 미인이 된다고 말씀하겠는가. 매일 108배를 해서 악성루머로 시달리던 마음을 달래고 몸매도 가꾸었다는 배우 고소영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자, 젊은 여성들에게 108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고소영씨처럼 예뻐지기 위해 성형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매끈한 몸매를 가지고 싶은 젊은이들, 꼭 108배를 시도해보기 바란다.

얼마 전 교계 방송국에서 만난 젊은 프로듀서 한 사람이, 아들의 사춘기로 인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길래 108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해보라고 권했더니, 듣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편해지고 문제가 풀린 것 같다며 좋아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겠다는 그에게 힘을 주었다.

"반드시 아빠도 아들도 좋아질 거예요."

자식과 부모는 영혼이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편하면 당연히 자식도 편해진다. 100일 동안 해보겠다고 하니 그의 귀추가 주목된다. 돌아와 며칠 후 나야말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매일 3백배 하던 것을 늘려 1080배를 하고 있다. 일단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 격동의 청춘기에 이런저런 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작은 딸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그간 내 생각이 늘 옳다는 입장에서 그 애를 판단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깊이 참회하고 있다. 새벽과 저녁으로 나누어 절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도 하고 나면 개운하다. 엄마인 내가 참회해서 맑아지는 만큼 딸도 밝아져 용기를 얻고 일어서리라 믿는다. 삶에 108배가 있어 이렇듯 참회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다시 깨닫고 있는 요즘이다.

불교국가 연방승가회 회장단 5~7개국 승정 증명법사 참석 확정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5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의식

부처님 당시의 상좌부 출가의식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400여 군소종단을 불문 어느종단 스님이든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먹물옷 다시금 여미며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승적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정부의 종교성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법왕이신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을 대화상을 모시고 구족계를 내려주실 三師 7尊證 大元老 큰스님들과 500여 증명 존증아사리들의 독경속에 상좌부 불교승려로 거듭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법석, 국제불교 금강계단을 마련했습니다.

구족계 계첩을 미얀마 연방승가회에서 정식 수여함

- 일 시 : 10월 11일 출발 6박 7일 일정
- 신청기간 : 7월 31일까지
- 참가서류 :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여권
- 참가신청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우. 03158
- 장 소 : 미얀마정부 종교성내 양곤승가대학 5일간 입교함
- 문 의 : 011-229-6061

■ 주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6.28~2017.7.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의재발견	우오가와유지	(주)조계종출판사
2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3	사는게내맘같지않을때힘이되는말	범수스님	담앤북스
4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5	홀가분한동행	종연스님	뜨란
6	야단법석(2)	법륜	정토
7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위대한스승청화큰스님	유철주	상상출판
10	우리가 사랑할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스님외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불교와 개신교 비전은?… 자비와 사랑의 웃음 회복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최종석 지음 | 민족사 펴냄 | 2만 8천원



종교는 대단히 진지하고, 근엄하고, 엄숙하고, 보수적이고, 융통성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지를 가졌다. 따라서 종교적 교조(敎祖)나 절대자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근엄한 모습으로 상상 된다. 종교 속 인간도 유희적인 호모 루덴스(homo ludens)나 명랑한 호모 리센스(homo risens)가 아니라 근엄한 인간인 호모 그라비스(homo gravis)를 연상 한다.

그러나 앞으로 종교 간 배타주의를 넘어 서로 인류 공동의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해가야만 하는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붓다의 자비 웃음과 예수의 사랑 웃음을 회복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 실천을 이룰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를 성스러운 것이라 여기고, 엄숙하고 경건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종교를 웃음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한다. 인간에게 벌주는 무섭고 엄한 존재, 인간을 넘어선 지고한 일자(一者)에 대한 외경심으로 사람들은 종교를 인간의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 여긴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와 그리스도교 양쪽 모두에 해당한다.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의 저자 최종석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교수는 이런 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책의 제 1부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글에서 '붓다와 예수의 웃음'이란 주제를 통해 종교서 웃음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성' 회복으로 보고, 종교서 웃음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복권한다. 웃음이야말로 종교 간에 팽배한 배타주의를 비롯한 모든 갈등의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책서 저자는 붓다의 웃음과 예수의 웃음을 비교하며, 예수의 웃음이 자기 비움서 오는 무화(無化)의 웃음, 해방과 사랑의 웃음이라면 붓다의 웃음은 무아(無我)의 해탈과 자비의 대자유를 보여 주는 웃음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붓다는 무명을 깨친 자이기에 무명의 삼독을 극복했으니, 진에인 화를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서 붓다는 끊임없이 웃고 있다. 이에 더해 붓다는 웃을 수 있을 때 웃지 않는 사람을 사특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웃음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경전 속에는 붓다가 미소 짓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지만, 한국서 붓다의 미소에 대한 연구로는 불상에 대한 미학적 연구가 전부다. 이 글은 붓다의 웃음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고 밝힌 최초의 글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신약성서서 예수가 웃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웃음은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복음서 안에서 십자가의 비극과 그 직전의 사건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불교의 '무아(無我)' 개념과 그리스도교의 자기 비움(kenosis)은 이런 자기 부정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나올 수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서 죽음을 맞은 것도, 붓다가 춘다의 공양을 받아들이면서 입멸을 맞은 것도 이런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책서 또 하나 주목한 것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이다. 저자는 지금껏 종교서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즉 과학의 발달은 인간성 파괴와 함께 생태계의 파괴를 조장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간주하는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돼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서 과학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종교서 웃음은 진정한 '종교성' 회복
웃음은 종교 간 모든 갈등 해결 방안
붓다의 웃음이 갖는 의미 정리 '주목'

교정되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학자들은 종교와 과학의 창조적 만남의 필요성을 주장 한다.

저자는 21세기 과학문명 시대에 종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며, 과학시대의 종교는 비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벗어나는 탈신화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신화적이며 상상력으로 이뤄진 교리는 탈신화화의 작업을 더욱 요청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스도교가 자신의 교리와는 거리가 먼 지동설과 진화론을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던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본다.

이렇게 과학시대의 종교는 교리체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요청받고 있다. 예컨대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 신체와 영혼이라는 이원론적 인간관에 대한 새 이해가 요구되고, 유전자공학의 발달로 인간복제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윤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윤회와 업에 대한 진지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처럼 과학의 발달과 함께 기존의 종교 교리체계는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 기존에는 종교서만 다루던 주제들, 즉 영혼이나 내세에 대한 주제들이 이제는 종교와 과학의 융합을 통해 해석의 지평을 넓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더해 저자는 이러한 과학시대에 동양의 종교 전통과 근대 문명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서구를 중심으로 연구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동양의 종교 전통 중에서도 특히 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과학적이고, 과학시대의 미래지향적 종교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과학격의불교'를 통해 불교 교리의 과학적 해석의 단초를 열었을 때 가능하다. 저자는 과학시대의 불교는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적인 성과를 포괄해 과학적인 은유와 상징을 펼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불교를 '과학격의불교'라는 조어(造語)로 명명했다. 그는 과학격의불교는 과학적으로 불교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과학적 연구 성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러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불교의 가르침서 제공한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았다. 저자는 과학시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과 불교의 창조적 융합을 이룬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

불교의 자비심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식물뿐만 아니라 돌 · 물 · 흙에게도 미친다. 저자는 이 자비의 생태윤리가 인간중심적 사고서 야기된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생명체들이 공존 공생 하는 21세기의 시대적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할 종교적 윤리임을 강조한다. 인간중심적 환경윤리가 생태중심적 종교윤리로 승화돼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종교적 당위인 것이다. 이에 저자는 '생태보살' '환경보살'이란 조어를 통해 자연환경 회복에만 원(願)을 세운 보살이 아니라, 인간 환경 회복에도 원을 세운 보살상을 제시한다.

저자는 생태보살의 수행, 즉 생태보살도가 각 개인의 일상에서 이루질 때 청정불국토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불교 해탈의 생태적 해석을 통해 이 시대 해탈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생태의식의 종교문화화가 이 시대의 구원이요, 해탈이라는 것이다.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는 종교가 발딛는 현실적 제반 조건의 변화에 대한 폭넓고도 예리한 인식을 통해 나온 책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종교에 대한 기존 해석의 틀을 깨고,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하고, 과학만능시대의 불교의 인간관을 새롭게 조명하며, 생태계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석의 지평을 넓힌다. 뿐만 아니라 불교가 동북아시아로 전래되면서 변용되는 과정을 살피고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의 위상과 미래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달' 가리키는 150개의 친절한 손가락

이것이 선이다

심성일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 7500원



이 책은 옛 선사들의 문답과 일화 50편, 게송과 선시들 100편을 재료로 삼아 자기의 본래면목에 눈 뜨도록 친절히 안내한다. 진리는 무엇인지 모르고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지만, 바른 안내를 잘 따르면 지금 여기서 즉각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선불교 정신을 충실히 따르면서 지금 있는 자리서 진리를 알아차리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가리켜 보여 준다. 다양한 영적 전통 및 가르침들과 선(禪)을 공부한 뒤 진리에 눈을 뜬 저자의 직접 경험서 우러나온 지혜와 통찰들이 간결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총 2부로 이뤄져 있다. 1부 '깨달음의 인연'은 옛 선사들의 일화와 문답 50편을 소재로 하여 아상(我相) 너머에 있는 본래면목을 알아차리도록 안내한다. 경덕전등록, 오등회원, 총림성사, 조당집, 산암잡록, 연등회요, 종문무고, 대명고승전 외 다양한 문헌들의 기록에서 선정해 소개한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선문(禪門)의 일화들이 다수 실려 있어 옛 사람들이 먼저 걸어간 마음공부의 길을 참고할 수 있다. 2부 '깨달음의 노래'는 선사들의 게송과 선시(禪詩) 100편을 소재로 하여 지금 여기의 진실을 깨달아 자유에 이르도록 안내한다. 지공, 장경, 두순을 비롯한 중국의 옛 스님들, 도오겐, 뎃슈, 도오쿄를 비롯한 일본의 옛 스님들이 남긴 선시들도 적지 않지만, 신라시대의 부설 거사로부터 백운, 나옹 등 고려시대, 소요, 부휴, 서산, 사명, 보월 등 조선시대, 경허, 경봉, 효봉, 설봉, 혜암 등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선사들의 게송과 선시들을 찾아 소개하고 있어 더욱 반갑다.

저자의 언어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선불교의 정신을 충실히 따른다. 이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서 본성을 보게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해탈과 하나 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의 본래면목은 수행을 통해 닦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며, 이미 늘 여기에 있지만 간과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선지식은 그것을 가리킬 뿐이며, 우리의 할 일이란 그것을 알아차리고, 진실이 아닌 모든 개념과 견해를 비우는 것이 대부분이다. 흔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문답을 선문답(禪問答) 같다고 말한다. 그처럼 선문답은 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나 대답이지만, 선사는 이런 대화를 통해 분명히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의 예로, 책에 소개된 〈총림성사〉 속 일화를 보자.

범치령이라는 사람이 내한 벼슬을 하다가 지방 태수로 나가는 길에 민 화상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던 중 탄식하며 말했다. "늘그막에 벼슬살이를 하느라 이 일을 알기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자 민 화상이 곧장 "내한!" 하고 불렀다. 범공이 "예."하고 대답하자 민 화상이 말했다. "멀지 않군요" 범치령은 벼슬살이, 즉 세간살이에 시달리다 보니 마음공부에 전념하기가 어려웠고, 수행을 등한히 하다 보니 자신이 도(道)에서 멀어졌다고 느꼈다. 수행을 중시하는 부류의 스승이라면 열심히 수행하라고 조언했을 법하지만, 진실에 눈을 뜬 선지식이었던 민 화상은 직지인심, 즉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보여 준다.

달을 가리키는 옛 선사들의 손가락
깨달음의 인연, 깨달음의 노래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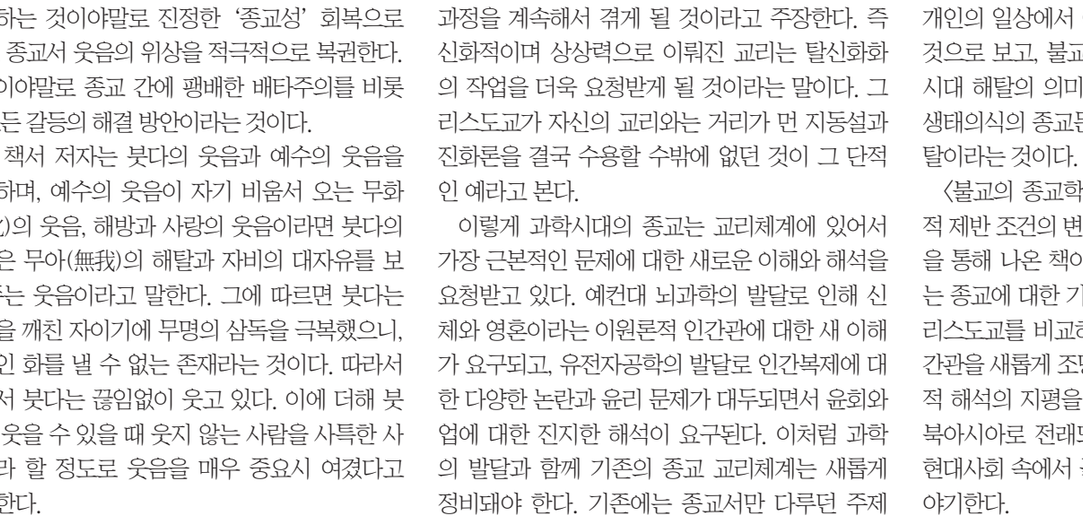
민 화상은 이 짧은 문답을 통해 결코 자신과 떨어져 있지 않은 '그것'을 분명히 알려 주었지만, 여느 선문답들과 마찬가지로 공부가 깊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공부 선배의 도움말이며, 일례로 지은이는 여기에서 이렇게 힌트를 준다.

"'예' '마른 똥막대기' '여기서 홍도까지 나흘 걸린다'는 말만 보면 그 길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말의 길이나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그 모든 말들은 말이 아닌 엄연한 사실, 결코 멀리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본래면목을 곧장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생각,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모든 현상들이 바로 지금 어디에서 출몰하고 있습니까?" 이 책에 실린 150편의 글은 모든 것이 나오고 돌아가는 근원이자 바탕인 '달'을 가리키는 150개의 친절한 손가락이다. 옛 선사들이 남긴 글과 어우러진 지은이의 간곡한 도움말들은 자기의 진실에 관심이 있는 구도자라면 어렵지 않게 자신의 본래면목을 눈치채도록 도울 것이다.

김주일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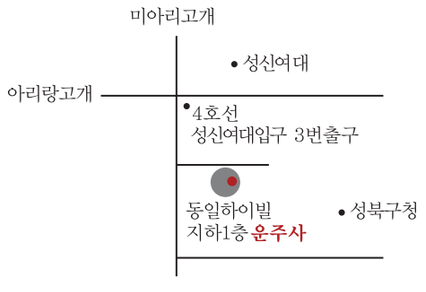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동·서 문화융합 결정체 '간다라' 관전포인트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붓다'展 9월 30일까지 예술의전당서

페샤와르박물관 소장 유물 중심
'역대·국보급' 규모 67점 전시

파키스탄 '고행상' VR로 제작
가상현실 통해 보고 만지도록

어린이·청소년 도슨트 '눈길'
"역사 통해 종교갈등 해법 제시"

동·서 문화의 융합으로 탄생한 위대한 걸작 '간다라 미술'이 서울을 찾아온다.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붓다-간다라 미술展'이 9월 30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간다라 유물의 최대 소장처 국립페샤와르박물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카니시카왕 사리함' '부처님 발자국' '관음보살입상' '석가모니의 첫 선정(수하관경樹下觀耕)' '부처의 기적' '보살입상' 등 67점이 소개된다.

이번 간다라 미술전은 역대급 규모로 구성돼 남녀노소 모두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과서로만 접하던 간다라 유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집중과 재미를 더할 '관전포인트 셋'을 짚어봤다.


라호르박물관 소장 '고행상'

'간다라 역사'로부터 배우는 종교화합

간다라 미술의 탄생 배경은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356·323 BC)의 문화정책에 숨어있다. 동방원정에 나선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문화와 각 지역의 문화를 융합시킨 '헬레니즘' 문명과 동·서 문화의 교류 및 융합으로 이뤄진 새로운 예술양식 '간다라 미술'을 탄생시켰다.

이에 간다라 미술은 다양한 사상과 종교·민족·문화·관습 등의 평화로운 공존의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관을 맡은 한문화진흥협회는 "동·서양 문화융합의 결정체인 간다라 미술의 시대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현재 세계 곳곳에 만연한 국제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가모니 고행상, VR·홀로그램으로 만나다

파키스탄의 국보 '고행상'이 세계 최초로 VR 및 홀로그램으로 제작됐다. 고행상은 파키스탄의 가장 오래된 라호르박물관의 소장품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힌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간다리 미술 중에서도 최고 걸작으로 평가된다.

고행상은 이동 중 손상 위험으로 인해 이번 전시에 들여올 수는 없었지만, VR 및 홀로그램을 통해 가상현실 속에서 고행상을 보고 만질 수 있게 됐다.

어린이·청소년 도슨트가 설명하는 간다라

이번 전시에서는 전문가 해설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청소년들이 도슨트(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로 나선다. 도슨트들은 주한 파키스타 대사와의 인터뷰 및 전시관련 행사 등에서 활동하며, 문화유산을 통한 세계평화와 융합의 가치를 배울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세계문화외교사절단 증명서가 수여된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1시~오후 8시이며, 입장은 오후 7시 20분까지만 가능하다. 입장료 성인 1만원, 중·고등생 6,000원, 초등생 4,000원.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이번 전시는 주한파키스탄대사관·페샤와르박물관·라호르박물관·예술의전당이 주최하고, 인터아트채널 및 한문화진흥협회가 주관한다. 또한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대한불교천태종·전라남도 영광군 등이 후원한다. (02)544-8401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부처님 발바국(부다파다, Buddha Pada). 부처의 발자국은 사람 형상을 한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 보리수, 스투파(불탑)와 같이 부처를 상징했다.


카니시카왕 사리함. 2AD 경 카니시카왕이 불교로 개종한 것을 기념해 세워진 샤지키데리(카니시카왕 대탑)에서 발굴됐다.


하리티와 판치카. 380x110x380mm.



3대 의승장 영규대사 진영 '최초 공개'

국립중앙박물관, 6월 28일부터 상설전시관서

영규대사의 진영이 사상 최초로 공개된다. 기허당 영규(靈圭, ?~1592)는 청허(淸虛)·사명(四溟)과 함께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3대 의승장으로 꼽힌다. 조선 후기에는 이 3대 의승장의 진영을 모신 표충사가 건립되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6월 28일부터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고승 진영(眞影)' 12점을 전시한다. 고승 진영은 문파의 조사나 수행의 경지가 높은 승려, 나라에 공훈이 있는 승려들의 초상을 말한다.

고승들의 진영이 한꺼번에 전시되는 것은 2012년 불교회화실에서 소개된 후 5년만이다. 이중 8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0년 구입한 것이다. 특히 영규대사 진영(구8583·사진)은 최초 공개되는 것이라 의미가 깊다. 부리부리한 이목구비와 좌우에 배치된 무구(武具)는 의승장으로서의 면모를 강렬히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란히 전시되는 또 다른 영규대사 진영(구8620)과 비교해 관람하는 것도 기대할만한 요소다.

이밖에 석가모니 설법 장면을 그린 '영산회산도', 세밀한 필치가 돋보이는 사경 등 한국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전시품도 함께 전시된다.

박아름 기자

엘엠비싱어즈가 부르는 김동환 찬불가곡

엘엠비싱어즈, 김동환 찬불작곡가 헌정음반 발표

찬불 성악중창단 엘엠비싱어즈(L.M.B.Singers)는 찬불음악 창작 명인들의 음악을 되살려 부르는 헌정 프로젝트 'Buddhist Song Maestro'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대상은 김동환 찬불가 작곡가다.



김동환 작곡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가곡과 클래식 명곡을 만든 음악 거장으로 평가된다. 1992년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과의 인연으로 찬불가 작곡에 입문한 김동환 작곡가는 1995년 창단된 BBS불교방송 가릉빈가합창단 지휘자로서 대한민국종교음악제에 참가하는 등 불법 홍보에 기여해왔다.

이번 음반 '엘엠비싱어즈가 부르는 김동환 찬불가곡'에는 '한마음 있음이여' '부처님 내게 오셨네' '청산은 나를 보고' 등 김동환 작곡가의 주옥같은 찬불가들이 엘엠비싱어즈의 목소리로 담긴다. 1년 여 제작 기간을 거쳐 발표되는 만큼 16곡 모두 '명곡의 발견'을 이끌어 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엘엠비싱어즈는 1999년 창단돼 한국불교음악계에서 유일한 성악중창단으로 활동해 왔다. 그동안 4장의 창작 음악을 발표하고, 700여회 공연을 펼쳤다.

박아름 기자



백성의 힘으로 지켜진 관서 대표 고찰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⑫ 기요미즈데라(淸水寺)



기요미즈데라의 입구인 인왕문. 인왕문 앞으로 수많은 기념품 · 고미술 가게 있는데 매우 정겹다.

日 교토 관광의 필수 코스
세줄기 약수 '오토와노타키'
고미술·기념품 거리 등 '유명'

작은 가문의 사찰로 시작해
풍파 겪으며 파괴·재건 반복
민초들의 원력으로 되살아나

교토 히가시야마(東山) 36봉 중 하나인 기요미즈야마(淸水山) 서쪽 중턱에 있는 기요미즈데라(淸水寺)는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곳이다. 기요미즈데라로 가는 길에 즐비하게 늘어선 도자기나 잡화, 과자 등을 파는 아기자기한 가게를 구경하며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재미있다. 이는 기요미즈데라를 찾는 즐거운 요소 가운데 하나를 차지한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기요미즈데라는 특히 벚꽃이 피는 봄과 단풍 절정기인 가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봄과 가을에 몰려드는 인파를 피하기 위해 나는 여름이나 겨울에 한적한 기요미즈데라를 그리며 자주 가봤다. 그런데 요즘 기요미즈데라는 계절도 뛰어넘어서 평일 휴일도 상관없이 붐비는 곳이 되었다. 근래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몰이로 교토의 필수 관광코스가 된 덕분이다. 기요미즈데라에서 일본 전통 옷인 기모노를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다.

기요미즈데라 창건 이야기는 나라시대 후반 나라 고후쿠지 스님이었던 겐신(賢心, 엔친으로 개명)부터 시작된다. 겐신이 아스카에 있는 고지마데라(小島寺)의 스님이 되어서 학문과 수행을 닦았다. 778년 부처님오신날인 4월 8일, 꿈에 노인이 나타나 "나라를 떠나 북쪽으로 가라"고 말했다. 꿈의 계시를 따라 북쪽으로 가봤더니 요도가와(淀川)에서 신기한 금색 물의 흐름을 발견했다. 금색 물의 수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봤다. 기요미즈야마 오토와노타키(音羽の滝) 폭포에 도착했다. 폭포 상류에 낡은 암자가 있고 거사가 있었다. 거사가 겐신한테 말했다. "나는 동국(東國)에 수행을 하러 간다. 당신이 기요미즈야마의 나무로 천수관음상(千手觀音像)을 새기고 여기서 사찰을 건립해 안치하라"고 말한 뒤 거사는 홀연히 동쪽으로 가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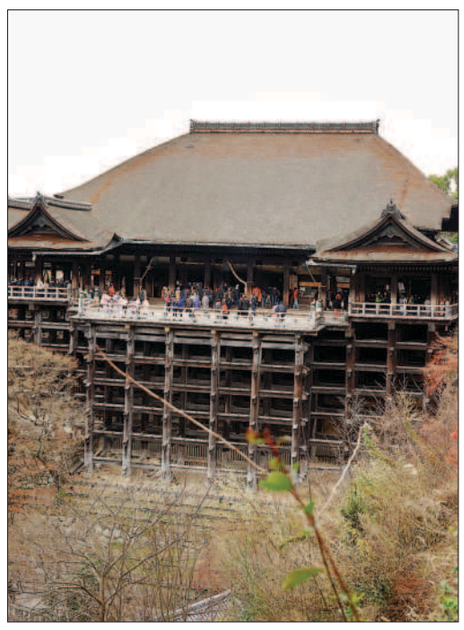
겐신은 거사가 관음의 화신이라고 믿고 그를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거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겐신이 거사의 말을 따라서 암자에 거주하여 관음상을 새기고 암자의 작은 법당에 봉안했다. 그러나 훌륭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 겐신 한 사람의 힘으로 실현되는 일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

이런 상황에 등장한 사람이 도래인의 후손인 다이나곤(大納言) 사카노우에 다무라마로(坂上田村麻呂)였다. 다무라마로는 임신한 아내에게 몸에 좋은 것을 먹이려고 기요미즈야마에 들어와 사슴을 사냥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샘물을 찾아봤더니 오토와노타키 폭포를 찾았고 거기서 겐신을 만났다. 겐신에게 관음의 불살행(不殺生)과 대비(大悲)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무라마로는 큰 감동을 받아서 둘이 힘을 합쳐 함께 사찰을 건립하기로 약속했다.

다무라마로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아내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사슴을 살해한 죄를 참회하기 위해 사가를 제공해 겐신이 제작한 관음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찰을 세우자고 했다. 780년에 기요미즈데라는 이렇게 사카노우에 가문의 사찰(氏寺)로 시작했다.

8세기 후반에 이렇게 창건된 기요미즈데라였지만 본존을 안치한 본당도 좁고 작은 가문사찰에 불과했다. 805년 다무라마로가 조정에게 사찰 부지를 하사받고 간무 천황의 고간지(御願寺, 황실의 발원으로 건립된 사찰)로 지정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인 사찰이 되었다. 810년에 호국의 도량으로 지정되었다. 천황의 고간지, 호국의 역할을 하는 사찰로 걷기 시작한 기요미즈데라는 나라 고후쿠지 말사가 되었다. 당시 교토 불교에서 큰 힘이 있는 사찰이 히에이잔(比叡山)엔랴쿠지(延曆寺)였다.

헤이안시대 후반부터 고후쿠지와 엔랴쿠지는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기요미즈데라 지배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싸웠다. 엔랴쿠지 승병(僧兵)들이 몇 번이나 기요미즈데라를 습격해 불을 질렀다. 결국, 파괴와 재건이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기요미즈데라 순례의 하이라이트 무대의 전경. 예불 공간이면서 본존에게 음악과 예술을 공연하는 자리기도 했다. 사진제공=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기요미즈데라의 명물 '오토와노타키.' 가는 세 물줄기는 학업, 연애, 장수에 효험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래도 기요미즈데라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밤낮 상관없이 본존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신도가 있었고 심지어 사찰에서 숙박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기요미즈데라는 고전 문학이나 가부키 등 전통 예능에도 자주 나온다. 잦은 대화재로 기록 문서를 많이 잃은 기요미즈데라에겐 이런 작품이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사찰 역사를 알려주는 자료가 되었다.

1467년에 시작한 오닌노란(應仁の亂)이라는 큰 전란이 벌어졌을 때 기요미즈데라는 완전히 소실되어 버렸다.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문제는 자금이었다. 당시 큰 평가를 받던 간아미(顧阿彌)라는 스님이 있었다. 그는 오닌노란 전부터 권선으로 모은 자금으로 다리를 수축하고 난젠지(南禪寺) 불전 재건에도 성공했었다. 간아미 스님이 고후쿠지로부터 권선을 하는 자격을 얻어 기요미즈데라 재건에 진력을 다했다. 간아미 스님을 중심으로 한 권선 덕분에 1478년에 범종이 다시 주조되고 6년 후에 본당도 재건되었다. 이후 에도시대에 들을 때까지 전란이 잦은 상황에서도 기요미즈데라는 장군에게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1629년에 화재로 인왕문, 종루 외에는 당탑이 거의 다 불타버리고 말았다. 그 때 에도 바쿠후(幕府)의 3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가 거액의 돈을 내고 가람이 재건되었다.

현재 기요미즈데라 주요 당탑은 기본적으로 그 때 복원된 것이다. 그리고 기요미즈데라 스스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불(秘佛)인 본존을 유료로 공개했더니 공전의 참배객이 방문했다고 한다. 33년마다 한 번씩 공개되는 본존이 2000년에 공개되었고, 또 2008년과 2009년에 특별 공개를 했다. 평소에는 비불인 관음보살을 볼 수 없지만 관음보살 권속인 28부중상(二十八部衆像)을 예불할 수 있다. 본당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지만 역동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

볼거리가 많은 기요미즈데라 답사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본당에 설치되는 무대이다. 무대는 예불 공간이기도 하고 그 말대로 본존 관음보살에게 바치는 전통 예능을 공연하는 공간이기도 한다. 창건 당시의 본당에는 무대가 없었으나 참배객의 증가에 따라 무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언제 무대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헤이안시대 후반 문학 작품에 무대가 등장하고 있다. 무대 높이 약 13m, 넓이 약 190㎡, 무대를 떠받치는 나무 기둥이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강고히 조립되어 있다. 벼랑에 세워진 웅대하고 호장한 무대 모습을 보면 인간의 기술력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일본어 속담 중에 '기요미즈의 무대에서 뛰어내릴 셈을 치고' 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다. 현재는 큰 결단을 내리고 일을 할 때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인데 원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실제로 무대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었다.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까지 뛰어내린 사건이 235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번 시도해 2번 성공한 사람도 있었다. 놀랍게도 생존율이 85.4퍼센트였다고 한다. 성공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도한 사람들은 거의 다 서민이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 이 습관이 미신에 의한 악습이라고 금지되었다.

무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좋지만 무대에서 먼 앞산에 보이는 순산을 기원하는 곳인 고야스노토(子安の塔) 쪽에 가서 본당과 무대를 보는 것을 권한다. 소개로 나오는 기요미즈데라 사진은 거기서 찍은 것이 많다. 안타깝게도 지금 수리중이어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없고 못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사찰 경내 답사는 가능하다

고야스노토를 무대 방향으로 내려가면 오토와노타키에 나온다. 가는 물줄기 셋이 각각 학업, 연애, 장수에 효험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사람이 줄을 서서 물을 마시는데 사찰에는 셋 다 효험이 똑같다는 설명이 있다. 경내 북쪽에 있는 조주인(成就院)은 원래 간아미 스님의 암자였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조주인이 평소에는 비공개이지만 특별 공개할 때가 있다. 올해는 11월18일부터 12월3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입장 시간 9시~16시, 18시~20시 30분).

기요미즈데라를 방문할 때 요즘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될 정도로 버스 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버스를 타지 말고 전철을 권한다. 전철역에 내려서 비탈길을 즐기면서 올라가는 것을 추천한다. 게이한(京阪) 기요미즈고조(淸水五　)역에서 내리면 고조자카(五　坂)나 자완자카(茶わん坂)를 경유해서 가게 되고 게이한 기온시조(祇園四　)역이나 한큐(阪急) 가와라마치(河原町)역에서 내리면 니넨자카(二年坂), 산넨자카(三年坂)를 경유해서 가게 된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철 골조로 사찰 신축 전문
지붕 개량 전문

장점
• 목조보다 50% 비용 절감　• 지진에 강함
• 비틀림이 없음　• 공사기간 단축



대수건설 010-3911-1775. 011-9726-9288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인연



홀로 와서 홀로 가는 길. 그 길에서 만난 인연들. 지금 각자의 모습은 그 인연들이 만들어 준 것이다. 함께 웃고 울었던 날들이 쌓여 지금의 얼굴이 되었고, 서로 바라보던 날들이 쌓여 지금의 가슴이 되었다. 이제, 곁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쌓여 각자의 뒷모습이 되어간다. 홀로 와서 홀로 가는 길에, 모두는 그렇게 인연 속에 머물다 간다. 억겁의 돌도 한 순간의 인연으로 바라볼 것이 생겼구나. 울고 웃는구나. 누군가의 곁에 섰구나.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⑬ 〈동화 팔만대장경〉오계 받은 식인귀의 왕 산지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한다면…

사위국 광야택(曠野澤)마을 재덕(財德)장자가 슬기 있는 아기를 두었습니다. 장자는 아기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세 살 때부터 '나무 삼보'를 가르쳐서 외우게 했습니다. 아기는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을 잘도 따라 외었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스님들께 의지한다는 뜻이야. 알겠니?"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이것만 외우면 부처님이 나타나서 구해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아기는 밥먹을 때마다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을 외었습니다. 소꿉놀이 하면서도 외었습니다. 외울수록 힘이 나고, 몸이 튼튼해지고 슬기가 열립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먹이로 하는 귀신, 식인귀가 나다닌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귀신의 이름이 '산지(散脂)'입니다. 식인귀의 왕, 산지는 아기를 먹이로 한다고 했습니다.

산지는 참으로 무섭게 생긴 귀신의 왕입니다. 가슴에 무서운 얼굴 세 개가 있습니다. 배에 두 개, 양 쪽 무릎에 하나씩 얼굴이 있습니다. 모두 일곱 개 얼굴입니다. 얼굴마다 날카로운 어금니 두 개가 솟아 있습니다. 얼굴마다 두 개 눈이 있고, 눈에는 파란 불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귀신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귀신입니다.

식인귀의 왕, 산지가 사위국 광야택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어른들이 모두 들에 나가고 으슥한 골목에서 아기 혼자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슬기의 아기로 알려진 재덕 장자네 꼬마였습니다. 산지가 와서 아기에게 덮치려했습니다.

아기가 바라보니 일곱 개 얼굴과 열네 개 눈에서 흐르는 파란 불빛이 아버지께 이야기 들은 귀신 산지였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얘기해주던 산지 귀신이네. 아무리 무서운 괴물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

아기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나무 삼보'의 힘에 식인귀의 입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나무 삼보'의 힘에 식인귀는 아기에게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하늘귀의 신통력으로 금방 꼬마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꼬마 하나가 식인귀의 위험에 놓여 있군. 가봐야겠다!"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 곁에 있던 아난 존자가 알아차리고 부처님과 같이 일어섰습니다. 부처님 하늘 귀에는 계속 아기의 목소리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문의 힘 때문에 식인귀가 아기에게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처님은 하늘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금강신(金剛神)이 손에 금강 방망이를 들고, 칼을 휘두르며 부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부처님이 허공을 날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은, 허공에서 걸음이 더딘 아난과 금강신을 도와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을 한 수많은 화불(化佛)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화불이 부처님 뒤를 따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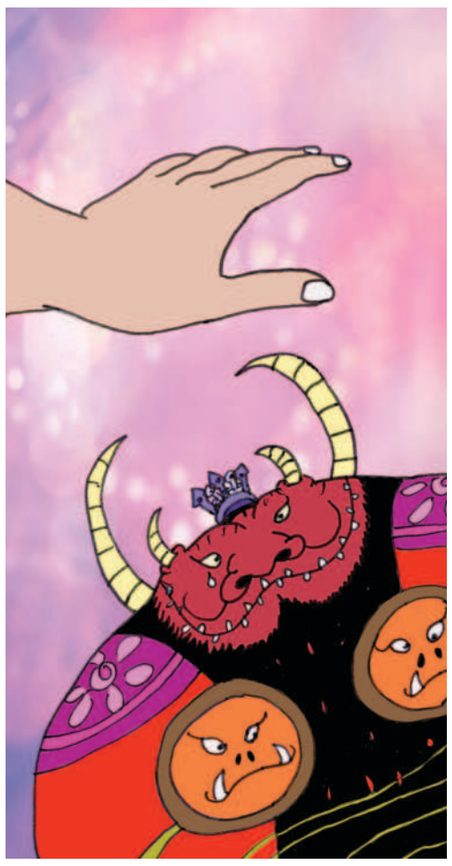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부처님은 광명을 놓으시며, 팔 한 번 굽혔다 펴는 시간에 일행을 이끌고 광야택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아기는 그대로 식인귀와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니? 놀라지 않았니? 장하구나"하고 부처님이 먼저 아기를 구해서, 아난 존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아기는 부처님이 아버지처럼 인자하고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삼보를 외치면 부처님이 나타나신다는 아버지 말씀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식인귀의 왕 산지는 돌아서서 열두 길이나 되는 큰 바위를 들어 부처님 일행에게 던졌습니다. 그 바위가 인자한 화불이 되어 부처님 곁에 섰습니다. 산지는, 요술로 요술비와 요술우박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떨어지는 우박은 낱낱이 화불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금강신이 금강방망이를 들어 치니 아득하게 높은 철산이 나타나 귀신의 왕을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말았습니다. 철산에 갇힌 귀신의 왕이 아무리 철산을 넘어서 달아나려 해도 가파르고 높은 쇳덩이 산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산지의 힘으로는 부처님과 겨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식인귀가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도 '나무 불'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지는 부처님 쪽을 향해 합장을 하고,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하고 구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몇 겹으로 둘러쌌던 철의 산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이 손으로 귀신의 왕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귀신의 왕은 오체를 땅에 대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먹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기입니다."

부처님이 타이르셨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면 저희들 귀신은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 하옵니다."

"내가 제자들을 시켜서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 줄 것이다. 5계를 받아 지켜라!"

"예, 부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귀신의 왕 산지는 기뻐하며, 5계를 받아 지녔습니다. 광야택 마을 재덕 장자는 큰 위험에 빠졌던 아기가 부처님의 힘으로 살아난 것을 알고, 온 가족이 고마운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가르침을 지켜 가기로 했습니다.

〈관불삼매경 제7권 관사위의품(觀四威儀品)〉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15만원
「중」 110 × 80 × 160㎜ 20만원
「대」 140 × 95 × 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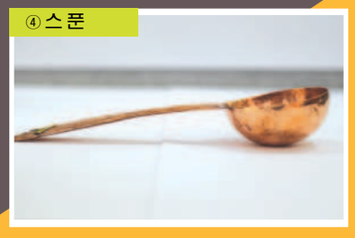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 × 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 × 120(h) × 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 × 140(h) × 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 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